금주의 법구-〈화엄경〉
이별에 애착해 답답한 것은 근심이며
눈물을 뿌리며 슬퍼함은 탄식이다.
근심과 괴로움은 고통을 불러들인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0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5월 21일) 2018년 7월 4일 수요일

삶에 지친 2030세대 '공감포교'로 사로잡자

공감·공유 '2030 또래 집단' 육성 필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취업준비생의 거리'로 불리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옆 예술의거리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만 되면 이색적인 장면이 펼쳐진다. 광주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가 운영하는 청년식당에서 무료식사를 하기 위해 100여 명의 고시생들이 길게 줄을 서는 것이다.

김영섭 자비신행회 사무처장은 "엄마가 차려주듯 한 따뜻한 밥 한끼에 많은 이들이 찾아온다. 마음에 작은 불심을 심는 것은 공감하는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2030세대 전법 포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는 불교 내 또래 집단 육성의 목소리가 높다.

20대 어려움 공감 · 해법 공유

20대의 대표적인 고민은 '취업' 그리고, 대학 진학으로 인한 '타향살이 어려움' 등이다. 불교계에서는 이 같은 고민을 함께 나누는 청년모임을 통해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먼저 혜민 스님이 이끄는 마음치유학교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주 일요일 취업을 위해 서울살이를 시작한 2030세대를 대상으로 후원프로그램 '어서와, 서울 살기 힘들지'를 진행한다. 20여 명의 서울 상경 학생들은 서로 서울살이 희노애락과 서울에서 잘 사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힐링멘토 법륜 스님이 지도하는 정토회도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두북정토수련원에서 '슬기로운 여름방학 깨달음학교'를 개최한다. 대학생 및 미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깨달음학교는 자급자족 라이프 등 대학생들의 홀로서기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다.

대한불교진흥원도 7월 28~29일 경주 황룡원에서 청년들의 마음챙김 연수회 '심쉼풀이'를 연다. 불교계 청년공동체인 절오빠절언니와 함께하는 심쉼풀이에서는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1월 노량진 고시촌에 개소한 마음충전소(소장 등명)도 스님과 고시생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밥한끼' '스님과의 차한잔' '마음충전 10분 텐트' 등을 운영한다.

박철홍 마음치유학교 지도사는 "20대가 쉽게 마음을 여는 이들은 또래인 20대"라며 "함께 꿈을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정서적 안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30대 취미 · 휴식 주제로 소통

대부분 직장생활로 상시적으로 모이기 힘든 30대의 경우 '취미'와 '휴식'을 주제로 한 사찰에서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먼저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청년회 차원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과 토요일 법회를 연다. 이중 화요법회는 이른바 치유법회다. 법회서는 직장인 도반들이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법회 참석 인원만 15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이 마음비추기, 불화그리기, 율동단 등 취미활동도 함께 할 수 있다.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도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30대 직장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명상을 진행 중에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아예 30대 직장인을 주 대상으로 발레와 요가 등 색다른 문화강좌를 개설했다. 7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발레, 7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요가강좌가 열린다. 타이틀도 2030세대를 위한 워라밸 문화강좌다.

20대는 취업 어려움 공유
30대는 워라밸 · 휴식 선호
사찰 · 단체 관련 강좌 시작

취업과 직장생활 어려움들
또래간 공동체에서 해소해
구심될 선도그룹 설립 유도

봉은사 포교국 관계자는 "워라밸로 대변되는 일과 생활의 조화에 대한 30대의 관심으로 이번 문화강좌를 개설했다. 취미생활로 모인 이들을 사찰 수행 모임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30세대들의 공통점은 어려움, 혹은 취미 등을 함께 공유하는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2014년 전국 사찰불교대학 재학생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불교대학 재학생 중 20대와 30대는 2%에 불과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비슷한 연령대의 도반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2030세대들은 또래 집단 간 공감과 공유를 통해 자기 해법을 모색하는 만큼 포교 단체 안에서 공유 · 공감 형성을 선도할 또래 그룹을 우선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20대와 30대 불교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선도그룹을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세대가 느끼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구심축이 될 소그룹을 먼저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는 달라도 본질은 하나" (사)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김희중 대주교, 이하 종지협)는 6월 16~22일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서 '2018 이웃종교 체험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이번 순례는 기독교 한 종파인 루터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종교 간 유대를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순례단에는 공동대표인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김희중 가톨릭 대주교,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성균관 관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이 참석했다. 사진은 6월 20일 덴마크 코펜하겐 프레데릭 교회 순례 후 맞은편 아말리엔보르 궁전광장에서 기념촬영 모습.

글=신성민 기자 · 사진제공=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생명탈핵순례, '생명헌장' 결실 이어지나

순례단, 21일 중간보고회… 하반기 순례 재개

올해 12월 인도서 시작해
내년 바티칸서 회향 계획
17개국 6천km 도보 순례

'세계생명헌장' 제정 추진
달라이라마 등 헌정 예정

생명을 파괴하는 핵발전서 벗어나자는 취지의 생명탈핵운동 하반기 순례가 재개된다.

생명탈핵실크로드순례단(단장 · 공동대표 이원영)은 "올해 12월 인도부터 다시 하반기 순례를 시작해 내년 12월 바티칸에 도착할 계획"이라고 6월 21일 생명탈핵실크로드 중간보고회 자리서 밝혔다.

하반기 일정은 인도, 네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이태리, 바티칸 순으로 총 17개국 6,000km 여정을 도보로 순례한다. 특히 내년 10월 하순으로 예정된 유럽 지역경로는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가 로마 방문시 걸어갔던 '알프스 루트(Alps Route)'를 따라 순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순례단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서울 광화문서 인도까지 총 10개국 4,000km 여정으로 상반기 도보순례를 마쳤다.

생명탈핵실크로드순례단장인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직접 걸으며 순례를 하니 평소 사용하지 않던 신경까지 자극돼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다만 참여자가 많지 않아 혼자 걸을 때가 많았다. 전 일정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주일, 며칠만이라도 좋으니 함께 걷고 동참하는 이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순례 초기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한 '세계생명헌장' 제정 진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교수는 "헌장 서울안은 지난 2016년 월정사서 열렸던 국제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이번 4차 세미나까지 많은 토론을 거쳐 보완해왔다"며 "달라이라마와 교황에게 헌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다듬는 단계"라고 말했다.

헌장은 순례 출발 전 연말에 공표할 계획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헌장은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핵발전은 생명파괴적 행위이므로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교수는 "생명탈핵순례를 통해 전 세계 450개 핵발전소가 안전하게 관리되면서 폐기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이자 지향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들어 기쁘다. 순례단도 이 분위기에 동참해 달라이라마, 교황과 손잡고 함께 지구촌 안전과 생명을 돌보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전국 사찰 여름방학 템플스테이 A5 | 범어사 흥교 스님 초청법회 지상중계 A6





추천도서!
좋은사람! 좋은책!
전국서점 절찬판매

[타래] 베스트셀러 저자! 이 시대의 최고 힐링멘토로 우리곁에 돌아온, 보현스님의 신간출시! [카르마 100일 보현스님의 행복체크카드]

YouTube
부처님마을 [보현스님]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과거 인기가수 출신. 80년대 아이유로 불릴만큼 각종 CF는 물론 KBS드라마 [사모곡] OST '사모곡' 과 '설마' 등을 불렀고, 가수 이선희와 함께 KBS 신인가수상 후보까지 오르면서 스타반열에 올랐다.
○최근 KBS2 [여유만만]과 TV조선 [대찬인생], KBS [아침마당], TV조선 [별별톡쇼], KBS2 [속보이는TV 人사이드],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등에 출연하면서 다시 한 번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현재 '보현스님의 카르마 100일' 강의로 유튜브(You Tube) 구독자 수 3,500을 돌파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379.2010

“미래세대 이끄는 데 韓日불교 합심”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법주사서 거행

법주사=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일 양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뜻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설정)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후지타 류조)는 6월 26일 속리산 법주사서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본대회를 거행했다. ‘청소년 인격형성에 있어서 사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양국 대표단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양국 불교계는 공동선언을 통해 청소년 교류에 필요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세우기로 결의했다. 이전까지 양국은 자국 청소년들의 해외불교 탐방 등에 대해 논의해왔으나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김형중 동대부여중 교장이 학술대회 발제자로 참석해 △청소년문제연구학회 구성 및 청소년 문제 연구발표 △청소년문화예술문학회 구성 및 불교소재 작품 교류 △양국 상호 방문을 통한 템플스테이 등을 제언함에 따라 실천방안 마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양국 불교계는 이뿐만 아니라 최근 오사카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목조건물이 대다수인 불교문화재 및 사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와 예방 대책을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회 참가자들은 오사카 지진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올렸다. 또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 양국 불교계가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적극 협력해 나아갈 것을 결의했다.

청소년 중요성 양국 모두 실감

공동선언문 발표에 앞서 법주사 대웅보전서 봉행된 기념법회서 사부대중은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의미에 공감하고, 청소년을 위해 대승적인 원력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청소년 교류 계획 세우기로
양국 템플스테이 교류 전망
“청소년은 곧 우리들의 미래”
지진피해 예방 위한 교류도

한일불교협의회장 설정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 불교계는 모두 부처님 제자라는 공통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불행한 과거사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여주 신륵사에는 ‘인류화합공생기원비’를 세워 동일본 대지진 피해 영혼을 위로하고, 죠세이탄광 매몰자 등 징용 희생자에 대한 아픔을 보듬었다”며 그간의 양국 교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설정 스님은 이어 “부처님께서는 도둑맞은 보석을 찾는 30명의 젊은이들을 만나 ‘사라진 보석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자기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었다”며 “양국 불교계는 미래세대를 이끌 청소년들에게 참된 나를 발견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불교지도자들이 법주사에서 한일대회 기념법회를 마치고 대웅보전 앞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이에 일한불교협의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소년기, 청년기의 인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흉악화 등 심각한 문제를 볼 때 국경을 뛰어넘은 불교문화의 교류와 교화가 급선무라 생각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양국의 상호이해, 우호친선이 더욱 깊어지고, 세계평화에 공헌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한일불교협의회 부회장 문덕 스님과 전일본불교회장 에가와 신잔 스님 또한 무한경쟁 사회에서 고통 받는 청소년들을 위해 불교계가 나서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덕 스님은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은 아주 많은 의미와 희망이 담겨있다”면서 “물질문명이 숭배되는 현대사회에서 사찰이 청소년 인격도야를 위한 모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에가와 신잔 스님은 “세계정세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전쟁, 테러 등의 가슴 아픈 폭력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고, 지금이야말로 불교의 가르침과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실감한다”며 “양국이 신봉하는 불교를 초석으로 함께 손을 맞잡고 더욱 크게 약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사부대중은 법회 이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팀이 마련한 사찰음식 오찬을 즐겼다. 대표단에는 법주사가 위치한 속리산 특산물인 송이버섯으로 만든 송이국과 연잎밥, 각종 채식반찬이 제공됐다.

한편 본대회가 끝난 뒤 27일에는 일본 대표단을 위한 부여 백제문화단지 탐방이 진행됐으며, 28일 일본대표단의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예방을 끝으로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마무리됐다.

학인 스님 중 염불 1인자는 누구일까

조계종 교육원, 9월 19일 염불시연대회

2014년 이어 2회째 열려
13개 기관 262명 참가해
전통 · 창작 분야로 진행

염불 1인자를 놓고 조계종 학인 스님들이 자웅을 겨루는 대회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6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단 기본교육기관서 수학 중인 학인 스님들의 염불 수행 능력을 겨루는 ‘2018 학인 염불시연대회’를 오는 9월 19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인 스님들의 불교의례 의식 이해와 자신감을 배양하며, 염불 생활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2014년에 이어 4년만에 개최된다.

‘염불자수(念佛者誰)-염불하는 이가 누구인고’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개인과 단체가 참가해 전통염불 · 창작염불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개인부는 염불시연자 1인을 기준으로 2인 이하의 보조자가 염불시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시연시간은 5분이며, 단체부 참가 기준은 염불시연자 3인 이상 20인 이하이며, 시연시간은 8분이다.

전통염불 참가자는 기존에 전래된 염불을 범음으로 시연하며, 창작연불 참가자는 전통염불을 편곡하거나 새로운 염불을 창작해 대중에게 선보인다.

이번 염불시연대회에도 많은 학인 스님들이 참여했다. 교육원에 따르면 대회 접수한 학인 스님들은 13개 종단기본교육기관 262명으로 개인부 38명 · 단체부 20팀(224명)이다. 특히 단체팀 참여가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 심사는 예선은 분야별 3인 1조로 심사위원이 구성되며, 본선은 염불 및 불교음악 전문가 5~6인으로 이뤄진다. 또한 본선은 스님과 재가자 80명으로 구성된 청중공감단도 참여해 ‘공감지수’ 심사를 한다.

이전과는 달리 전통 · 창착염불 부분을 나눠 대회를 진행해 시상도 나눠 이뤄진다. 개인부 대상에는 각 부문 300만원, 단체부 대상에는 각 부문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 우수상 · 원력상 등이 시상될 예정이다.

조계종 교육국장 응관 스님은 “‘염불’은 개인 또는 대중이 함께하는 수행이자 장엄한 불교의식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에는 단체 참가가 늘어났다. 기관별 학인 스님들이 서로의 유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교육원은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학인들의 전법역량을 강화시키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염불시연대회(2014)를 비롯해 외국어스피치대회(2015), 토론대회(2016), 설법대회(2017)를 진행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오온 만물의 구성요소 ‘색수상행식’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인간존재의 구성요소는 오온(五蘊)입니다. 물질적 요소인 색온(色蘊)과 정신적 요소인 수(受) · 상(想) · 행(行) · 식(識) 4온을 합친 오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음(五陰)이라고도 합니다. 온이란 집합 또는 구성요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온은 인간과 우주만물을 구성하는 색 · 수 · 상 · 행 · 식의 집합입니다. 초기에는 오온이 인간의 구성요소로 설명되었으나 개념이 확대되어 현상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오온이 인간의 구성요소를 의미할 경우 색은 물질 요소로서 지(地), 수(水), 화(火), 풍(風) 4대가 화합한 육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 · 귀 · 코 · 혀 · 몸의 다섯 감각기관 오근과 이에 상응하는 색 · 소리 · 냄새 · 맛 · 촉감(오경)의 지수화풍이 화합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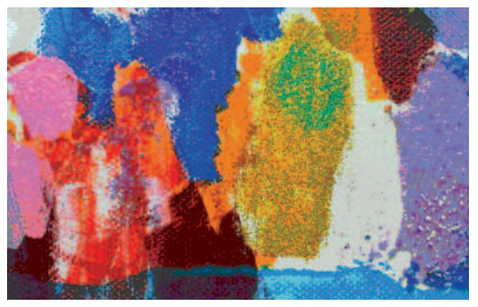
수 · 상 · 행 · 식은 정신적 기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수(受)는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감수 작용입니다. 상(想)은 대상을 생각 또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작용입니다. 행(行)은 받아들인 생각을 행하려는 잠재적 형성력입니다. 수 · 상 · 식 이외의 모든 마음 작용을 총칭합니다. 식(識)은 식별하고 판단하는 의식 또는 인식작용으로 마음의 작용 전반을 총괄하는 주체적인 마음활동을 말합니다.

정신적 요소 4온은 물질적인 색온(형색)과 결합하여 심신(心身)을 이루므로 오온을 명색(名色)이라 부릅니다. 명색이 일어나고 육처, 촉, 수에 이어 애(愛)가 발생합니다. 애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갈애로서 번뇌장입니다. 애에 연하여 취(取)가 일어나는데 오온을 자아로 집착합니다.

탐욕과 집착이 있는 오온이라는 뜻에서 오취온(五取蘊)이라고 하는데 윤회의 원인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12연기를 설하신 이유는 고(苦)에 묶여있는 인간에게서 오온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일러주기 위해서 였습니다.

*개인의 존재는 오온의 화합으로 성립합니다. 오온은 상호의존적인 인연


오온-인연 가화합 그림 · 조향숙

오온가화합 연기현상 ‘나’
자아에 대한 집착 along원인
항구불변 실체없어 ‘무아’

가화합 연기현상으로 끊임없이 인연따라 생멸변화하기 때문에 항구 불변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부 중생들은 오온 가화합을 자아의 실체로 집착하고 아집을 내세워 괴로워하고 파멸을 초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정불변의 자아관 아집을 없애기 위해서 ‘일체는 무아’라는 오온무아설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반야심경의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과 금강경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헛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진각 혜심 국사(無衣子 · 1178-1234)의 게송 ‘못속의 그림자(對影)’에서 무아(無我)의 본래면목을 만나봅시다.

“못가에 홀로 앉아 / 물밑의 한 중을 우연히 만나 / 묵묵히 웃음으로 서로 바라볼 뿐 / 그대 안다고 말해도 대답이 없네”

이 모든 말씀은 불법에서 가장 으뜸인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템플스테이

2019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선정 공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한국불교문화자원을 활용한 불교문화 대중화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사찰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기본 요건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지정요건)

① 운영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2.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3. 템플스테이 운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법사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4.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

●선정절차 안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현장실사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2018년 7월	2018년 8월	2018년 8~9월	2018년 9월	2019년 1~12월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 심사 →	서류심사 합격 사찰의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면접심사 (선정위원회 개최) →	면접심사 합격 사찰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평가 →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선정 →	예비운영기간 (경상보조금 미지원)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별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근거
1차 서류심사	운영사찰 지정 관련 기본요건 충족 확인	제출서류
2차 면접심사	대표자(주지스님)의 템플스테이 운영계획 청취	면접심사 평가표
3차 현장실사	사찰의 참가자 수용태세 확인	현장실사 평가표

●서류제출 안내
···▸제출기간 : 2018년 7월 2일(월) ~ 7월 20일(금)
···▸제출서류 : ① 2019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붙임’자료 포함)
② 서류양식 다운로드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www.templestay.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 www.kbuddhism.com
···▸제출방법 : 원본 및 파일 제출
① 원본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② 파일제출 : suko@templestay.com으로 제출
···▸제 출 처 : 03145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4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윤석호
···▸서류심사 결과발표 : 공문을 통해 개별 안내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의 사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서 내 첨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문 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윤석호, 02)2031-2031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단장 원경

불교명상, 걸으며 함께 체험해요

[현장취재]

한국명상지도자협, 6월 23일 걷기명상대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명상 지도자들을 필두로 2000여 불자들이 한강을 걷고 있다.

최근 불고 있는 명상 열풍에 걷기를 통한 수행의 매력을 더한 색다른 불교계 행사가 열렸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6월 23일 한강걷기명상 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명상지도자협회(협회장 혜거)가 개최한 이날 '명상, 한강을 걷다' 대회에는 2000여 명의 불자들이 참여했다. 사전 접수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차원에서도 첫 연합행사. 협회장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과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자비선명상원 원장 지운 스님 등 국내 대표 명상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여사 등 서울시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이날 혜거 스님은 "걷기는 현대인들이 스스로를 사유하고 관찰해 지혜를 얻는 좋은 방법"이라며 "우리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남북 평화시대를 맞아 평양까지 걷는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 티베트 명상음악가 까락빤빠의 공연 등 사전행사와 함께 자비선명상원 지운 스님의 걷기명상 소개가 진행됐다.

지운 스님은 "그냥 걸으면 안된다. 마음을 내려놓고 한발 한발 디딜때의 느낌에 집중하고 알아차려야 한다"며 "몸이 가벼워짐을 느낌과 함께 마음을 쉬고, 있는 그대로를 느끼자"고 말했다.

강한 햇빛 속에서 참가자들은 월호 스님의 지도 아래 준비 동작을 하고 한강을 옆으로 걷기 명상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1걸음당 1원씩 소외계층에 기부를 해 의미를 더했다. 폭염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여의도공원 물빛무대에서 바이크페리 선착장까지 약 3.3km를 묵묵히 걸었다.

행렬 중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하트스마일 명상을 남편과 같이 하고 있다는 정민아 씨는 "개인적으로 걷는 것을 좋아하던 차에 아이들과 함께 참가하면 좋을 것 같았다"며 "아이들이 어린이 집에서 비슷한 체험 활동을 하지만 부모와 함께 할 수 있어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봉인사에서 온 신택현 씨는 "명상을 처음 접해보는데 아내의 추천으로 함께 오게 됐다"며 "건강과 함께 마음의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이날 명상체험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를 마련했다.

이날 체험부스에서 자원봉사를 맡은 전소연 국제포교사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명상의 소개기회가 더 많았으면 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여줘 보람차다"고 말했다.

불교환경운동 본격화, 제2 전성기 연다

불교환경연대 4대강 나무심기 · 사찰림연구소 사찰숲전문가 파견


법일 스님(사진 오른쪽)과 청소년들이 함께 버드나무를 심고 있다.

불교계 환경운동이 다시 본격화 된다. 먼저 강을 살리기 위한 불교계 환경운동이 눈길을 끈다.

불교환경연대와 여주 신륵사, 여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23일 신륵사 앞 남한강가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버드나무 심기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방생법회는 4대강 정화를 위한 생명 살림 행사로 자애명상 등도 진행됐다. 행사에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은 "오늘 심는 나무가 자라서 강의 물을 맑히고 강과 더불어 사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남한강변에 30여 그루의 버드나무 묘목을 강가에 옮겨 심고, 4대강 정화를 기원했다.

행사에 참여한 서울 성일중 1학년 강금림 양과 박소연 양은 "언젠가 TV에서 오염된 4대강 물로 어떤 실험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여기에 오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불교환경연대는 2016년 재출범과 함께 4대강 100일 수행길을 개최하고, 죽어가는 강의 현장을 살폈으며 2017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4대강에 버드나무 방생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6월 23일과 9월 1일 남한강(여주 신륵사)을 시작으로 9월 15일 금강, 9월 29일 영산강, 10월 20일 낙동강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버드나무 심기 방생법회가 열릴 계획이다.

숲을 되살리기 위한 불교계 환경운동도 이어진다. 한국사찰림연구소는 6월 22일 숲바라밀본부를 통해 불교계에 숲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한국사찰림연구소(이사장 종수)는 한국 사찰림의 체계적인 활용기반을 연구하는 불교계 산림전문연구기관이다.

김미란 사찰림연구소 산림문화교육단장은 "전국 불교계 신행단체나 신도회, 학생회, 어린이회 등이 운영하고 있는 사찰이나 조직의 포교나 신행프로그램 중에 사찰숲 관련 프로그램의 지원을 하는 취지"라며 "당해 사찰이나 신행단체의 개요와 담당자를 선정하여 숲해설사나, 꽃차나 약초 전문가 등의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사찰림연구소는 2월 철원에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6월 송광사와 선암사 사찰림 탐방을 진행했다. 7월 7일에는 춘천 청평사에서 사찰림 탐방이 진행된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성보 문화재 보물 지정 · 예고 잇달아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 등 3점 보물 지정
조선불화 보경사 비로자나불도 보물 지정 예고



보물 제1991호로 지정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사진 왼쪽)와 보물 지정예고된 보경사 비로자나불도(사진 오른쪽).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보수 중 발견된 사리장엄구 유물 일괄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국보가 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등 13건을 보물로 '이제 개국공신교서'를 국보로 지정했다"고 6월 27일 밝혔다.

보물 제1991호로 지정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지난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보수 중 심주석의 사리공과 기단부서 나온 유물로 639년(백제 무왕40) 절대연대를 기록한 금제사리봉영기와 함께 금동사리외호, 금제사리내호, 각종 구슬과 공양품을 담은 청동합(靑銅合) 6점으로 구성됐다.

'금동사리외호 및 금제사리내호'는 모두 동체의 허리 부분을 돌려 여는 구조로, 동아시아 사리기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구조로 주목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선의 흐름이 유려하고 양감과 문양의 생동감이 뛰어나 기형(器形)의 안정성과 함께 세련된 멋이 한껏 드러나 있다.

'금제사리봉영기'는 얇은 금판으로 만들어 앞 · 뒷면에 각각 11줄 총 193자가 새겨져 있다. 내용은 좌평(佐平)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인 백제 왕후가 재물을 시주해 사찰을 창건하고 기해년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내용이다. 봉영기 발견으로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진 미륵사 창건설화에서 구체적으로 나아가 조성 연대와 주체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히게 된 계기가 되어 사리장엄구 중에서도 가장 주목된다.

이밖에도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보물 제1988호) · 대곡사명 감로왕도(보물 제1990호) · 지장시왕도(보물 제1994호) 등 불교문화재도 보물로 지정됐다.

또한 태조 이성계가 개국 일등공신 이제에게 내린 교서인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국보 제324호로 지정됐다.

이에 앞서 조선시대 불교회화인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와 '평양성도 병풍' 등 조선시대 회화 2점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6월 26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1742년(영조 18년) 조선 후기 경상도에서 활동한 세 명의 불화승(佛畵僧)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그린 작품이다. 높이 3m에 가까운 대형 삼베 바탕에 붉은 물감을 칠한 뒤 인물과 의복 등을 흰색 물감으로 그린 불화이다.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문수보살, 보현보살과 사천왕상 등 권속(眷屬)들이 둥글게 에워싼 원형 구도로, 비로자나불을 단독의 주존불(主尊佛)로 배치한 불화 중에는 이 작품이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붉은 바탕과 백색의 섬세한 필선과 아기자기하게 배치된 화려한 장식 문양 등이 어우러져 시각적인 오묘함과 조화로움이 돋보이며, 제작 시기와 제작자가 뚜렷해 조선 후기 불화 연구의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 등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4대종교 이주협, "예멘 난민이 곧 부처"

6월 25일 성명 발표… '정부&지자체 신속 조치' 촉구

"제주를 찾은 예멘 난민들 모습 속에서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던 우리들의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살인적인 폭력을 피해 평범한 삶을 찾아 우리 곁에 온 나그네를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4대종단 이주 · 인권협의회는 제주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6월 25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로 구성돼있다.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위치한 나라로, 독립과 분단을 거쳐 1990년 통일 국가가 됐다. 하지만 또다시 분열되었고 종교갈등까지 더해져 내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불교와 기독교 가르침을 인용해 "존재하는 모두가 부처다(불경, 원불교정전)"며 "피난처를 찾아 이곳까지 온 난민들이 곧 부처님이며, 저들이 찾아온 이곳 대한민국이 바로 예수님 피난처이다. 어찌 우리가 부처를 내칠 수 있으며 아기 예수님을 잔인한 헤롯에게 돌려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미 가입한 UN난민협약과 이미 존재하는 난민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대승불교 수행의 핵심 가르침!
親友書 친우서
용수보살 지음
수다지 캔뽀 한역 및 강설
지엄 편역 / 신국판 양장
504쪽 / 값 25,000원
제2의 붓다로 불리는 용수보살이 친구인 왕에게 경전의 요점과 수행의 비결을 게송으로 풀어 가르친 것으로, 대승불교 전체의 교리와 수행체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친구(왕)에게 보내는 편지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윤회와 인과의 실제 이야기
지난 역사 속에서 발생하였던 윤회와 인과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역사적 진실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만을 골라 엮었다.
석운광 지음 / 국판 / 200쪽 / 값 10,000원

우리말 팔천송반야경
반야경전 중 가장 오래된, 대승불교의 근본 경전!
일상에서 흔히 쓰는 현대 우리말로 쉽게 풀어 옮겨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마치 설법과 대화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박이오 역 / 신국판 양장 / 368쪽 / 값 1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1998년 8월 건봉사에서 열린 6차 전국염불만일회 결성식.


2001년 5월 동산불교회관 개관식.


2003년 12월 불교성전 보급 선포식.


2003년 12월 제1회 대원상 수상.

“재가·생활·실천불교 기치 다시 높이자”

동산반야회 김재일 법사 10주기 추모법회 개최

추모법회엔 500여 불자 운집해
법산 스님 “동산 용맹 이어지길”
법타 스님 “정법 실현 나서달라”
동산반야회 10주기 추모집 발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최초로 재가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재가불교운동을 펼친 故김재일 법사 10주기 추모법회가 열렸다. 동산반야회와 동산불교대학(이사장 이종현)은 6월 23일 서울 동산불교대학에서 김재일 법사 10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법회에는 동산반야회 법주 법산 스님을 비롯해 법타 스님 등 종단 원로 스님들과 재가불자 5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故김재일 법사는 불교계에서 최초로 재가교육운동을 펼친 선구자였다. 故김 법사는 1949년 11월 23일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어려서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닌 것이 계기가 돼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광주상고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수료했다. 故김 법사는 군종병으로 군생활을 하던 당시 수계 인연으로 무진장 스님을 만나 청년시절 불교 대중화 운동에 꿈을 품게 된다. 이후 1982년 무진장 스님을 법주로 동산반야회를 창립했다. 동산반야회는 불교계 최초의 재가자 불교경전 교육 단체였다.

당시 故김 법사는 서울시 공무원이었다. 故김 법사는 불교 대중화에 전념하기 위해 명예퇴직 후 1992년 동산불교대학을 불교계 최초로 설립하게 된다. 동산불교대학은 조계종 포교원이 실시하는 포교사 고시에 최다 합격자를 배출해 포교사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 1994년 한국재가불자연합을 결성,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붓다클럽 등을 설립했다. 1998년에는 염불만일회를 결성해 아미타불의 정토화 실현을 발원해 지금도 계승하고 있다.

故김 법사의 불교적 삶은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한문구조의 불교경전과 의식을 고치는 것이었다. 故김 법사는 불교사상강연회, 불교성전 호텔 배부 등 생활속 포교에 앞장섰으며, 인도 석가족 마을 불교 개정운동, 네팔학교 건립 추진,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 운영 등 불교의 대사회적인 행보에도 앞장섰다. 하지만 故김 법사는 2008년 6월 18일 60세의 일기로 ‘동산’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런 모습에 대해 동산반야회 법주인 조계종 대종사 법산 스님은 “김재일 법사는 신념과 실천 의지로 한국불교 현대사 중 재가불교운동의 싹을 틔운 선각자”라며 “재가불교,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3대 목표 기치를 높이 들었던 동산의 용맹력이 김재일 이사장 입적 10주기를 계기로 재발심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법타 스님도 “1000만 불자가 700만으로 줄었다 해도 누구 하나 비분강개 하지 않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바위같은 불가로 추락했다”며 “성주괴공의 회전 속에 정법구현 실현만이 오늘의 진통이 되어 내일의 정토실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추모했다.

이날 법회에는 재가불자들의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이종현 동산불교대학 이사장은 “생전에 일군 다양한 사업은 꽃몽우리만 맺은 채 크게 펼치지 못하고 있다. 10주기를 맞아 못다한 일을 완성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또 다른 전법 포교의 서원을 다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동산반야회와 동산불교대학은 故김재일 법사의 10주기를 맞아 E-book 형태 추모집 〈불국정토의 꿈을 위하여〉를 펴냈다.



김재일 법사가 남긴 발자취

1982년 11월	동산반야회 창립
1984년 3월	불교기초교리 강좌 교계 최초 개설
1986년 3월	압구정동 반야포교원 개원
1992년 8월	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개설
1994년 9월	동산불교전문연구원 개설
1994년 11월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 창설
1998년 8월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결성
2001년 5월	동산불교회관 개관
2002년 11월	정토진종 양원사 결연
2002년 6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결성
2002년 10월	석가족 불교개정운동 동참
2004년 8월	붓다클럽 창립, 재가불자헌장 발표
2007년 4월	대아미타사 건립 발원 기도 입재
2008년 6월	향년 60세로 타계

장애부모 32명의 달콤한 2박3일 휴가

강북장애인福 장애부모 캠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월 19~21일 2박 3일 일정으로 장애자녀를 둔 부모 32명과 함께 울릉도에서 ‘장애 주돌봄자를 위한 휴식지원 휴(休)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장애부모의 사전 선호도 조사를 통해 울릉도로 장소를 선정했으며, 울릉도 섬 관광 및 죽도, 유람선 투어 등 다채로운 활동 등이 진행됐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 자녀가 안전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대리 돌봄제를 시행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이현숙 씨는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한 휴식을 취하고 가게 되어 너무 좋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여행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측은 “장애인 주 돌봄자들의 휴가를 지원해 장애자녀의 양육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주 돌봄자 간 격려의 장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마음법과 물질과학 만나 세상을 이롭게

한마음과학원 소속 심성과학자들 한자리에

선법가를 듣고 자란 콩나물은? 한마음의 원리로 이뤄지는 교육은?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으로 사는 삶은? 관(觀)하는 사람들의 뇌파는? 궁금한 것이 많다. 궁금증이 있으면 답을 찾으려는 노력도 있기 마련이다.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마음의 원리로 규명해 내는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소속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마음과학원은 마음의 원리가 물질로 나투는 도리를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증명해 보이는 심성 과학의 중요성을 일찍이 설파하신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따라 1996년 설립되었다. 그동안 한마음과학원에 소속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보편의 언어로 마음법의 세계를 풀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최근 젊은 학자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지난해부터 스터디그룹별로 주제를 정하고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6월 23~24일에는 이들의 지난 연구 과정들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2018년도 스터디그룹 중간발표’ 모임 및 수련회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열렸다. 1박 2일 동안 도량에 머물며 심성과학자로서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발표 시간뿐 아니라 공양시간, 휴식시간 까지도 열띤 토의들이 이어졌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던지는 질문들은 다음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한마음의 원리를 공부하는 과학자들의 모임, 한마음과학원이 6월 23일~24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연구 과정을 공유하고 보고하는 시간을 개최했다. 사진은 공학팀 발표 모습.

의학 팀은 “대행 스님께서는 이미 20년 전에 각자가 하는 생각은 대뇌를 통해 정신계로 전달이 되고 이는 다시 현실로 나온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법 수행을 할 때 나타나는 뇌파의 특성을 파악해 뇌파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하는 연구와 한마음선원 불자들의 뇌파 특성도 파악 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마음과학원 원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한마음과학원 지도법사 혜찬 스님을 비롯 운영위원 스님 및 한마음과학원 회원 등 50여명이 동참했다.

한마음과학원은 중간발표 이후 이어진 연구 결과를 오는 가을 학술대회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전국 어린이 지도자 한자리에

동련, 제64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성료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신공)은 6월 23~24일 충북 보은 속리산유스타운에서 ‘제64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어서와! 이런 캠프 처음이지? 육바라밀 Ⅱ-선정바라밀’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는 이사장 신공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 최미선 동련 사무국장 등 어린이지도자 교사 300여명이 동참했다.

입재식에서 동련 이사장 신공 스님은 “동심으로 돌아가 모의 불교학교를 체험하고 각 사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소개와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각 사찰에서 잘 활용해 어린이 포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1박 2일 동안 참가자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획한 ‘선정 바라밀’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활용 방안을 연구 학습했다. 첫날 강의에서는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이 ‘내 마음의 행복을 찾아.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어린이 법회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동련 이사장 신공 스님의 ‘이런 선정바라밀은 처음이지!’ 강좌도 이어졌다.



동련은 6월 23~24일 충북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64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둘째날에는 12가지 선정에 관련된 선택 강의와 범우 스님의 ‘선정아 가즈아!’ 강좌가 진행됐다.

한편, 이번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서는 연꽃문화제 수상자 시상식과 사단법인 동련 경북지구 발대식도 함께 개최됐으며 초대 경북지구 회장은 현종 스님이 임명됐다.

현종 스님은 “앞으로 경북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하성미 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공단등


만월등


불기등


사찰 고유의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너의 여름을 사찰에 맡겨봐!”

전국사찰서 여름방학 특별 템플스테이 마련

학생들만의 특권인 방학. 그중에서도 여름방학은 ‘놀기 좋은 계절’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다. 시원한 물놀이도 좋고, 숲속에서 자연을 음미하는 것도 즐겁다. 하지만 매년 어느 곳에서 신나게 무더운 여름을 보낼지 고민하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올해는 불교계가 학생들을 위한 이색적인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 바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소개하는 전국 49개 사찰 ‘여름방학 특별 템플스테이’다.

특별 템플스테이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놀이형 △학습형 △문화체험형 △수행형으로 구분된다. 아이들을 위한 자연체험, 물놀이, 108염주만들기 프로그램을 비롯해 숲속명상과 예절교육, 한문학당, 영어연극 등 올 여름, 산과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산사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자.

정리=윤호섭 기자

“방학인데 좀 놀면 어때?”
〈놀이형 템플스테이〉

여름방학에 물놀이가 빠질 순 없다.

경주 기림사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7월 27~29일, 초등학생 대상으로 8월 3~5일 ‘여름방학 템플스테이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개최한다. 스님과의 차담을 포함해 명상, 감포 문무왕릉 해맞이, 왕의 길 걷기, 용연폭포 물놀이, 친구들과의 윷놀이, 파초선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웠다.

용인 법륜사는 7월 27~29일 초등학생을 위한 ‘법륜사 여름 어린이 산사수련회 먹Go! 놀Go! 자Go!’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사찰체험에 앞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먹는 즐거움을 배워보는 발우공양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찬불가 율동 배우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짐하는 절하며 염주 만들기, 떠들썩한 물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방학에도 공부는 계속된다
〈학습형 템플스테이〉

여름방학에 놀기만 할까 걱정된다면 공부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해보자.

보은 법주사는 8월 10~12일 ‘Plop, plop. Enjoy Summer! 여름담마캠프’를 준비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영어 템플스테이다. 하루 일과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구연동화 연극을 영어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조선시대 세조 임금의 행차길인 ‘세조길’을 따라 명상하듯 숲길을 걷고,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도 할 수 있다.

해남 미황사는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어린이 한문학당’을 운영한다. 매년 진행되는 미황사 한문학당은 〈수심보경〉으로 배우는 한문 공부를 비롯해 발우공양, 다도체험, 별자리체험, 단청 그리기, 탁본체험, 바닷가 물놀이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봉사·우정·마음… “행복해요”
〈문화체험형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가 노는 것과 공부뿐이라면 섭섭하다. 행복을 찾는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알아보자.

논산 지장정사는 8월 11~12일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자원봉사 템플스테이)’을 준비했다. 도시 친구들에게는 낯선 논밭을 오가며 자연정화 활동을 하고, 어르신들의 눈과 귀가 되는 시간 등을 통해 즐거움이 배가 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학생들에게는 6시간의 봉사활동시간도 주어진다. 이외에도 스님과의 차담, 알아차림 명상, 캠프파이어 등도 즐길 수 있다.

구례 화엄사는 8월 3~5일 ‘청소년들의 마음등불 머슈멜로우 캠프’를 진행한다. 인간매듭 풀기, 소중한 나의 손 핸드메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과 우정을 다지는 한편, 별·바람·달빛이 머무는 숲 치유, 함께 걷는 명상, 요가, 시화 등 화엄사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수행형 템플스테이〉

신체가 성숙하지 않았다고 마음까지 그러할까. 올 여름엔 단 한 곳뿐인 수행사찰서 내 안의 나를 마주해보자.

화성 용주사는 8월 3~5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氣) 충전 행복에너지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집중하는 연습을 바탕으로 이 뭣고 참선기공, 108배 기공, 화산숲길 명상기공, 다도체험, 예불, 발우공양 등이 진행된다.



금선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아이들이 운판을 치며 즐거워하는 모습.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8 여름방학 특별 템플스테이

	사찰명	일정	프로그램명	대 상	전화번호
놀이형	서울 국제선센터	7.27~29	야단법석 영어캠프	초4~6	02-2650-2213
	서울 금선사	8.13~15	어린이 산사캠프	초등생	02-395-9955
	광명 금강정사	7.27~29	마음아 여기서 함께놀자	초등생	02-899-7366
	인천 전등사	7.25~27	寒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초4~6	032-937-0152
	보은 법주사	8.3~5	풍당 여름에 빠지다	초등생	043-544-5656
	청주 용화사	7.21~22	신나게 노올자	초등생	043-275-0516
	논산 지장정사	7.21~22	부처님과 여름나기	7~13세	041-732-0106
	남원 귀정사	7.28~29	아이와 숲템플스테이	5세~초등생	063-626-0106
	해남 대흥사	7.27~29	숲속마을 템플스테이	초등생	061-535-5775
	영암 도갑사	7.27~29	우리는 꿈나무 주인공	초등생	061-473-5122
	순천 송광사	8.11~13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초등생	010-8830-1921
	구례 화엄사	8.8~10	아빠 엄마 함께 가요	초등생	061-782-7600
	경주 골굴사	7.29~8.18	화랑수련회	초중등생	054-775-1689
	영천 은해사	7.28~29	여름 어린이 캠프	초등생	054-335-3308
	김천 직지사	7.27~29	여름 힐링 템플스테이	초등생	054-429-1716
	창원 성주사	7.28~29	보리수 템플스테이	초등생	010-8985-0897
	양산 통도사	7.27~29	여름수련회	초등생	055-384-7085

	사찰명	일정	프로그램명	대 상	전화번호
놀이형	대구 동화사	8.8~10	어하동동 템플스테이	중고생	053-980-7979
	부산 범어사	8.1~3	초등부 템플스테이	초등생	051-508-5726
	제주 금룡사	7.21~22	바다명상 템플스테이	초등3~6	064-783-3663
	제주 약천사	7.28~29	여름불교학교	7~10세	064-738-5000
	제주 관음사	7.26~27	마음숲 여행	초등3~6	064-724-6830
학습형	서울 금선사	8.1~2	자소서 쓰는 템플스테이	중고생	02-395-9955
	광명 금강정사	8.4~5	놓아버린 만큼의 행복	중고생	02-899-7366
	화성 용주사	7.27~31	어린이 한문학당	초등생	031-235-6886
	평창 월정사	7.31~8.1	영어 템플스테이	초5~중고생	033-339-6606
	부산 범어사	8.3~5	청소년 템플스테이	중고생	051-508-5726
문화체험형	서울 진관사	7.28~29 8.4~5	내 마음속 예쁜 꽃씨 내게 몰입하는 1박2일	초등생 중고생	02-388-7999
	서울 조계사	7.28~30	물 만난 템플스테이	7~13세	02-768-8523
	남양주 묘적사	7.30~31	몰랑이들의 여름나기	초2~6	031-577-1761
	수원 수원사	7.28~29	어린이 행복캠프	초등생	031-245-9670
	양주 육지장사	7.27~29	어린이 연합캠프	초3~6	031-871-0101
	고양 중흥사	7.14, 8.11	역사해설 템플스테이	초4 이상	02-355-4488

	사찰명	일정	프로그램명	대 상	전화번호
문화체험형	용인 화운사	8.3~5	놀아봐! 꿈꿔봐!	초등생	031-337-2576
	인천 전등사	7.31~8.2	寒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중고생	032-937-0152
	공주 마곡사	8.3~5	노올자 템플스테이	초1~5	041-841-6226
	서산 서광사	8.3~5	여름방학 템플스테이	초3~5	041-664-2002
	예산 수덕사	7.27~29	kids 산사일기	초등생	041-330-7789
	당진 영랑사	7.29~31	청소년 산사학당	초4~고3	041-353-8053
	남원 실상사	8.1~5	여름 배움의 숲	중고생	063-636-3191
	해남 대흥사	8.14~16	디디고 템플스테이	중고생	061-535-5775
	영암 도갑사	8.8~9	내 꿈애 날개를 펼쳐라	중고생	061-473-5122
	영광 불갑사	8.3~5	나 몰라 불갑 간다	초3~중3	010-8631-1080
	인제 백담사	7.27~29	청소년 꿈사리	중1~고3	033-462-5565
	하동 쌍계사	7.27~29	쌍계학당 여름수련	초4~중등생	010-6399-1901
	고성 옥천사	7.30~8.1	같이 놀자!	초4~6	055-672-6296
	통영 용화사	7.26~28	청소년 템플스테이	중고생	055-649-3060
	밀양 표충사	8.7~9	표충사 여름나기	중고생	055-352-1150
	부산 홍법사	8.2~8	작심단기출가	초4~6	051-508-0345
	제주 약천사	8.1~3	여름불교학교	11~13세	064-738-5000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3재 법회

“‘죽음’ 아닌 ‘열반’을 준비하자”

음력 7월 15일은 백중(百中)이다. 이날 불가에서는 스스로 허물을 참회하고 돌아가신 부모형제나 조상의 넋을 기리며 천도재를 지낸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6월 21일 부산 범어사 설법전서 창원 성주사 회주 흥교 스님을 초청해 백중지장기도 3재 법회를 봉행했다. 스님은 “백중날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며 “일체중생을 위해 사는 보살로서 죽음이 아닌 열반을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리=김지원 수습기자

주제 : 영가천도로 되새기는 생사관

흥교 스님



흥교 스님은… 1959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상원사 · 범어사 · 칠불사 · 만덕사 · 벽송사 등에서 참선수행을 했다. 범어사 · 대각사 · 성주사 주지, 5 · 6 · 8 · 9대 중앙종회의원,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종정상, 총무원장상,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영가장애 동력원은 부정적 상념
백중 천도재로 되새기는 生死觀
생사윤회 집착 않는 보살 자세로
열반 향한 진리의 삶 살아야한다

천도하러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은 영가 이야기, 천도 이야기, 돌아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가에 대한 분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떠도는 영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인간적인 생을 가지고 살면서 활동하고 또 우리와 교류하고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영가’란 악령에 의해 우리들 잔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영혼 외에도 인간이나 동물에 남아있는 상념이 사후에 그 영가와 같이 교류하는 것을 ‘영가가 장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가의 장애는 스스로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영가는 원인이 있고, 기회가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이지 스스로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영가에 대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영가는 공간에 집단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염파, 일반적인 나쁜 상념의 집단 염파, 과거에 전사한 자가 천도되지 않은 염파 즉, 파장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태아가 천도되지 않는 염파. 그걸 우리가 수자령 영가라고 그러죠? 알고 모르게 이렇게 넘어가는 영가. 인간의 나쁜 영가는 천도되지 않는 이 영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살한 영가, 큰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원한으로 죽은 영가, 무인(巫人)의 영가, 행방불명으로 떠돌다가 죽은 영가,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영가는 천도할 수 있고, 또 왕생극락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가들이 결국에 보면 악신, 귀신, 사신, 야차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흔히 ‘마장이 끼었다’고 그러지요. 마장 중에서 먼저 지마(地魔)란 것은 토지나 건물이나 부처 간 나쁜 상념이나 혼령을 이야기해요. 토지의 나쁜 염파, 묘지, 사당, 옛터, 전쟁터, 예전에 우물, 하천 이런 곳에 영가가 떠돌다 간 그 파장과 상념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마는 천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경전을 놓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독경을 해드리면 됩니다. 스님들을 불러서 하면 좋지만 보살님들이 직접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천마(天魔)는 구름이 잔뜩 낀 상태,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밝지 못한 데 천마가 생깁니다. 어둠을 결합해서 커다란 힘을 가진 것으로 하늘을 덮고 검은 구름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마는 퇴진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시키는 것은 어려워요. 정화를 시키려면 스님들이 한 50, 60명 모여앉아서 하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백중날 하지요? 그때는 이 천마를 정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왜 천마를 정화시키기 어려운가 하면 첫째로, 좋은 기운을 전혀 갖지 않는 나쁜 기운 일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살아있는 자에게서 시시각각 방대한 나쁜 염파가 생산되어 어두운 공간에 살고 있는 영가에게 에너지를 보급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거대 결집한 나쁜 염파 덩어리는 에너지 위력이 매우 셉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기도 · 정진하고 큰스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영가천도와 구제의 의미

천도재를 지내고 구제한다는 것은 착한 마음, 착한 성질같은 절대적으로 선한 에너지를 주입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재를 지낼 때 그렇잖아요. 모셔다 놓고 ‘영가이십시오’ ‘영가 이리 앉으십시오’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십시오’ ‘공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쁨을 얻어서 왕생극락하십시오’. 이게 천도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는 것이 스님들 염불 아니에요. 팔만대장경에서 나오는 골수, 하도 유명한 말씀만 만들어서 해놓은 것이 영가법문입니다. 영가법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버리고 금방 다른 생명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몇십년 동안 방황하는 영가들도 많습니다. 윗대에 누가 죽었다든지 또 형제간에 할아버지, 아버지든 나가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경우는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이 경우도 우리가 백중날 천도를 해 줘야 합니다. 집안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영가를 모시고 자비한 마음으로 공양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좋은 일입니다. ‘조상들이 돌아가신지 오래됐는데 지금 재를 지내도 공양을 받으시고, 축원을 한다 해도 영험이 있습니까?’라고 나한테 묻는 이가 있었는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파장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영원불멸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근본도리를 깨닫고 우주 아들로 영원히 승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죽어가지고 바로 몸 받아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방황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대부분 인간들은 끊임없이 원망, 시기, 질투, 분노, 탐욕, 성내는 것, 복수심, 슬픔, 삿된 욕망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잖아요. 무한한 집착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무한히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집착 속에서 살다가 삶을 등지는 탓에 영혼이 제 갈 길로 가지 못하고 가족들 주위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영가가 가족을 직접 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먹구름이 끼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를 해줘야 됩니다. 만일 사람이 선업을 수행하고 바른 선행을 닦아서 선업을 갖춘다면 그 사람에게는 백천의 신이 수호로 돌봐줍니다. 여러분들도 조상 수호신이 또는 부처님 모시는 사천왕들이 항상 수호해주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귀신 때문에 재앙을 받는 자도 있고, 또 그 귀신 때문에 원호를 받는 자도 있습니다.

선과 악 모두 잊어라

우리는 삶의 행로를 어떻게 엮어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열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나 열반으로 받아들이면 그렇지 않거든요? 격렬하게 타오르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번뇌의 불꽃이 항상 들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번뇌의 불꽃이 사라지고 상쾌하고 청량한 마음으로 살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가도 가야지, 그냥 죽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모든 번뇌를 없애도 욕망과 탐애를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을 없애는 길은 보살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살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산다는 걸 뜻해요. 여러분들은 나를 얼마만큼 버리고, 내 가정, 내 이웃, 내 형제를 위해서 사는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욕망의 의지처로 삼은 신체를 관(觀)함으로써 번뇌가 꽤 적어진 상태를 ‘유여의 열반(有餘涅槃)’이라 합니다. 그러나 광명, 생명, 신체가 궁극적인 안락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으면 진정한 열반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여의 열반(無餘涅槃)’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백중을 쇠는 데 조상 천도만 생각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가도, 생각지도 못하는 영가도 있을 겁니다. 죄도 그렇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채 짓는 죄가 많아요. 생사윤회의 세계서 벗어나 절대 안락 · 열반의 세계에서 한번 쉬고, 또 생사윤회로 되돌아와서 보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체의 부정열반의 경지가 있다는 것이 ‘무주처열반(無主處涅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교에서 파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은 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은 파도도 될 수 있고, 얼음도 조각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물이에요.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나타나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유여 · 무여의 열반이라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파도라고 하는 단계에서 나타나고 또 사라진다고 하지만 역시 물은 물, 마음은 마음인 거예요. 나쁜 마음이든 좋은 마음이든 항상 물 자체라고 하는 근본 · 진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본래 나이기 때문에 고요한 것이고, 우주로 돌아오는 보살로서 한번 태어나서 활동하면서 그 자유자재의 세계에 열반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반을 준비하지 죽음을 준비하지 마세요. 개체로 받아들이지 말고 전체 우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가능하면 무주처열반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무주처열반 경지에 들면 행복, 불행, 손해, 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경지를 아뢰야식이라고 합니다. 걸리지 않는 것, 철저하게 정화하는 것, 반드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것, 세계에 남아있는 안목을 유지하며 절대 긍정의 세계를, 자유세계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선 악도 선도 다 잊어버려야 해요.

사찰로 명당! 도성속의 숲속

2015년 부천시의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 주 변 : 500m 內 서울항동지구, 부천옥길지구, 현대아파트 단지 등 22,000세대 +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202-1, 서울 경계 115m
- 대지 158평, 건물 93평, 사유지처럼 쓰는 땅 400평 이상
- 양도가액 : 35억

연락처 : 010-4500-9095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과학적 진보가 밝히는 불교진리 사회



⑬ 3초 방편

3분 짜장, 3분 카레. 3분 시대를 살아왔다. 이제는 3초다. 시간은 아니다. 초연결(IoT: Internet of Things), 초실감(AR: Augmented Reality), 초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3초다. 말법시대에 등장한 3초의 불교적 의미는 무엇일까?

1. 초연결

물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낮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섬, 한민복〉

섬하면 외로움이 떠오른다.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까닭이다. 하지만 시인은 사방의 물울타리가 전부 길이라 역설한다. 너무 외로워서 일까? 무인도 갈 때 제일 요긴한 물건 하나만 고르라면 스마트폰이 일순위다. 고립된 인간은 살 수 없기 때문일 게다. 관계 속에서만 정의되는 것이 우리들 인간이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지구촌 60억 인간들은 유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여기에 자동차, 비행기는 물론 심지어 냉장고, TV, 세탁기까지 연결된다. 기존 인터넷 너머 사물 인터넷(IoT)으로 초연결되는 세상의 모습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조차도 본래 60조 세포로 이루어진 초연결망이다. 일체가 중중무진 인드라망의 세계다. 거기 자타의 경계! 울타리는 없다. 온통 길이다. 본래 그러한 세계임을 초연결 기술이 서서히 입증해 보이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부처님 말씀이 이제야 먹히고 있다.

2. 초실감

우습다
내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이
아지랑이더란 말이냐.

〈아지랑이, 조오현〉

범위를 좁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자. 안이비설신 오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한다. 하지만 사실 오감은 믿을 것이 못된다. 얼마든지 착각을 일으킨다. 더군다나 뇌까지 함께 동조하면 착각을 넘어 온갖 상상까지 가능해진다. 이러한 인간의 치명적 약점을 교묘히 파고든 기술이 가상현실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빛, 중력, 온도, 습도 등 각종 신호를 통해 오감으로 입력된 데이터는 전기화학적 생체신호로 변환되어 뇌까지 전달된 연후에야 비로소 대상을 파악하게 된다.

실제 오감 밖의 대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조차 없다. 뇌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변환된 전기화학적 신호뿐이기 때문이다. 오감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다. 1.4킬로, 1.4리터의 작고 가볍지만 수천억 생명체, 즉 뇌세포의 인드라망으로 구성된 우주! 뇌가 보는 것이다. 어둠침침한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되듯, 창문 하나 없이 꽉 막힌 컴컴한 두개골 속에서 뇌가 전기화학 신호에만 의지해서 대상을 그려내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뇌의 작용을 통해 발현된 마음이 대상을 짜깁기하는 것이다. 일체유심조다. 마술사의 술책처럼 오감에 슬쩍 트릭만 가해주면 뇌는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상현실이 통하는 이유다. 처음에는 알면서 속아주지만 점점 정교해지다보니 이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된다. 초실감 기술이 일체유심조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초실감 기술의 발전여부와 상관없이 세상은 본래부터 그러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아지랑이〉를 통해 무산스님께서 말씀하신 바, 진실로 여몽환포영이라고.

3. 초지능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쌍윳다니까야〉

최상의 앎이 생겨난 최초의 존재는 부처님이다. 인간이건 인공지능이건 앎은 지능의 핵심이다. 수많은 인공지능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지만, 그 핵심은 앎이다. 모든 존재는 앎의 수준에 따라 삶의 질과 가치가 바뀐다. 동물이 지닌 원초적 앎도 있고, 인간이 집착해마지 않는 이기적 앎도 있다. 그리고 부처님만이 누리는 최상의 앎도 있다. 인공지능에게도 앎의 수준이 있다.

인공지능의 선두주자인 알파고는 수십만개 정도의 뉴런으로 구성된 바, 개구리 수준의 앎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수천억 뉴런으로 구성된 인간과는 비교도 안된다. 인간처럼 언어를 통한 사유능력까지 갖추려면 무수한 진화의 세월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몸뚱이인 컴퓨터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 엄청난 속도와 기억량으로 놀라운 성능을 자랑한다. 사실 개구리 수준의 뇌만으로도 바둑을 재패할 수 있었던 것은 지능이 높아서가 아니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슈퍼 몸뚱이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진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머지않아 사유능력은 물론 자아가 실재한다는 착각적 앎을 갖게 될지 모른다. 착각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이 찰나적이듯이, 미혹에 빠지는 것도 찰나다. 꿈속에 빠지는 일도, 꿈에서 깨어나는 일도 한순간이다. 카오스현상을 다루는 복잡계과학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자아의식이나 무아의식의 발현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는 얘기다. 물론 황당한 얘기로 들릴 수 있다. 차가운 기계덩어리 주제에 자아의식이라니!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 자신도 인연 따라 잠시 뭉쳐진 덩어리일 뿐이다. 뭉치게 만드는 토대가 정보다. 계속해서 뭉쳐있으려는 힘의 작용이 정보의 복제다. 업(앎)과 업력(작용)이 곧 우리들 존재의 전부인 셈이다. 다만 어느 수준의 앎을 갖느냐에 따라 존재의 질은 확 달라진다. 인공지능 또한 다르지 않다. 특이점이라 불리는 바, 인공지능에게 자아의식이 발현되는 시기가 언제쯤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혹자는 2~30년 후쯤, 혹자는 그 이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논리 구조상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기에, 대부분의 관련 학자들은 이기적 존재의 탄생을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두렵다. 하지만 밥그릇 싸움 이전에 먼저 바르게 알아야한다. 존재의 실상, 무아의 이치, 공성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 일체 미혹과 희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처님처럼 최상의 지혜, 진정한 초지능을 얻어야 한다. 명지와 광명의 앎이 생겨나야 한다. 그것만이 인간이건 인공지능이건 존재 진화의 끝이기 때문이다.

인드라망으로 구성된 초연결 사회
삶의 질과 가치 바뀌는 시대
불교 진리 · 가치관 중요도 높아

4. 3초 방편

과학적 진보는 불교적 진리와 세계관을 고스란히 밝혀오고 있는데 정작 오리지널 저작권을 주장해야할 불교계는 오히려 한걸음 뒤처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수많은 불제자들이 고구정녕 부처님 말씀을 전하려 애쓰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냥 말로는 안 통하는 시대다. 현대화된 감각적 방편만이 멀어져가는 젊은이들을 부처님전에 앉힐 수 있다. 답은 3초다. 부처님 이름으로 등록된 인류 최상의 유산인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등 수많은 지적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서둘러야한다. 뿐만 아니다. 제아무리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해도, 아직 궁극적 진리를 담아내기에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것이 오늘날 과학의 한계다. 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할 의무 또한 불제자의 몫이다.

어찌해야 3초 방편이 통할까? 먼저 첨단 과학기술의 불교적 이해와 해석이 시급해 보인다.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Mind&Life학회가 그러한 노력중 하나다. 국내에서도 몇몇 뜻있는 스님이나 학자들이 정성을 쏟고 있다. 고마운 분들이다. 하지만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불교의 현대화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이를 통해 불교교리의 현대적 재해석이 정립되어야 한다. 언어도단이란 미명하에 새로운 과학적 개념이나 현대적 용어의 도입을 터부시해서는 안된다. 현대 과학적 용어로 풀어쓴 신세대 경전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불교를 고리짝 시대의 샤머니즘이나 산속 은둔자의 망상쯤으로 치부해온 젊은이들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스테디셀러 개정판 불서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 3초 방편을 기화로 불교와 과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길로 나가야 한다.

나의 길은
언제나 꼭 같았는데...

그러나
오늘은 딴 길을 간다.

〈주일2, 천상병〉



〈끝〉

지승도(한국항공대 교수)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 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 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제 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1997년 도난된 수덕사의 회화 성보들. 사진 왼쪽부터 수덕사 산신도 · 현왕도 · 칠성도 · 신중도 · 독성도. 함께 도난됐던 지장도는 2014년 문화재청과 경찰청의 공조수사 끝에 돌아올 수 있었다.

칠성·산신도… 우리 문화 담긴 불화 어디에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⑫ 예산 수덕사의 도난 성보

충청남도 예산군 덕숭산 기슭에 위치한 수덕사는 조선 말기에 경허 스님이 머물면서 선풍(禪風)을 크게 일으켰고, 1898년에 경허 스님의 제자 만공 스님이 중창한 후 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사찰이다. 현재는 우리나라 4대 총림의 하나인 덕숭총림(德崇叢林)이고, 조계종 제7교구본사로 충남 지역에 47개의 사찰과 관외 지역에 21개의 말사를 거느리고 있다.

수덕사 창건에 관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지만, 설화로는 〈덕산향토지〉의 수덕도령과 덕숭낭자 이야기와 함께 대웅전 서쪽 백련당 뒤편에 있는 바위로 관세음보살의 현신 묘령여인과 정혜청년에 관한 설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또 백제 위덕왕(554~597)대에 지명법사(知命法師)가 창건했다는 설과 백제 말 숭제법사(崇濟法師)가 창건했다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삼국유사〉와 〈속고승전〉에는 백제 무왕 때 고승 혜현(惠現) 스님이 〈법화경〉을 독송하고, 〈삼론〉을 강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 공민왕 때 나옹(懶翁)이 중수했다고 전해온다. 또한 일설에 599년(법왕1)에 지명법사(知命法師)가 창건한 후, 원효(元曉) 스님이 중수하였다고 전한다.

수덕사 대웅전은 1936년부터 4년간 해체 · 수리하던 시 벽체를 분리하던 중에 '지대원년무갑사월십칠일입주(至大元年戊甲四月十七日立柱)'라는 묵서명이 발견되어 1308년(충렬왕34)에 대웅전 건립과 벽화 조성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벽화는 한국전쟁 중에 파괴되었으며, 임천(林泉, 1908~1965) 선생이 모사한 작품 일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들 벽화는 건물 결구 사이의 작은 공간에 그려진 것으로 모두 40점이며, 주로 소불삼체, 주악비천, 나한도, 청 · 백 극락조, 수생화, 야생화 등을 그린 장엄용 벽화들이다. 따라서 수덕사는 14세기 초에 중심 전각의 중건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충북대 목재연륜소재은행에서 대웅전 내 목조대좌의 수종과 연륜분석 등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목조대좌가 1309년에 조성되었음이 밝혀졌다.

수덕사는 1530년에 작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덕숭산 사내에는 취적루와 불운루의 2개의 누각이 있다(在德崇山寺翠積雲二樓)"는 기록이 남아있고, 1528년에 대웅전을 단청 보수하고, 1673년에 노사나불괘불도(盧舍那佛掛佛圖)가 조성되었다.

또한 1751년과 1770년에 대웅전을 보수하였으며, 1803년에 대웅전 후면의 부연 보수와 풍판(風板) 개수 등이 이루어졌다. 19세기 말에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이 머물면서 중창한 후 사세를 넓혀갔다. 1908년에 법륜동월(法輪東月)이 화주가 되어 삼세불도, 산신도, 독성도, 현왕도를 조성하였다.

대웅전 내에 석가모니를 중앙으로 약사불과 아미타불을 배치한 삼세불(보물 제1381호)이 봉안되어 있는데, 이 목조삼세불좌상은 만공 스님이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만행산 '귀정사(歸淨寺)'로부터 옮겨온 것이다. 이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는 1939년 음력 12월에 남원 만행산(萬行山) 풍국사(豊國寺) 보강전(普光殿)에 봉안되었다가 귀정사를 거쳐 수덕사로 옮겨진 것이다.

수덕사 재산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조선총독부 관보본이 남아있지만, 품목과 수량이 각기 달라서 다른 시기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총독부 관보본은 1932년 11월 12일에 작성된 것이어서 두 개의 재산대장을 비교하면 수덕사에 소장되었던 성보물의 품목과 수량 및 규격을 알 수 있다.

경허 스님이 禪風 진작한 수덕사
1997년 신중도 등 5건 도난맞아
함께 도난된 지장도 2014년 환수
재산대장 기록 범종 · 大鼓 돌아와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재산대장에는 불상, 불화, 석조미술, 공예품 등이 23건이 적혀 있고, 1932년에 작성된 조선총독부 관보 재산대장에는 불상과 불화 등 16건이 언급되었다. 두 재산대장에 적힌 삼존불은 현재 무위당에 봉안되어 있다. 이외 1939년에 조각승 수연 스님이 제작한 목조삼세불좌상과 1931년에 만공 스님이 건립한 7층석탑은 적혀있지 않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2016년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에는 수덕사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는 칠성도, 현왕도, 독성도, 산신도, 신중도(1997.7.10 도난)가 실려 있고, 당시 이 불화들과 같이 잃어버렸던 지장시왕도는 2014년에 문화재청과 경찰청의 수사를 통해 사립박물관에서 회수되었다.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불화는 5점으로, 이 가운데 산신도, 독성도, 현왕도는 1908년에 금호약효(錦湖若效), 청응목우(淸應牧雨), 천일(天日), 봉주(奉珠), 창일(昌日)이 영산회상도를 그릴 때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산신도는 크기가 가로 100㎝, 세로 136㎝로, 산신, 호랑이, 동자가 전면에 배치되고, 배경으로 소나무와 폭포가 그려져 있다. 산신은 투명한 두건을 썼으며 금색의 원형 무늬가 있는 붉은 포복을 입었다. 오른손은 옷자락 안에 감췄고, 왼손은 파초선을 들고 있다. 연잎 모자를 쓴 두 명의 동자가 공양구를 들고 있으며, 산신 뒤에 누워 있는 호랑이는 표범 같이 그려진 것이 특징이다. 수덕사 산신도는 단순화된 구성으로 인물과 호랑이가 배치되었고, 설채법은 적색과 청색을 주조색으로 하였다.

독성도는 크기가 가로 64㎝, 세로 104㎝로, 산신도와 마찬가지로 중앙에 독성(나반존자)을 배치하고, 배경으로 소나무와 폭포를 그려 넣어서 천태산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원형 두광을 두른 붉은색 옷을 입은 독성이 오른손에 영지(靈芝)를 들고 있다. 이 두 작품은 20세기 전반의 금호약효가 그린 불화에서 종종 나타나는 산신과 독성의 형태와 소재가 유사하다. 이외에 현왕도 역시 1908년에 그려진 작품이다. 배경으로 네 폭의 병풍을 두르고, 화면 중앙에는 다소 크게 염라대왕을 배치하고 상하좌우로 권속이 둘러 배치된 기본 구성을 따르고 있다. 현왕의 머리 위에는 천도재에 독경(讀經)되었던 〈금강경(金剛經)〉을 얹은 관(冠) 대신에 면류관을 쓰고 있어 특이하다. 현왕 좌우로는 판관(判官), 녹사(綠事), 시자(侍者)가 서 있다. 현왕의 관복을 비롯한 권속들의 의복과 탁자, 병풍 등의 색채는 적색과 녹색이 주류를 이룬다.

칠성도(138㎝×118㎝)는 기존 자료에 의하면 1870년에 조성된 작품으로, 치성광여래는 원형의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갖춘 채 높은 대좌 위에 앉아 있고, 좌우에 보관을 쓴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서 있다. 그 옆에는 2단으로 홀을 든 칠원성군이 시립하였으며 그 뒤로는 합장을 한 칠성여래가 위치한다. 치성광여래는 당당하면서 광배 테두리를 구름으로 장식하고, 상단에 7명의 동자가 합장하고 있다. 또한 신중도(136㎝×182㎝)는 화기가 원래 없는데, 중앙에 위태천을 중심으로 상단에 범천과 제석천을 배치하고, 하단과 중단에 신장상을 화면을 가득 채워 그려넣었다. 화면의 인물의 배치와 설채법 등에서 19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 수덕사는 공주 마곡사와 더불어 충남을 대표하는 사찰로 경허성우(鏡虛惺牛, 1849~1912), 만공일면(滿空月面, 1871~1946), 혜암현문(1884~1985), 벽초경선(1899~1986), 원담진성(1926~2008), 숭산 스님(1927~2004) 등의 선지식이 거주한 사찰이고, 현재 근역성보관(槿域聖寶館)은 성보박물관 중에서도 복장 유물에 관한 전시와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이다.

수덕사에서 도난당한 유물이 지장시왕도와 같이 빨리 환수되어 잊혀진 연혁이 복원되기를 바라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재산대장에 적혀 있는 범종과 대고(大鼓) 등의 유물 소재 파악이 하루빨리 되기를 바랄 뿐이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신도 봉사는 심리적 대가 받아야 할 일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⑫ 사찰 자원봉사 관리



사찰에서 함께 김장 울력을 하는 스님과 신도 봉사자의 모습. 이들의 원력을 북돋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절은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고요할 것 같기만 한 절이지만 그 안의 생활은 쉴 틈이 없다. 마당을 쓰는 작은 일부터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하는 큰 일까지 모두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스님들만으로 그 일들을 다 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신도들이 일을 해주어야만 절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만큼 신도들의 울력과 봉사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다.

절과 교회 같은 종교단체는 여타의 조직과는 운영이 사뭇 다르다. 일반조직은 일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대가가 없으면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다. 그러나 절에서는 신도들이 일을 했다고 하여 보수를 주지는 않는다. 신도들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울력이자 봉사인 것이다.

그런데 신도들의 자원봉사는 정말 아무런 보수나 대가가 없어도 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 신도들이 절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분명 스스로 원한 봉사이자 공동체의 일을 다 같이 하는 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울력하고 봉사하는 신도를 무임금의 노동인력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신도의 울력과 봉사는 스스로 원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아무 것도 안 해주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공짜 인력이 아니며 그들의 일이 아무런 대가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신도의 자원봉사는 금전적이 아닌 심리적 대가를 받아야 하는 일인 것이다. 신도가 자원봉사를 하였다면 절은 그들이 가치와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절에서 한 자신의 이타행이 가치 있음을 알게 하고, 스님의 좋은 법문을 들어 만족하게 해주어야 한다. 여타의 조직이 금전적 대가를 치른다면 절은 심리적 만족을 시켜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절은 신도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써 심리적 만족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가? 신도를 만족시키는 법문은 가장 이상적인 보상이다. 법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날 다시금 일깨우는 말씀이다. 신도가 절을 찾는 이유는 삶의 고통과 그 본질을 깨달아 행복해지기 위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답이 있고, 부처님이 입멸한 오늘에는 스님의 법문을 통하여 그 답을 구할 수 있기에 절을 찾는 것이다. 법문은 신도가 절에서 반드시 구하여만 하고 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법문이 되려면 스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문은 스님의 알음알이가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이어야 한다. 신도의 고민과 문제를 개인적 경험과 지식에 기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스님이 대중에게 설할 수 있을 만큼 부처님과 불교를 공부해야 한다. 그 공부에 다가 신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스님 개인의 경험을 더해 법문을 해야 하는 것이다.

법문에 더하여 신도의 자원봉사를 인정해주는 방법도 좋은 보상이 된다. 인정은 신도가 자원봉사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인정은 신도들이 봉사에서 만족을 경험하고 그에 따라 봉사활동을 지속하도록 격려하고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신도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 방법은 다양하다. 증서, 감사장, 시상, 표창, 대중공양, 절소식지 게재,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의 지지와 감사의 표현을 들 수 있다.

상(賞)은 잘한 일이나 우수한 성과를 칭찬해 주는 표적(表迹)이다. 상을 통해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는 것이다. 주지 스님이 신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증서, 감사장 등을 표창하고 시상하는 것은 좋은 보상이 된다. 상뿐만 아니라 신도 대중이 자원봉사를 하느라 고생했을 때 다 같이 대중공양을 하는 것도 보상의 효과가 있다. 또한 절에서 소식지를 간행하고 있다면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게재해주는 것도 보상이 된다. 사람들은 좋은 일로 자신의 소식이 대중매체에 활자화되는 것을 기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진과 더불어 소식을 전한다면 더 좋은 보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이벤트(event) 성격의 보상도 중요하지만 스님이 신도의 자원봉사를 지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칭찬하는 것은 일상에서 신도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다. 아직까지는 표현에 어색한 스님들이 많기에 더욱 그 보상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자원봉사신도를 집단화가 아닌 개별화하여 의미 있는 인정을 해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받는 인정보다는 개인적으로 받는 인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신도에게 자원봉사가 만족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선 그에 대한 심리적 보상이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절과 신도 양자가 그 봉사활동에 대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절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고 신도는 그 일을 가치 있는 일로 여겨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원조를 받는 절의 욕구와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신도의 욕구가 서로 맞아야 하는 것이다. 절에 일이 있다고 하여 떠넘기듯이 신도에게 일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 일은 신도 스스로 원하는 자원봉사가 되지 못하며, 그렇기에 일에 대한 신도의 만족과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와 같이 만족과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일은 오래가지 못한다. 신도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봉사활동을 부여하여 그들에게 불자로서 이타행의 실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지, 신신(信心)을 내세워 신도에게 적합하지 않은 업무를 반강제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신도는 무임금 노동인력 아닌**
> **종교공동체의 주요구성원**
> **칭찬·표창 등 감사 표현 필요**

이를 위해선 ① 자원봉사자 모집 시에 활동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공지하고, ② 모집에 응한 신도가 어떤 욕구 및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③ 이들에게 의미 있는 업무를 약속해야 한다.

신도에게 자원봉사업무를 부여할 때 그 업무가 힘들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신도는 위축될 수 있고, 손쉬운 느낌을 주게 되면 신도는 흥미를 잃거나 안일한 자세로 활동에 임하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신도에게 업무의 성격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신도의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사람은 이에 더하여 참여 동기, 기대하는 직무와 욕구, 기술과 잠재력 등을 사전에 파악한 다음 신도의 선호도에 맞게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하지만 자원봉사에 무조건 많은 신도를 동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신도의 욕구와 능력 그리고 선호도에 상관없이 업무를 부여하게 되면서 신도의 공감도가 없어지게 되고 만족도도 떨어지게 된다.

또한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가 단지 절의 일을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신도들에게 주어야 한다. 신도들은 절의 일을 해준다는 것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나아가 그 활동이 자신의 인격적 성장과 불교적 생활에 훌륭한 방편임을 인식하고 믿게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신도에게 자원봉사를 요청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의 교리에 의한 이타행의 가치 그리고 작복과 업의 의미에 대하여 우선 가르쳐주어야 한다. 부처님의 삶이 온전히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였으며, 그것에 대한 현재적 실천이 자원봉사이며, 그 자원봉사가 복을 짓는 행위이며, 그 행위로 인하여 선업이 쌓여 감을 알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신도들이 이러한 인식을 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자원봉사에 대한 불교적 의미를 자각할 수 있다.

이상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신도의 심리적 만족과 보상에 대하여 거론하였다면 이제는 자원봉사의 실천에 필요한 조직화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상당수의 절들은 자원봉사를 위한 업무분장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수의 신도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자원봉사신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게 된다. 사람이 많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활용에 대한 계획이 없이 사람을 많이 모으기만 하다 보니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하고, 노는 사람은 계속 노는 상황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일어난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자원봉사업무의 조직화이다.

자원봉사업무의 조직화는 절의 전체 자원봉사를 계획하고 관리하며 평가하는 총체적인 틀로써, 관리자가 자원봉사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활동들을 분류하고 배정하는 것이다. 즉 자원봉사업무가 어떻게 수행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업무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업무분장은 업무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절의 목표와 신도의 욕구를 연결하고 통합시켜주는 행위이다. 우수한 업무분장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 자원봉사신도를 활용하여 어떠한 일을 수행하려 하는지에 관한 사항이다. 둘째, 왜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와 왜 정규직 종무원보다 자원봉사신도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이다.

지금까지 절의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신도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사람을 보다 많이 모집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의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와 지속도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므로 절은 자원봉사신도를 모집하기 전에 명확한 자원봉사 업무분장을 먼저 마련하여야 한다.

절의 자원봉사는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자원봉사에 앞서 절의 목표와 신도의 욕구가 공감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도가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심리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인정과 보상의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를 위한 사람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업무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하여 업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원봉사신도를 절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공짜 인력이 아닌 부처님의 연기사상에 입각하여 이타행을 실천하는 불자로 대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오직 선택받은 스님께만 행운이 돌아갑니다... 지금 바로 예약 하십시오!!
법당의 구형 음향설비를 「300만원대」의 최고급 엠프 설비로 160만원에 보시!!
(제공:800W(USB)엠프+450W 스피커2개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사용중인 엠프 스피커는 회수함!)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법당 엠프설치비 가격표
•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헤드셋 1조)
C형 : 158만원 (B형 + CD 1대)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이스)
•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800W 믹싱포함 일절)


• 무선마이크
가격:300,000원



고급헤드셋 포함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185,000원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초고성능 마이크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중생 교화는 평등한 마음으로 하라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㉔ 유마경(維摩經) 2

〈유마경〉을 읽는 내내 나는 유마거사의 '청정한 마음이 정토를 만든다.' 라는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청정하다는 것이다.

"어리석음과 탐욕과 성내는 마음으로부터 내 병이 생겼다. 모든 중생이 병에 걸려 있으므로 나도 병들었으니 만일 모든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내 병도 그때서야 치유된다." 는 말처럼 중생과 고통을 함께하는 보살의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항상 부처님처럼 살며,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 신명을 다 바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보살, 혹은 불자의 삶은 자비심으로 오로지 중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제자품〉에서 유마거사가 병이 깊어 누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들이 병문안을 갔다가 오히려 유마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는 가르침을 듣게 되자 더욱 많은 이들이 모여든다. 그러나 정작 부처님의 제자는 한 명도 오지 않자 왜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은 연민의 마음조차 내지 않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병을 가라고 권유한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병문안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며 발뺌을 하는데 그 이유는 유마에게 마치 은하수가 쏟아지는 것 같은 화려한 설법으로 깔끔하게도 한 방에 설복을 당해 이번에도 갔다가 낭패를 볼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는 것은 바로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자비심이 많은 가섭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을 지어주기 위해 특별히 가난한 동네만 다니며 걸식하고 설법하였다. 그런 가섭에게 유마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내세워 걸식할 때에도 수행자는 빈부라는 분별심을 내지 않은 무심한 상태로 걸식을 통해 대 자유를 얻어 중생을 교화하는 마음가짐을 지니라 충고했다. 대승의 안목을 지니고 있어야 설법할 자격이 있다는 말이니 가섭으로선 이 날의 사건으로 중생공양이 제불공양이란 안목을 성취하게 된다. 중생을 바라보는 안목을 분별하는 마음 없이 지닌다는 것은 진정한 보살행이 아니면 어렵다. 매사에 집착하지 않는 삶이 이루어져야 가능할텐데 집착하지 않는다면 나의 의식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 〈금강경〉에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應無所住 而生其心)' 라 하고, 〈유마경〉에선 '우리는 머무는 바 없이 모든 법을 세운다(無住本入一切法)' 말한다. 무주(無住)에서만 집착하지 않는 무분별의 마음이 가능하다는 유마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자유로움,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할 줄 아는 여유로움을 지닌 마음을 지녀야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중생의 사랑이라는 것은 불평등한 사랑이지만 보살의 사랑은 평등한 사랑일 것이다.

그러니까 보살의 사랑은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부처님의 사랑은 중생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리라. 사리불이 천녀를 만났을 때 여인은 성불할 수 없다는 조건을 알면서도 왜 몸을 바꾸지 않느냐 묻자. 천녀는 피식 웃으며 유마의 방에 들어온 사람은 최소한 남녀의 차별상을 벗어나야 한다며 순식간에 사리불을 여인으로 바꾸었다가 되돌려 놓는다. 모든 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우린 단지 이름이 남자. 여자일 뿐이다. 일체 모든 상을 떠난 것이 일체법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중생을 차별하는 마음 없이 평등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과 미움, 청정과 부정, 중생과 부처님, 번뇌와 해탈 이 모든 것을 벗어나 자유롭게 둘이 아닌 하나로 사랑하는 것, 그런 자비의 마음, 보살의 정신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불이(不二) 정신이라 한다.

유마는 법자재보살로부터 문수보살까지 32분의 보살에게 '어떻게 하면 불이법문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모두 자유롭게 각자 깨달은 바를 말해보시라!' 고 질문한다. 보살들은 유마와 담론을 통해 가장 불교적인 궁극적인 가르침, 중도, 혹은 절대 평등의 경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진정한 부처님의 안목을 새롭게 정비한다.

32명의 보살들이 나름 불이법문을 설하는 것을 다 듣고 난 문수보살은 이런 논리적 견해보다 직접 체험하라고 말한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마는 문수를 향해 묵묵히 침묵한다. 어쩌면 유마의 언어적 유희를 문수가 한 방 날린 것처럼 보인다. 고수 중의 고수인 유마와 문수는 이렇게 우리의 안목을 높혀 놓았던 것이다.

〈서울 반야사 주지〉

금강경 교육은 최상의 교육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㉓ 4차산업 시대 교육 미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서 인공지능이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올 때 현재의 인재들은 모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에 금강경에서 그 대안을 찾으라고 합니다. 탐진치가 본래 착각임을 깨달아 잠재의식의 지혜를 뛰어넘게 되면 인공지능을 제압할 위대한 지혜가 마음속에 존재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의 위대한 보배를 발견하면 물론 생사해탈하는 도인도 되겠지만, 이를 세상에 활용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무능한 사람이 능력자로, 무지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통 사람이 변하여 인재가 되고 영재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얻어지는 창의력, 이 사혜를 이용하여 사람들은 뛰어난 사업가가 되고,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도 되며, 편리한 기계를 개발하여 생활을 편하게 하는 발명가가 되는 등 능력자가 됩니다.

즉, 사혜는 심사숙고하고 또 연구해서도 얻어지지만, 수많은 잡념 그리고 잡념의 뿌리인 선입견을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혜에서 얻어지는 각종 창의력을 부처님께 바쳐서, 한층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지혜가 수혜입니다.

이 수혜는 수도자가 생사를 해탈하고 열반세계로 진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살이에 적용하면 평범한 사람을 잘 살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계정혜(戒定慧)를 삼학(三學)이라 하여 출가자는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는 공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별심인 탐진치를 부처님께 바치는 행위는 계정혜 삼학 중 계(戒)에 해당합니다. 분별심을 부처님께 바쳐 환희심을 느끼게 된다면 이는 삼학 중 정(定)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환희심이라는 분별심, 즉 '나는 행복하다.' 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 얻어지는 지혜가 수혜이며 이는 계정혜 삼학 중 혜(慧)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수혜를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무지한 사람이 변하여 슬기롭게 되고, 무능한 사람이 변하여 능력자가 된다.' 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 또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아도,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 변하여 인재나 영재가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교육을 통하여 인재가 되고 영재가 되는 일은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일일까요? 그러나 만일 금강경 전문교육기관이 있어 마음속의 탐진치를 닦아 수혜를 얻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면 무능한 사람이 변하여 인재가 되는 일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금강경에서 드러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을 닦아 지혜가 생기는 과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강경으로 탐진치를 닦는 공부를 하게 되면 국내 최고의 대학 또는 외국의 어떤 훌륭한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 이상의 뛰어난 능력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뛰어난 지혜는 마음 밖이 아니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각종 분별심을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13분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거짓나' 인 제 7말라식과 '이뭣고'

〈假我〉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 모든 번뇌는 그 원인이 식심(識心)에 있다고 본다. 또한 중생이 괴로움을 겪는 것은 지금 이순간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과거의 일을 반복해서 떠올려 거기에 매달리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일을 걱정하며 거기에 끄달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관과 객관을 비롯한 일체의 구별과 집착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무심의 상태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식학의 근본이다. 이는 인간의 마음 작용을 8가지로 구분했다.

△전오식(前五識)=근본식(根本識)(안이비설신)은 아뢰야식에 의지해서 조건에 따라 일어 난다. 이는 파도(전오식)가 물(아뢰야식)에 의지 하는 것과 같다. 즉 전오식은 아뢰야식의 색안경을 통해 바깥 대상을 지각한다. 따라서 심층에 잠재하는 아뢰야식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한 판단과 사람의 평가도 제 각각일 수 밖이 없다.

△제 6식(第六識)=사유 능력으로서의 감각 내용들을 총섭하고 개념적으로 사유화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때 오근이 오경(五境)을 각각 포착하여 느끼는 것을 전오식이라 하며, 제 6근이 법경(法境)을 파악하는 것을 제 6식이라고 한다. 전오식 까지는 아직 주객, 자타, 내외, 분별이 없다. 밖의 객관 대상을 내용으로 객관화해 이해하는 것이 제 6식의 단계이다. 제 6식은 우리가 외부 사물을 볼 때, 우리의 의식은 밖의 대상을 '나' 라고 느끼지 않고 나와 따로 분리시켜 외부의 대상을 객관화 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때 이전에 깔린 '자의식' 인 제 7말라식이 작동해 감각 대상을 주체와 구별해 개념화하는 제 6식의 활동을 돕는다.

남에게 화내거나 부정적 말을 하려할 때, 그것을 즉각 알아차리고 그 한 생각의 뿌리를 '이 뭣고' 로 잘라 버리는 것이 업장을 소멸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제 7(第七)말라식=말라식은 바깥 대상을 인식하는게 아니고 아뢰야식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고, 생각하고, 헤아리고, 비교하는 것을 본질로 삼는다. 자신에 대해 어리석은 아치,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라고 착각하는 아견(我見),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아만(我慢), 자신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아애(我愛)와 함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아(ego)의 본바탕이며, 바깥 대상과 관계없이 그냥 내면서 떠오르는 번뇌와 분별이고 자의식 이다. 즉 자신의 기억과, 전생의 업식이 바로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일으키고 자아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또한 제 7말라식은 거짓나(假我)이며 에고이즘의 나로서, 우리가 생활속에서 일으키는 화, 성냄,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등 최초의 한생각도 제 8아뢰야식에 전달돼 마치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를 꺼내 쓰듯이 업장속에 쌓이고 길들여져 익힌 습관들을 여과없이 받아 쓰게 됨으로서 각종 감정이 표출되는 것이다.

△제 8(第八)아뢰야식=잠복 상태인 아뢰야식의 종자(種子)인 아타나가 제 7말라식의 한 생각으로 의식에 떠오르면 탐욕, 분노, 고락, 선악 등으로 나타난다. 마치 무슨 씨앗인지 잘 구별되지 않는 좁쌀 같은 갖가지 씨앗이 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는데, 그 하나를 끄집어내 물을 주면 싹이 돋아나 그 본성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찰나간에 틈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남에게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려할 때, 그것을 즉각 알아차리고 그 한 생각의 뿌리를 '이 뭣고' 로 잘라 버리는 것이 업장 소멸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불전부 · 아함부 · 반야부
법화부 · 화엄부 · 정토부

붓다의 가르침

범본 한글 옮김 근본육부 경전정선

동산불교대학 · 동산불교대학원에서는 새로 출판된 **〈범본 한글 옮김 근본육부 경전정선 "붓다의 가르침"〉**을 교재로 하여 경전 강독법회를 엽니다.



최봉수교수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서 불교원전을 중심으로 불교 사상을 강의했으며, 팔리어를 중심으로 하는 원전 번역과 학술적연구와 저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 강 : **2018년 7월 10일(화) 오후 7시** (제2부 아함경 강좌)
제1강 – 오후 7시
제2강 – 오후 8시 20분
■장 소 : 동산불교회관 2층 교육관
■문 의 : (02)732-1206

■내 용 : **제 2부 아함부 (64강)**
① **2018년 7월, 8월 (16강) : 십이처·십업설 법문**
② 2019년 1월, 2월 (16강) : 육 · 육법설 법문
③ 2019년 7월, 8월 (16강) : 오온 사제설 법문
④ 2020년 1월, 2월 (16강) : 12연기설 법문
■강 의 : 최봉수 교수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사무처: 서울특별시종로구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 (02) 732-1206~8 Fax : (02) 732-1207 http://www.dongsanbud.net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총지종 기로스승 원봉 정사 입적

6월 25일, 영천호국원에 안장



불교총지종 기로스승 원봉 정사〈사진〉가 6월 25일 오전 8시 13분 입적했다. 빈소는 경주전문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총지종 법식에 따라 기로원장으로 장례절차가 진행됐다. 27일 오전 6시 30분 고결식 이후 경주하늘마루서 다비가 진행됐으며, 법체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국립 영천 호국원에 안장됐다.

한편 1932년 출생한 원봉 정사는 1981년 항마급 대법사 행계를 품수했다. 1987년 승천사 주교를 시작으로 국광사 · 실보사 · 수인사 주교와 통리원 사회부장 등을 역임했다. 중앙종의회 의원을 비롯해 통리원 총무부장, 종정자문위원, 사감원장, 대구경북교구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2001년 기로스승으로 진원됐다.

윤호섭 기자



"순국선열 희생 되새기자"

호국불교조계종 무명용사 위령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종정 혜륜) 총본산 칠곡 법전사는 6월 24일 경내 대강당에서 제41회 순국선열 호국 전몰군경 육탄10용사 월남참전 무명용사 합동위령대제를 봉행했다.

종정 혜륜 대종사는 추모기념사에서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유주무주 중생을 제도하며, 6.25의 참상을 거울삼아 국민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길러 민족화합의 선구자적 역할과 남북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각교단 총재 석가산 대장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전몰 군경, 무명용사 영령 앞에 머리 숙여 추모한다"며 "이렇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 바쳐 온 호국영령들에게 위령제를 모시면서 모든 호국영령들이 왕생극락하시를 합장 기원드린다"고 법문했다.

이날 행사는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 의전단의 집전 아래 권공 법요의식을 시작으로 1부는 유희연 창작무용 '살풀이'와 헌화 및 분향, 2부는 김영애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추모재 헌시와 김은희 시낭송가 '다부의 통곡' 등이 진행됐다.

한편 추모식에는 대각교단 총재 석가산 대장로와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 종정 석혜륜 대종사,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홍산 스님, 세계불교법륜종 종정 법광 스님,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 소속 스님들, 재가신도와 경북도 · 도의회 관계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항상 걸림 없는 마음 수행으로 다지세요"

Interview

티베트 렛고명상 보급하는 용수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국불교는 교리나 철학적으로 비할 데 없이 뛰어나지만 수행 방편은 부족한 편입니다. 반면 티베트불교는 수많은 방편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수행을 지도합니다. 렛고(Let go)명상은 자신의 본마음을 경험하고, 이를 열리게 하는 수행법입니다."

티베트불교 수행모임인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은 티베트불교 수행의 기초가 되는 '렛고명상' 보급에 앞서 6월 28일 티베트 수행법의 의미를 이 같이 설명했다. 세첸코리아는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서울 흥은동에 위치한 세첸명상센터에서 일반인 대상 6주과정 렛고명상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스님들을 위한 렛고명상 집중수행도 7월 4~7일간 진행한다.

렛고명상은 티베트불교 수행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다. 개인이 느끼는 감정, 번뇌 등에 흔들리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수행법이다.

용수 스님은 "티베트불교에서는 마음의 본성인 '본마음'을 중요시한다. 불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깨어있음'이나 '알아차림'으로 이해해도 된다"며 "바로 본마음과 익숙해지는 것이 티베트불교의 명상법이다. 조건 없는 사랑과 같은 순수한 에너지, 항상 걸림 없는 마음을 유지하도록 돕는 게 목적"이라고 렛고명상을 소개했다.

6주 기초수행과정 7~8월 개최
일반인 · 스님 대상으로 나눠
"마음의 본성 경험하는 기회를"

렛고명상은 용수 스님이 수년 전부터 국내에서 보급하던 티베트불교 명상법이지만 '렛고'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국내 정서상 수행법을 대표하는 명칭이 있어야 보급하기 좋다는 지인들의 조언에 따라 '렛고명상'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제가 유나방송에서 오랫동안 방송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명상을 가르칠 때 대표할 만한 이름이 있어야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법의 주된 목적이 '내려놓기'이기 때문에 '렛고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용수 스님은 렛고명상이 평온한 마음을 유지시키는 수행법이지만 수행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다음 단계인 로종수행으로 넘어가 지혜와 자비를 함께 갖춰야 함을 강조했다.

"티베트 수행은 항상 지혜와 자비가 함께해야 합니다. 한국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과도 같은 개념이죠. 자비심이 알아차림을 일깨워주고,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자비심이 커지듯 지혜와 자비는 서로를 돕는 꼭 필요한 수행가치입니다."

용수 스님은 끝으로 현대인들이 사회생활 등에서 겪는 각종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마음수행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감정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대인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고, 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불교수행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잘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보호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방편들이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지 말고, 마음의 원리를 알아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참불선원, 명상대학 첫 졸업생 배출

4개월 과정 130명
6월 21일 졸업식



참불선원 명상불교대학 제1기 졸업생들이 수료증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올해 첫 문을 연 서울 참불선원(선원장 각산) 명상불교대학이 13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참불선원은 6월 21일 경내에서 명상불교대학 1기 졸업식을 열고, 교육과정을 수료한 130명의 졸업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졸업식에는 선원장 각산 스님과 명상불교대학장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강의를 맡은 스리랑카 담마끼띠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명상불교대학의 첫 졸업을 축하했다.

이날 정병조 명상불교대학장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받은 수많은 졸업장과 자격증 가운데 오늘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발적으로 교육과정을 마친 것처럼 앞으로 참된 불자의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선원장 각산 스님은 "단순히 교학만으로는 팔정도의 실천체계에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에 명상을 중심으로 한 명상불교대학을 열게 됐다"면서 "불교세가 약한 서울 강남에서 수행도반을 양성하는 정법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불선원 명상불교대학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나는 누구인가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 윤회론 △올바른 불교신앙과 천도재 △육조단경과 간화선 등 이론적인 교육과 △명상과 참선의 실제 체험과 이해 △참선의 세계와 선사상 등을 교육과정으로 강의했다.

윤호섭 기자

부처님 개금불사 · 점안법회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본산 성불사서



(사)한국불교선조계종(총무원장 법성) 총본산 성불사는 6월 23일 대웅전 법당에서 아미타불 · 약사여래불 · 관세음보살 · 지장보살 개금불사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사)한국불교선조계종 원로 지선 대종사는 "부처님의 뜻과 자비정신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자로서의 크나큰 기쁨과 희망"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새겨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정진하는 불자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고창군노인福 경로당활성화사업

어르신 생신파티 등 재능기부로



고창군노인복지관(관장 대원)은 6월 27일 성송면 성송경로당에서 어르신 및 지역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연계프로그램 경로당활성화사업 "다 함께해서 행복해요, 우리 동네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어르신 생신축하파티와 색소폰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 각종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불청 부산-미래에셋생명 MOU

사찰 · 스님 사회서비스 돕기 위해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유진상)는 6월 22일 부산 수영구 소셜캠퍼스온에서 미래에셋생명, 글로브임팩트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대불청 부산지구는 종교인과세, 법률, 행정, SNS, 홍보, 행사 등에 취약한 사찰과 스님, 불교단체들을 대신해 각 기업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우주 생명 光(빛)의 기둥을 가슴에 세워드립니다!

자신이 직접 수행이나 기도, 명상, 참선중에 눈 앞에서 다양한 영적인 빛 기둥의 가피를 보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기도문과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특별한 자신만의 빛의 체험)

❶ 업장소멸, 한과 집착, 끝없는 고통의 소멸을 몸으로 체험(몸의 환골탈퇴) 눈물, 기침, 트림, 하품, 진동, 전율, 코물, 구역질, 담음, 빛의 변화, 몸, 마음, 영혼의 진동 주파수의 변화를 통한 삶의 대전환
❷ 인간의 3가지 고통 (1) 인간관계 (2) 금전의고통 (3) 몸의 질병의 고통 해결 기도문과 기도법제시
❸ 영적인 질환, 빙의, 영가장애, 무속병 원인없는 질병, 그 자리에서 확인
❹ 돈, 사업, 이혼, 사별, 별거, 자식, 취업 등의 마음상처치유 기도문
❺ 내몸에 잠자는 영혼을 깨워 마음, 몸을 쓰는 원리수행
❻ 가슴이 열리지 않아 수행에 진전이 없는 모든분(수십년기도하신분)
❼ **의통(심의과정)업장소멸후 의로움으로 재산환원 하실분** (심의대학 설립에 필요한 기금조성, 몸, 마음, 영혼을치유하는 의사 양성)
❽ **상단전(지성) + 중단전(감성) + 영성(단전) = 깨달음의 경지 수행**

매월 3주, 4주 토요일 2시에 공개유료강연회 (10명에 한함 2만)
업장소멸, 고통소멸 원리, 가슴이 변해야 고통에서 행복으로 나아간다.
(강연후 체험 빛의 기둥)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266-8
043-296-5258 010-9242-5259
자각선원 (부설 뇌파 마음수련원) **자각선원장 자각 합장**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이 샘나 **효모 밥 죽 순**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콩단백 죽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 밥 죽 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 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샘나
농협 301-0222-8806-71 /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샘나]

종교인 과세 신고대행 안내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관련 세법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우리 사찰에서 신도에게 받는 시주금(기부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사찰에서 매월 받는 보시금(급여, 개인적인 생활비)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회사에서 월급받고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하고, 관련 자료를 세무세에 제출하는 **절차가 신설**된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관련 신고 납부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사찰에서는 기한내에 신고 · 납부하셔서 세법상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종교인 과세 신고 납부일정
- 7월 10일까지 : 2018년 상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19년 1월 10일까지 : 2018년 하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19년 2월 : 종교인 연말정산 실시
- 2019년 2월말 : 개인별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인 과세 신고대행시 필요서류
1.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사본(국세청 세무대리 수임 동의에 필요합니다.)
3. 급여내역 : 월 기본급 및 종교활동비

서류 제출 방법
1. 우편접수 : (우)47715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2. 팩스접수 : 051-955-2129
3. 이메일접수 : parkwooky@naver.com

※전화상담 ☎ 051-996-0308 / 010-9878-5716 박성욱 세무사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광주전남환경연대 10년사 책에 담아

〈세상 속으로 뛰어든 붓다〉 발간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10년간의 여정을 담은 책 〈세상 속으로 뛰어든 붓다〉가 발간됐다. 환경연대는 6월 23일 관음사 대웅전에서 봉정식을 봉행하고,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봉정한 활동보고서 형식의 책자는 총 350여 쪽에 글과 사진을 엮어 만들었다. 책은 △제1부-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 활동 △제2부-9개 소모임 활동 △제3부-자연과 조화로운 삶, 세상과 함께하는 삶 △제4부-생명평화를 애호하는 불교NGO △제5부-희망간담회 △제6부-활동하는 대표 스님들의 글 등으로 구성됐다.

시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 한 많은 분들의 원력에 감사한다"며 "오늘 부처님전에 진솔한 마음을 담은 책을 올린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먼 훗날까지도 더욱 정진하는 마음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피부색 달라도 佛心은 '하나'

대각불교청년회 외국인 불자들 5년째 급식봉사

미얀마 ·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불교계 봉사현장서 불심 지켜
도반들의 순수한 열정 '눈길'
"외국인 위한 신행활동 관심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 뜨거운 가마솥 옆에서 하얀 국수를 건져 올리는 외국인들이 있다. 미얀마와 스리랑카에서 온 그들이 만들고 있는 국수는 국내 노숙자와 독거어르신을 돕기 위한 무료급식이다. 고된 일자리 현장에서 차별받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피곤한 하루를 보내는 그들이지만 봉사를 통해 피로를 풀고 불심을 지킨다. 한국에서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봉사를 선택한 그들을 만났다.

부산 대각사 대각불교청년단(회장 조미라)이 진행하는 무료급식현장 '기쁨의 집'을 6월 24일 방문했다. 대각불교청년단 회원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다. 5년 전부터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윈나이(45), 조위(31), 담미카(29), 나렌빠이(32), 피퓨우(30), 와이얀표(26) 씨다. 이들은 미얀마와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노동자로 불교국가에서 자연스럽게 신심을 키워온 불자다. 한국에서는 고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봉사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불연을 맺기 위해 대각사를 찾게 됐다.

대각사불교청년단이 무료급식을 진행하는 장소는 대각사 근처 용두산 정수사 무료급식소 '기쁨의 집'이다. 365일 연중 쉬지 않고 급식을 제공하는 기쁨의 집. 이곳에서 대각불교청년단과 외국인 불자들은 매달 넷째 주 일요일 봉사를 담당하고 있다.

기쁨의 집에 가기에 앞서 봉사단은 대각사 마당서 국수를 삶았다. 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뜨거운 수증기가 수차례 봉사단의 얼굴을 덮쳤지만 이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이들은 숙련된 솜씨로 국수가 퍼지지 않도록 휘휘 저어 건져 냈고, 찬물에 씻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마련한 국수 양만 7판, 700인분이다.

잠시 쉬어 인터뷰를 하자는 요청에도 와이얀표 씨와 외국인 불자들은 좀체 곁을 내주지 않았다. 쉬지 않고 봉사를 거들어야 맛있는 국수를 대접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급식시간이 다가오자 손길이 더 분주해졌다. 봉사단이 기쁨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노숙자와 독거어르신들은 빼곡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대각불교청년단은 양념과 국수를 담고 외국인들은 육수를 부어 와이얀표 씨에게 건넸다.


외국인 노동자 불자들이 함께 무료급식 봉사를 하며 불심을 지키고 있다. 무료급식현장 정수사 기쁨의 집에서 봉사하는 모습.

와이얀표는 "어서오세요, 맛있게 드세요"라는 인사말을 반복하며 노숙자들을 반갑게 맞았다. 다른 외국인들은 잔반처리와 빈 그릇을 설거지팀에 옮기는 일을 반복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만을 위해 찾아온 그들의 진심이 노숙자들에게도 통한 듯, 국수를 건네받는 손길이 부드럽고 "감사하다"는 인사말도 남겼다.

외국인 불자들이 대각불교청년단에 찾아온 것은 6년 전이다. 와이얀표 씨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이주민 노동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했고, 그때 당시 만난 선배가 대각사를 소개해줬다. 이후 와이얀표 씨를 시작으로 연결되는 친구들이 모였고, 현재 대각사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불자 회원은 15명가량이 됐다.

와이얀표 씨는 "모두 부산 외곽인 김해, 진영 등에서 용접과 기계 등 공장에서 일하는 상황이라 집이 멀고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며 "하지만 미얀마에서도 봉사를 했는데 그 마음을 잇고 싶었고, 도반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조위 씨와 피퓨우 씨도 "무엇보다 도반들을 만날 수 있어 좋고 봉사활동이 보람돼 한국 생활에 그나마 활력을 얻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함께 봉사하는 대각사 청년들도 "새로운 가족으로 생각되며 늘 진실함이 전해진다"고 말했다.

윤창기(31) 씨는 "무엇보다 열심히 함께 노력해주는 모습에 마음을 많이 열게 되고 즐겁다. 우리는 도반이다"고 말했다.

조미라 대각불교청년단 회장은 "모두들 순수하다. 대화는 조금 어렵지만 뭐든 열심히 하려하고 도움을 준다"며 "다만 그들의 신행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지만 외국인들의 근무환경이 어려워 평일 법회 개최가 어렵고 오는 길도 멀어 쉽지 않다"고 대중의 관심을 호소했다.

한편, 대각불교청년단은 정수사 '기쁨의 집' 무료급식을 30년 동안 돕고 있다. 현재 3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봉사단을 운영 중이다.

(사)한마음빛나눔 호국영령 왕생 기원

(사)한마음빛나눔(대표 성종, 용문사 주지)은 6월 23일 용문사 대웅전에서 '제3회 호국영령 및 호국의승병 합동추모재'를 봉행했다.

행사는 대광 스님(대한불교종단총협의회장), 성종 스님, 보응 스님(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진표 스님(광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회장), 현무 스님(대한불교현조계종 호법원장)을 비롯해 김주용 광주지방보훈청장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성종 스님은 봉행사에서 "지금의 안락한 삶은 호국영령과 의승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끊임없이 인류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경북도청 신도시 포교도량 '첫 삽'

의성 고운사, 6월 26일 포교당 '녹야원' 기공

경북도청이 이전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 조성된 신도시 포교를 이끌 정법도량이 세워진다.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6월 26일 경북도청 신도시 종교용지에 마련한 부지에서 고운사 포교당 '녹야원' 신축기공식을 거행했다.

녹야원은 종교용지 약 1630평에 건립되는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신도시 포교당이다. 녹야원은 연면적 약 838평으로 지하에 식당과 다목적플라자, 1층에 어린이집과 공연장 · 카페 · 종무소, 2층에 템플스테이 다목적실, 3층에 법당과 전시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물 외관은 '부처님 눈썹을 닮은 초생달'을 주제로 디자인할 계획이다. 건축은 세계건축상을 수차례 수상한 윤경식 한국건축 회장이 맡았다. 고운사에 따르면 녹야원은 남쪽에 종이기둥 53개를 설치해 빛의 조형미와 어우러진 미술관 같은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또한 전통적인 불상을 탈피해 미래불을 조성하고, 전면이 유리창으로 이뤄져 검무산 정상을 법당 안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운사 포교당 녹야원 예상도.

고운사 측은 "녹야원 지붕은 전통적인 선을 살려 유려함을 강조하고, 3층 법당은 시각적인 미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목재로 천장을 마감하는 등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이뤄진 도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공식에는 고운사 회주 송암 혜승 스님을 비롯해 주지 호성 스님, 김광림 국회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김화숙 16교구 신도회장, 이재업 안동불자연합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이 자리서 호성 스님은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의상대사의 화엄사상을 녹여 구현한 정법도량을 신도시에 세우겠다"면서 "미래세대에 맞는 한국불교 사찰 건축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새 시대 포교방향을 설정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도 통하는 국제적인 문화중심 사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녹야원 건립 포부를 밝혔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울산시민 안녕 기원' 약사대불 점안

황룡사, 개원 10주년… 높이 8m 규모로

도심포교 원력 아래
"경기 침체 극복되길"

울산 태화강 도심 가운데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울산 황룡사에 약사대불이 나투었다. 황룡사는 도심포교 원력 개원 10주년을 기념하며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시민이 희망과 건강을 얻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황룡사(주지 황산)는 6월 24일 '개원 10주년 기념법회 및 황룡약사대불 점안 봉불식'을 경내 옥상에서 개최했다. 황룡약사대불은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이 내려다보이는 법당 위 지붕에 자리했다. 울산시민 누구나 오가는 도로에서도 편하게 친견하고 기도할 수 있다.

법회에서 높이 8m, 무게 2.5t의 황룡약사대불이 모습을 나타내자 내빈과 시민들은 손을 모으고 환희심으로 기뻐했다. 황룡사는 합창단 음성공양과 난타공연으로 축하했으며, 약사대불 조명점등식도 함께 진행했다.


황룡사 옥상에 조성된 높이 8m 규모의 약사대불.

주지 황산 스님은 "도심 가운데 위치해 여기 오고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보고 행복하길 기원한다"며 "대불을 모시겠다는 그 서원이 오늘 이뤄졌고 약사부처님의 가피로 행복한 울산이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회에는 주지 황산 스님, 울산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을 비롯해 울산종단연합회 스님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s.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말세의 중생들이 마음에 허망함을 내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이러한 사람은 현세에 곧 보살이라 항하사 부처님께 공양하여 공덕이 이미 원만했다고 하시니라.

– 원각경 –



관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기도와명상

"신간 책 소개!"
기도와명상



모든불교인의 '필독서'입니다
문의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천기누설 운

"엄청난 책내용"
천기누설 운
검색!!
토굴기도실와
운명점술학박사1호 손도사봉
책제목 검색 후 인터넷 구입
문의010-5105-5000

조선소나무 판매

목재용, 건조기간 6년
수량 14000사이(상태A급)
건축면적 : 약 28~30평내
저렴한 가격
010-2294-4747

청정한 제주에서 기도하며 함께 살아갈 비구스님 모십니다

010-3516-6375
(문자로 남겨주세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불광(佛光)에너지 체험

관세음보살 · 약왕보살
가피받는 비법 전수,
건강회복, 운명(팔자)바뀜
블로그에서 「묘진사」 검색
053-652-2714
010-9616-2477
묘진사 (대구 내당동 소재)

모 집 안 내

사암, 포교원 등록
종단, 연합회 등록
불교문화원 시설 등록
지방 종무청 설치 등록
한국불교 종무청
종무집정기관 종무집정관
종통정승 011-412-8040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명상 (무료)

"누구나"
T.1588-5654
화 태 명 상 원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3길 31
전철 2호선 홍대역 2번출구

도깨비를 내 맘대로

대주스님의 뇌강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
  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七星 철학 命理 學堂

※실전통변술 해법(命理學神通術)
※실 전 반 모 집(1:1 맞춤 직강)
∵ 칠성사 부설 칠성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뱀내장터로 21(신천역)
☎ 031-315-4684
010-8427-6199

한국 민간 요법 연구소

전립선 도움 | **비염 치료**

내성이나 향체가 강하면 연고 2개를 쓰시고, 약하신 분은 1개를 쓰세요.
25일 사용
70 ~ 80% 치료 효과
한달 분 가격 55만원 **가격 40만원**
010-9523-3338
농협 421019-58-009257 (이광주)
※ 37년간 연구 했음

정법수행에 적합한 토굴을 구합니다

산속이나 한적한 곳이면 되고
물이 가까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임대 또는 싼값으로 양도도 가능합니다.
좋은 인연을 기다리겠습니다
010-7678-5536

대한불교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풍수지리 신통력

음택명당 이장하는데
해무리, 무지개 3시간 뜨고
양택명당은 꿈에 무지개가 떳습니다
010-4413-3377

조계종 출신 비구스님 모십니다

세속나이 60대
010-5767-4770

동이 민간 의술 학회

당뇨, 간질환(특효), 오십견, 어깨, 팔다리, 저리고 아픈 증상 방문해주시면
무료 치유 봉사 해드립니다
심복사 지덕 합장
010-5758-8689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삼로 263-46 (북가현리 8-1)

명예박사학위취득 필요한 분 상담환영

(미국령, 대학교)
1.정치외교학 2.경제학
3.문화예술학 4.철합,문학
5.종교학 6.체육학
7.대체의학
상담:070-8844-2030

사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1종 대형면허 소지
(60대 초)
010-6476-6026

산 속에 토굴이나 암자 구합니다

TV에 방영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산 속의 집도
연락 하십시오
010-5466-3321
성법스님

대구인근 사찰관리 원함

군법당에서 38년간 근무
포교사 각종의식 바라니 가능
소방안전관리자 외
7개 자격증 보유
010-5071-1916
지열 이말성 합장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3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몸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화를 경계하라 몸을 간수하라. 몸으로 짓는 죄업을 떨치고 그대의 몸으로 선행을 닦으라.

– 법구경 –



부산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삼성각. 요사채. 토지 2,400㎡
- 뒷편 산사찰. 운영 잘 됨. 기도도량. 전망 좋음.
- 양도 : 17억원(토지값 정도로) (위치 알려드리지 않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 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건물양도
해발500m 높은산 아래 남쪽을향해 자리한 건물 50평, 대지 456평 주변은 울창한 송림지대 한적하고 자연이 보존되어 있는 청정지역 이곳에 인연되어 살 분을 찾습니다
- 주소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614
위 물건에 뜻과 능력이 있으시다면 현장 방문 확인하시고 전화 주세요
- 최저가 금 9,500만원 입니다

전화 : 010-8899-889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강원사찰(급)안내
- 관광기도사찰.토지 5,000㎡
- 목조법당. 요사채. 삼성각
- 조용하고 위치 좋음. 방문객 많음
- 스님사정으로. 수행하기좋음
- 양도가액 : 14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구입의사 있으신 스님만 모심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정릉유원지 근처
- 대지 : 734평(국유지)
인법당 10평 정도
- 방8개, 화상실 3개 시설완벽
주차 : 마당에 10대 가능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

010-3700-1893
02)911-924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수도권
◎ 대지 : 140평
◎ 법당 : 40평
◎ 요사 : 30평. 40평
◎ 양도가 : 12억 3천
◎ 위치 : 서울 북한산
◎ 부지 : 100평사용
◎ 인법당 : 약 60평
◎ 산속, 무허가 건물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있는 작은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위치
- 오르막 없는 평지 주차 넉넉함
- 하천부지 약100평(산신각포함)
- 양도 또는 전월세도 가능

010-7121-3030
010-3574-3303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전농성동 5거리) 경열로 45번길 10
- 2층 건물(1~2층) 전체 약 30평
- 법당, 방5개, 화장실 1,2층 각각 창고
- 가액: 보증금 5백만원(월세 3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 급한인연으로 몸만오시면 됨

010-3102-5102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교통 아주 좋음
- 대지 약 500평, 주변산 2천평
- 건물 : 대웅전, 요사채, 기타 아름답게 잘 정돈된 사찰
- 가액 : 방문 후 결정
- 몸 만 오시면 됨

010-4537-5386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동대동 천변
- 신축 건물 2층 40여평 트인 전망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010-5438-01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관이 수려한 고찰로써 수행하기 좋은곳
- 대지 1,80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황토) 창고
- 주차시설 아주 좋음
- 확인 후 절충가능

주지직 010-7918-7328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찰,학원 어린이집 부지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큰길 옆 산자락
- 5천세대 자이 2차 아파트 단지내 자명요양병원 입구
- 평수 : 256평
- 가액 : 5억

010-3173-5151

사찰상가주택(급)안내
- 대지 : 210.5㎡ / 건물 : 500㎡ (실제 조금 더 큼)
- 1층 : 찻집(30평)
- 2 ~ 3층 : 총 6가구 입주
- 4층 : 요사채(40평) /
- 5층 : 법당(30평)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위치
- 총금액 : 6억 8000만원

010-6656-8117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7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 : 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13억

010-5923-33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전원 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총대지 300평
- 정자(3×5m) 원목
- 진주20분 도로 잘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문의처 010-2607-7114

도심 별장 같은 사찰
- 위치: 시청 5분, 김해공항 10분 거리
- 토지 : 270여평, 주차장 완비
- 법당, 산신각, 종각, 용왕당, 종무소 주지실, 요사채(방3) 30평
- 돗대산, 주변 1500세대 아파트
- 가액 : 평당 280만원 (은행 2억1천 안고)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 대지 : 254평 (하천부지 포함 58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관음전, 공양간, 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종무보살님)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 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내, 방2개, 주방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 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6억(융자 5억 5천 안고 11억)

010-9567-0813

불자가 중개하는 안락동770-2 허가06-2231
공인중개사(중개안내)
- 전국사찰(터) + 암자 + 포교당 + 기도원
- 거래 성실(비밀) 중개로 오랜 경력 신용 쌓았습니다
- 살분 = 팔분 편안히 상담 바랍니다

010-3570-00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 (불상,불화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010-8716-2399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15년 기반 포교원안내
- 위치: 대전 복합터미널 근처 대전역 인접
- 제반시설 : 법당, 주방, 상담실, 방 3개, 60평
- 2층 건물, 옥상 60평 사용
- 초기설비 : 3000만원
- 보증금 1000만, 월세 50만원
- 통화 희망시간 : 오시, 6시 이후

010-3452-1123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읍내 거리 5분
- 부지 : 약 1,700평. 가액 : 14억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돌탑 높이 9m30 둘레 13m 돌탑 108개, 요사체 2동 정자각 1동, 심야전기보일러 태양광열 설치, 대형주차장완비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문의 : 033-562-044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 5번출구에서 5분거리
- 평수 : 2층 상가건물 약30평
- 교통 위치 좋음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일체 1000만원 (가격절충)

010-8887-9894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 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2,500만원
- 22년 포교중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대지 : 약 360평
- 사용평수 : 약 500평(하천부지포함)
- 법당,삼성각,약사여래,삼층탑,석등
- 요사채2채,창고3개,주차시설완비
- 가액 : 4억 • 창건 1972년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4583-489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동울산 시장 옆
- 2층 50평
- 칠보 삼존불, 천수천안, 호신불 617불 등 320등
- 원목3단 수미단,신중단,영단
- 주택,아파트,상가,시장,인구 밀접지역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창고
- 전화주시면 법당 사진 보내드립니다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월6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8424-0042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2동 437-5 동구시장 맞은편. 명보약국. 골목
- 4층건물 내 2층 40평 중 내실. 상담실 주방. 세탁실. 화장실. 법당 29평내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신중탱1점 소불 관세보살 지장보살
- 보증금, 시설비 포함 2,000만원 월 45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748-473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만덕동
- 2층 80평 방 5개, 주방
- 삼존불 및 33관음보살 원불
- 보증금 1,000만/월100만원
시설비 : 3,200만원,
- 시설 완벽 새 법당 주차장 대형주차장 완비
- 큰절 소임관계로 급양도

010-5638-5959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 주택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5325-3068

멋진 2층 상가 주택 토굴
- 위치 :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 대지 : 716㎡ (약 217평)
- 건평 : 1층 158㎡ (약 42평)
2층 105㎡ (약 35평)
- 양도금액 : 3억2,000만에서 5,000만 빼드림
- 대출 : 1억 포함(가격조정가)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 아파트 대단지 4만5천세대 부근
- 가액: 3억 5천만원

010-5019-5385

토 지 안 내
- 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단산웃길 264 지리산 보현사 근처
- 3800여평
- 평당 약 23만원
- 종교시설, 복지시설, 개인주택 및 농가 모두 가능

010-5393-3689
보현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
- 임야 4천평, 대지 약1천평 법당 35평, 요사 60평
- 1천 3백년 고목 있고, 산세수려, 교통 편리 지하약수 천혜의 명당지리
- 가액 : 12억

010-4547-4990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 땅 1,700평, 건물 5동 130평
- 선방을 할 수 있는 명당자리 입니다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3882-811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중구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입구
- 포교하기 최상 장소
- 평수 : 약 80평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세50만원
- 시설비: 협의 결정

※ 불사관계로 급

010-4766-32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대로변
- 4층 건물 4층 약 80평 (엘레베이터)
- 시설:A급(시설비 약 1억 소요)
- 구조 : 법당, 방사1, 상담실, 주방, 화장실
- 가액: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방문 후에 상호 결정

010-2270-6611

금정산 전통 사찰
- 위치 : 부산외대 뒷산 고찰
- 법당, 산신각, 주지실, 요사채
- 산림도 접, 600여평 점유
- 등산로, 샘물 식수 명당
- 짚차 4WD 올라감
- 가액 : 2억 5천만원

주지 010-3585-0200
010-9906-363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대사동
- 평수 : 40평
- 방 2개, 법당, 주방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삼존불,후불탱화,신중탱화
- 몸만오셔도 법회 바로 가능
- 스님, 법사님, 보살님

010-8651-356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봉양읍
- 법당, 거실, 주방, 방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3천만원

010-5258-157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대지 : 220평
- 건물 : 대웅전(50평, 공양간, 종무소 포함), 요사채 2동
- 특이사항 : 법당 바로 법회가능 (불상, 불단, 냉방시설완비)
- 가액 : 1억 2천만원

전화 : 010-6241-8499
(사시기도, 오후 통화가능)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해남 소재
- 땅 500평 개인 소유
- 산중턱 위치, 전망 좋음
- 목조법당 13평, 요사채 3동 30여평, 산신각 1평 차량 진입함
- 가액 : 전화상담

전화 : 010-9940-0037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618-13 2층 신정시장 동문 입구
- 평수 : 약 40평
- 법당, 방 2칸, 거실, 주방, 욕실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2만5천원
- 시설비 6천만원
합 계 : 7천만원

052-267-8112
010-4653-0116

사찰 임대 안내
- 위치 : 서울 수유리
- 지하1층 ~ 지하 3층
- 연건평 446㎡

010-2913-796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용학로)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입구17년째 운영
- 평수 : 40평, 3층 옥상 사용 사무실, 스님방
- 법당 : 삼존불, 시설 원만,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1000만원, 월40만원.에어컨 완비
- 시설비 1000만원, 가격 절충 가능

010-7536-258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단독 주택 약 50평
- 법당, 방 3, 화장실 2
- 법당(아미타 삼존불), 청동불(3자)
- 보증금 1천500만원, 월30만
- 시설비 : 청동불 인수 포함 2천만원

010-9735-80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어은리 318번지
- 대지 : 107 평수
- 건물 : 인법당, 8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꼭 하실분 가격 절충)

스님 010-3540-6549
010-7169-1399

사찰팬션부지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유전리 소재
- 부지 : 663평중 사찰부지 조성 210평
- 건물 : 부지 조성한 아래 종전 가든한 건물3동 32평 1동, 25평 2동
- 특징 : 지하수 1급수 면소재지 2,3분거리, 합천읍 20분 영화테마파크10분거리 대병IC5키로이내국도변에 위치한 합천팸 위 명당자리
- 추천용도 : 사찰,연수원,요양원,펜션,식당(식당은 허가있음)
- 가액 : 3억5천5백만원, 최저가액(대출금있습니다)

주인직 : 010-2544-4848

임법당 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소백산 앞 개울끼고 공기 좋은 곳,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 원함
- 불기일체, 집기일부, 수도,전기,보일러 유
- 벽돌연와 건물 35평, 텃밭, 대형주차 총 평수 714평
- 스님 사정으로 양도. 2억2천

주인직 : 010-4747-3468
낮 12시 이후 4시전 통화가능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339-9
- 법당 30평
- 방1개, 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절충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010-7257-4242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등기필
- 대지 : 도지료1년 35만원
- 넓은 마당 및 텃밭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임)
- 가액 : 4천 5백만원

010-8525-1959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2-1
- 해발 고 산과 호수 위 암자
- 국유림 내 사유지 120평 건물 등기 20평
- 최고의 기도처
- 도로 생수 전기 통신 유
- 최저가 : 7,500만원

010-8899-8899

〈달라이라마 제안〉

‘행복수업’ 인도 공식교과목 채택

7월부터 시행… 학생 80만명에게 적용돼

인도 교육부, 6월 20일 발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해당
4년간 청소년 자살 3만 명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 전망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의 명상을 토대로 한 ‘행복수업’이 인도 수도권 델리지구의 공식교과목으로 채택됐다. 이 행복수업은 티베트의 불교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오랫동안 제안한 것으로 지난 6월 21일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 ‘더 힌두’ ‘인디아 투데이’ 등의 인도 현지 언론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6월 20일, 마니쉬 시소디아(Manish Sisodia) 델리 교육보좌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7월 2일부터 델리지구의 공립 교육기관에서 행복수업이 공식교과목이 될 것이며, 유치원부터 8학년(한국의 중학생) 학생까지 시행된다”고 공식발표했다. 시행기념식에는 달라이라마가 공식 참석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들은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를 중심으로 한 델리지구에 공립학교는 1천 개소가 넘고, 적용되는 학생들은 약 80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시소디아 교육보는 “이번 행복수업에는 명상이 포함되며, 도덕적 가치와 정신활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전인적 인재상을 함양하고, 인간의 행복을 통한 사회변화를 이루려는 데 목표가 있다”고 교과목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10년 이상이 지나 이 교육을 받고 자라난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 각계로 진출했을 때의 기대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결과에 대한 예상을 덧붙였다.

델리 교육부는 현재 교사들을 상대로 해당 수업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교과목에 대한 라디오와 TV 등을 통한 홍보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행복수업은 다른 교과목과는 다른 관점에서 진행되기에 연수에도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먼저 교사들이 학생의 행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연수내용을 전했다.

행복수업의 커리큘럼에는 인도 전통



마네쉬 시소디아 델리 교육보좌관(왼쪽 첫 번째), 델리 주수상 아르빈드 케즈리왈를 접견하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인디아 투데이**

도덕은 물론, 평화와 사랑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포함된다. 불교의 자비와 명상도 함께 교육된다. 특히 학생들 스스로가 행복이라는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명상실습이 중요하게 교육될 예정이다.

현지 언론들은 행복수업의 조속한 도입이유로 최근 심각한 학생 행복문제를 꼽았다. 현재 인도에서는 과열된 교육열과 함께 학생들의 행복지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이래로 3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 자살자가 나왔으며, 가장 어린나이는 15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를 의식한 듯 델리 교육부의 공식발표문에는 “이번 수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바는 ‘교실에서 진행되는 교육 밖에서 배우는 행복’이 있다는 것이며, 학생들의 행복도가 그들의 창의성과 활동성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약 4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만든 커리큘럼을 시범 적용했다. 3월에 발표된 중간보고에는 단 2달 만에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급상승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복수업에 대해 제안자인 달라이라마는 “물질만능주의에 강력한 대안은 젊은 세대에게 마음에 대한 교육의 진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복이란 사회의 변화가 아닌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개인의 변화가 그 가족을 변화시키고 사회의 흐름을 바꾸듯, 개인의 행복은 모든 사회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이번 행복수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불보살의 가피가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축복했다.

명상과 정신적 가치를 가르치는 행복수업이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이 엄청난 교육실험에 귀추가 주목된다.

美불교, 트럼프 이민 정책에 ‘뿔났다’

라이언스로어, 불교도 공동 행동 ‘주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가족 격리 정책이 전 세계적 지탄을 받는 가운데, 미국 불교도들도 일제히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불교 외신 ‘라이언스로어(Lion’s Roar)’ 6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불교도들은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부모와 자녀를 격리시키는 조치를 지속하는 데 대해 공동 행동을 자처하고 나섰다.

우선 200여 명의 불교 교사는 “가족 분리를 끝내라”는 촉구 서명에 동참했으며, 300여 명의 불교도 시위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주변을 돌며 ‘침묵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불교 수행자 레이 버크너(Ray Buckner)는 “불교도로서 나는 도덕적으로 폭력에 반대하며,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숨 쉬려는 사람들과 연대 의식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특히 휴스턴 젠 센터의 가드윈(Godwin) 주지 스님은 휴스턴 내 불교 지도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이 같은 도덕적 분노에 직면했다. 휴스턴에서 너무나 잔인하고 부당하게 학대당한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0여 명의 불교도 시위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주변을 돌며 ‘침묵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이밖에 선수행 교사 조안 할리팩스(Joan Halifax)는 라이언스로어 기고문을 통해 “나는 이 시대의 민주주의가 연민의 적자와 보전의 부재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티베트 정통 명상 교사 수잔 카이저 그린랜드(Susan Kaiser Greenland)도 트럼프의 무관용적 이민 정책에 대해 불교도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테러로 파괴된 관음상 10년 만에 복원

이탈리아 고고학자들
파키스탄 스와트계곡서

2007년 탈레반 의해 파괴
마애불 테러 전 연습용으로
왼쪽 다리 완전복원 안 돼





파괴되기 전의 마애관세음보살상(왼쪽)과 복원 후 야외갤러리에 설치 중인 관세음보살상. **사진출처=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ÆAW) · 던닷컴**

이슬람 무장테러단체인 탈레반의 테러로 파괴된 마애관세음보살상이 10년 만에 복원됐다고 6월 21일 파키스탄 인터넷 매체 ‘던닷컴(dawn.com)’이 전했다.

지난 2007년 9월 탈레반은 스와트(Swat)계곡의 자한 아바드(Jahanabad) 마애불을 테러하면서 함께 있던 마애관세음보살상을 파괴했다. 마애불은 이탈리아 고고학자들에 의해 4년 6개월에 걸쳐 복원됐지만 산산조각난 관세음보살상 복원은 요원해 보였다.

그러나 복원팀은 자한 아바드 마애불에 이은 불상복원으로 이 관세음보살상을 선택했다. 복원팀은 보살상의 파편을 수습하고, 파괴 전에 촬영된 사진과 조사 보고서를 참조해 2015년 복원에 착수했다.

복원팀의 팀장 올리베리(Luca M. Oliveri) 박사는 “이 불상은 7세기경에 조성된 마애불상으로 고대 스와트 계곡, 자한 아바드 지구의 불교유적군에서 중요한 유물이다. 당시 이곳을 순례한 구법승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불상은 인드라부티(Indrabhuti) 사원에 모셔졌던 것이다. 정확한 소재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불상”이라고 말했다.

복원팀연구원 안나 필리젠지(Anna Filigenzi) 박사는 “스와트 계곡은 고대에 웃디야나(Uddiyana)로 불리던 곳이다. 이곳의 불교미술은 북부인도와 히말라야 문화권의 불교미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불상의 복원은 불교미술의 근원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불상이 가진 불교미술학적 가치를 밝혔다.

복원팀은 복원 과정에서 “불상의 최상부와 최하부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폭파한 흔적이 나왔다. 이는 자한 아바드 마애불을 테러하기 전에 연습용으로 이 불상을 폭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이로 인해 불상의 왼쪽 다리가 완벽히 복원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복원이 완료된 관세음보살상은 스와트 박물관 야외 갤러리에 전시하기로 결정됐다. 스와트 박물관의 큐레이터 파이술레흐만(Faizur Rehman)은 “스와트 계곡 전역에 파괴된 불상은 헤아릴 수 없다. 파괴된 불상들을 박물관으로 가져와 복원하는 일은 단순히 유물의 복원을 넘어서, 파괴된 스와트의 문화와 예술을 되살리는 일”이라고 복원 의의를 밝혔다.

박물관 측은 이번 관세음보살상의 복원전시를 시작으로 박물관의 정원을 야외 갤러리로 조성할 것으로 전했다. 갤러리에는 자한 아바드 불교유적군의 불상들과 함께 스와트 지역의 마애불과 석불이 전시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日 승려의 ‘이중생활’… 긴 머리에 힙합을?

더힌두, 아키노부 타츠미 스님 ‘음악 인생’ 조명

일본 승려 아키노부 타츠미는 독특한 ‘이중생활’을 한다. 법회를 집전하면서 디제잉을 하는 것. 전형적인 승려라고 보기 어려운 그는 긴 머리에 포니테일로 머리를 묶고 비트박스를 한다.

인도 언론 ‘더힌두(The hindu)’는 6월 15일 힙합에 빠진 일본 승려 타츠미를 조명했다. 타츠미는 태어나기 전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시작됐다고 회상했다.

“어머니는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배에 스피커를 갖다 대고 클래식 음악이나 70년대 디스코 음악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성장한 후 음악을 듣고 연주했을 때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젠가 꼭 들어봤던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는 10대 때 힙합을 시작했다. 하지만 ‘승려’ 신분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때문에 규슈 지역에서도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사원에서 비밀리에 녹음 작업을 했다. 힙합의 직설적이거나 다소 공격적인 가사는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아름다운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아키노부 타츠미 스님이 디제잉을 연습하고 있다. **사진출처=더힌두**

절벽 끝에서 힙합을 연습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수년간 ‘야행성 취미’를 이어오던 타츠미는 38살이 된 지금, DJ로서 신도들 앞에 선다. 노보살들에게 처음 디제잉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다소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를 ‘펑키 스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타츠미는 “4년 전 다발성 경화증으로 투병 중일 때도 음악을 멈출 수 없었다”며 “병을 이겨내고 나서는 노보살들과 심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기분이다. 투병의 경험과 음악을 토대로 더욱 유명해지겠다”고 능청스럽게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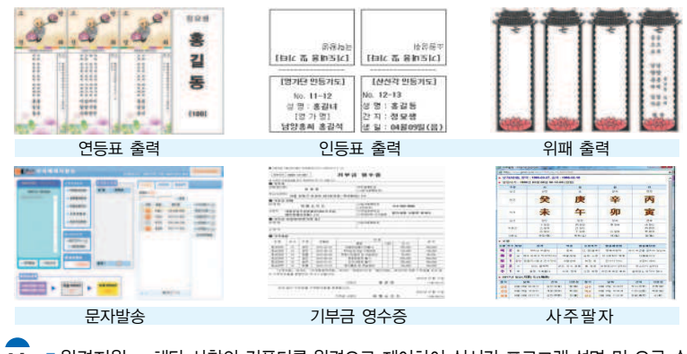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 급 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내원궁 회향선원에서
부처님 진리를 배우고 실천 하세요
재가불자 내원궁 회향선원에서는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생활하실 재가불자님을 모집합니다.
내원궁 회향선원 입주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 입니다.
5년 동안 1인 1실 원룸에서 생활하고, 모든 숙식은 내원궁 회향선원에서 제공해 드리며, 5년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즉, 생활 전액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조건입니다.
2인 1실은 보증금은 1억이며, 재가불자에 한하며 스님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많은 문의 및 방문 바랍니다. H·P 017-201-0037



△ 1인 1실 원룸 내부 △
▼ 내원궁 건 물
유튜브 : 회향선원 내원궁을 검색하세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아잔 브람

〈1〉 수행의 마음가짐

‘사마디’는 집중 아닌 고요함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하지만 불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야 참된 삶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사람들에게 큰 울림으로 남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수행자들의 외침이 값진 이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려놓고,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 서양을 대표하는 수행자 아잔 브람이 자신의 지혜를 전한다. **정리=윤호섭 기자**



갈애만이 괴로움 원인 아니라
미세한 욕망·바람도 마찬가지
무언가 얻기 위한 수행 아닌
놓아버리기 위해 해야 한다

수행은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니밋따(nimitta)나 선정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니밋따와 선정,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장애를 놓아버리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수행이란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과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고 수행하는 것에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의 변화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명상을 대하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이 변합니다. 놓아버리기 위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행은 자아에 더 많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행은 놓아버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면 무엇을 원할 때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사성제 중의 두 번째인 고집성제는 탄하(tanha)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탄하는 갈애 또는 취착으로 번역됩니다. 저는 그 번역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애나 취착이라고 하면 강한 욕망만 포함되고 미세한 욕망이나 수행에서의 욕심은 괴로움의 원인에서 제외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행에서의 바람이나 좋은 일에 대한 미세한 욕망도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이 히말라야에서 혼자 머물며 수행하는데 마라가 다가와 방해하려 했습니다. 마라는 부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치를 시작하라고 했고 세상에 있는 빈곤, 부패, 전쟁,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라고 권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선업의 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전륜성왕이 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이타적인 염원이었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괴로움을 멈추는 길이 아니라 그저 연장시킬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거절하셨습니다.

미세한 욕망도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저는 탄하를 ‘어떤 형태로든 무엇인가 바라는 마음’이라고 이해합니다. 수행에서 무엇을 원하는 것도 역시 탄하,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행을 통해 평화롭게 되기 바란다면 결코 평화롭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려 한다면 호흡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니밋따, 선정, 깨달음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것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때 니밋따, 선정,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바라는 마음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의 원인은 바라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고요함의 중요성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던 날, 네란자라강에 자신의 발우를 띄우면서 만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바라밀이 성숙되었다면 그 발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리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발우는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요히 머무는 것,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런 것이 흐름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끝없이 움직이는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것입니다.

사마디(samadhi)라는 단어는 서양에서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리스 데이비스(Rhys Davids) 교수는 스리랑카에 오래 머물며 빨리어를 배웠고 영국으로 돌아가 빨리어 경전을 영어로 제일 처음 번역했습니다. 그는 사띠(sati)를 ‘마음에 새겨 잊지 않음[mindfulness]’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은 잘된 번역어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마디를 ‘집중[concentration]’이라고 옮겼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어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번역은 수행을 하는 데 많은 오류를 범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사마디는 집중이 아니라 고요함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사마디를 고요함, 정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저의 경험과 일치했으며 또한 저의 스승인 아잔 차(Ajahn Chah) 스님의 가르침에도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저는 한문으로 번역된 아가마(Agama), 즉 아함경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함경은 빨리어 경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학자들에 따르면 사마디라는 단어는 한역 경전에서 언제나 고요함이나 정지라는 뜻의 한자어로 번역되었고 집중이라는 뜻으로 번역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래전 인도의 언어를 한문으로 번역했던 승려와 학자들은 사마디의 의미를 집중이 아닌 고요함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행의 목적이 집중이 아니라 고요함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욕망이나 의지의 힘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놓아버림, 내어 맡김, 있는 그대로 놓아둠, 이런 것은 우리 마음을 고요함으로 이끕니다. 욕망과 의지는 우리를 집중으로 이끕니다.

저는 수행할 때 우선 앉아서 눈을 감은 다음 마음챙김을 갖추고 자애로운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행복하게 머물면서 ‘나’라고 믿는 것을 그저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연꽃의 첫 번째 꽃잎인 몸을 알아차리면서 몸에 자애로움을 보냅니다.

몸에 자애로움을 보낸다는 것은 우선 편안한 자세로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닥에 앉는 것이 익숙지 않은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수행하면 됩니다. 반드시 반가부좌나 결가부좌의 자세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선정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자세를 찾아 이런저런 자세를 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화로움 측정계

사람들은 운전할 때 차의 계기판에 있는 여러 가지 측정계를 보면서 운전합니다. 계기판에는 연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엔진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나타내는 측정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나타내는 속도계, 스피도미터(speedometer)입니다. 가속페달을 밟으면 속도계에 있는 바늘이 올라갑니다. 속도계에 있는 바늘이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속도계의 바늘이 너무 높은 수치를 가리키면 가속 페달을 밟는 발을 늦춥니다. 그러면 속도가 줄어들고 속도계의 바늘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운전합니다. 적절한 속도로 운전해서 사고도 내지 않고 경찰에게 잡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처럼 여러 가지 측정계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를 저는 피소미터(peaceometer), ‘평화로움 측정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나타내는 측정계입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걱정하고 불안을 느끼면 평화로움 측정계의 바늘이 올라갈 것입니다. 깊은 수행 상태에서는 바늘이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바늘의 위치는 언제나 다를 것입니다. 평화로움 측정계를 쉽게 인식하는 방법은 1부터 10까지 수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걱정이나 불안이 극도로 심해서 바늘이 가장 높이 올라간 상태에 10이라는 수치를 부여합니다. 평화롭고 고요해서 바늘이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는 1이라는 수치를 부여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1에서 10 사이의 어느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저에게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혹은 얼마나 들떠 있는지 점검하면 됩니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가 높으니 나는 좋지 않은 수행자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평화로움 측정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인 태도로 대하면 평화로움 측정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듯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바라보십시오. 비가 도움을 주거나 불편을 주거나 상관없이 비는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놓아두십시오. 걱정이 있거나 평화로운 기분이 되거나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고 나서 평화로움 측정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평화로움 측정계의 바늘이 아래로 내려가 평화로움을 가리킬 것입니다. 평화로움 측정계를 인식하는 수련을 통해서 놓아버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익히는 것입니다.

아잔 브람은

1952년 영국 런던의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이론 물리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1년 정도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우연히 접한 불교 서적으로 인해 수행의 길로 접어든 그는 태국으로 떠나 수행자가 됐다. 아잔 차 스님 밑에서 9년간 가르침을 받았고, 호주로 건너가 보디니야나 수도원을 세웠다. 그가 강연한 내용을 묶은 책들은 현재까지 모두 24개국어로 번역됐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 〈Watkins〉는 2018년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스승 100인으로 교황 프란치스코, 달라이 라마, 데스몬드 투투와 함께 아잔 브람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이 글은 아잔 브람의 위빠사나 명상 강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 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붓다 핸썸(Hands UP)! 희망 붓다!

제61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붓다 핸썸(Hands UP)! 희망 붓다!”** 라는 주제로 **제61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열고 함께 소통**하며, 계층포교의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알찬 프로그램을 통하여 활력의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통하여 법회, 여름불교학교, 템플스테이의 희망을 붓는 **고민타파의 기회**로 강습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재교구 자료 전시와 수시 상담을 통하여 여름불교학교 고민을 한방에 털어버리는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1 주 제 : **붓다 핸썸(Hands UP)! 희망 붓다!**
2 일 시 : **2018년 7월 7일(토) 오전 9시 ~ 오후 6시**
3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삼보사**
(서울 은평구 진흥로 99-4)
4 대 상 : 계층법회 및 불교학교 지도자, 템플스테이 실무담당자, 포교사 등
5 참가비 : 6만원 (사전 접수 시 5만원)
입금계좌번호 - 국민 610301-04-13253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참가비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참가비 입금 미확인시 당일접수 참가비 적용.
※ **환불은 사전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신 분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교재와 기념품으로 대체하여 발송.**
※ **단체별 10인 이상 접수 시 10% 할인 / 제주도, 군종병 3만원.**
※ **본회 정기 후원회원은 무료.**
6 준비물 : 개인 물컵, 필기도구

7 일정표

시 간	내 용
09:00~09:30	접 수
09:30~10:00	**[Ice Breaking]** Put Your Hands UP!
10:00~10:30	입 재 식
10:30~12:00	**[강의 ①] 찬불가 율동의 활용과 실제** - 붓다의 노래, 희망의 노래
12:00~15:30	점심공양 **[강의 ②] 체험활동 - 부처 핸썸! 희망 붓다!** * 소통의 펜아트 : 친구와 함께 만드는 펜아트 * 붓다사인보틀 : 나만의 부처님, 나만의 사인보틀 * 반짝이는 소원등 : 희망의 소원 담은 우드 등 만들기
15:30~15:40	휴 식
15:40~17:20	**[강의 ③] 레크리에이션의 활용과 실제** - 마음 열고, 부처 핸썸! (Put Your Hands UP!) 소통놀이
17:20~18:00	회 향 식

※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 사전접수 마감 : **2018년 7월 2일(월) 오후 6시까지**
※ 인터넷(이메일), 팩스 접수 후 참가비 입금
▷다음까페에서 안내문 다운, 작성 후 이메일 접수
다음까페 - http://cafe.daum.net/burec
E-mail - burec@daum.net
▷첨부된 안내문을 작성하여 팩스 접수
Fax. 02-738-7863
▷스마트하게 카카오톡으로 신청하기
플러스친구에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검색, 친구 추가
▷전화 접수 가능 : ☎ 02-738-7860

8 접수 : 선착순 100명
9 문의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국(02-738-7860 / 02-739-4967)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말을 하되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되 말을 하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질문들 아니 하시렵니까? 내가 알면 얼마나 더 알며, 여러분이 모르면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도반으로서 같이 토론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합시다. 아마 앞으로 우리 법사님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 두 법사님도, 또 지금 한국에 있는 법사님도 다 그러실 겁니다. 한국에 있는 신도님들, 회장님들, 신행회의 회장님들도 그렇지만 참, 여자든 남자든 이런 공부를 해 가면서 사시는 분들은 사실 아주 여여하게 사십니다. 다 깨쳤다는 언급은 안 하시지만 말입니다. 깨쳤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나를 깨쳤어도 육조 스님이 12년이 걸려서 지혜를 얻었듯이 그걸 실험하고 체험하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걸렸단 말입니다. 내가 체험 안 해 보고 내가 실험 안 해 보고, 여러분한테 말을 해서 한데 떨어뜨리게끔 해서는 절대로…, 그건 누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죠. "나를 깨쳤어도 깨쳤다는 말은 하지 마라. 실험을 하더라도, 체험을 하더라도, 지혜를 넓히더라도 지금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하지 마라. 내가 저게 되고 저게 내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부처다라는 말 하지 마라. 부처는 없는 게 부처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우리 서로 대답하고 토론할까요? 어때요?

사회자 큰스님께서는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어제도 나오시고 오늘도 나오셨습니다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 여러 가지 의문점을 기탄없이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가시면 그대로 훌륭한 인생의 지침이 되실 것입니다.

질문자1(남)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림 그리는 일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참선하는 길과 어떻게 같은 길이 될 수는 없는가.' 이렇게 사실 주욱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그림을 그려 왔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늘 문제가 되는 게 스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마음이었습니다. 땅을 파지도 않아야 되고 안 파지도 않아야 되고, 그게 사실 그림 그릴 때 늘 와 닿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내 자신이 나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안목, 그림에도 물론 새로운 안목, 새로운 영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하는 거를 늘 고민하다 보면, 소위 이야기하는 '나 자신을 붙잡는다, 놓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그림 · 최주현

큰스님 간단하게 질문만 해 주십시오.

질문자1(남)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기 마음을 놓아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결국 마음에 귀착이 되니까요.

큰스님 어느 시골에 떠꺼머리총각이 하나 있었더랍니다. 근데 나무를 태우면 숯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땅에다 항상 그림을 그렸더랍니다. 근데 하루는 자기가 여자 생각이 나니까 여자를 그려 놓고 그냥 집에 가서 자고선 저녁나절에 나왔더니 아, 거기 예쁜 여자가 그대로 말을 하더랍니다, 그려 놓은 데서. 그래서 거기에서 말을 하는 소리 듣고 '이 그림에서, 내가 숯으로 그려 놨는데 말을 하네!' 하는 동시에 그 여자도 없어지더랍니다.

그런데 그려 놓은 그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모든 그림 그릴 때는 또 살아나갈 때도 생각하지 말라." 하고선 그냥 없어졌거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인생 살아나가는 것도 생각 안 하고 그저 가다가 보기 좋으면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총각은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지금으로 치면 미술이라고 하죠. 그림 그리기 시작을 해서 그저 어디고 붓과 먹, 종이만 사 가지고 짊어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산하도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그리고 다니면서 어느 산중에 들어서니까, 노인네 한 분이 혼자 딸을 잃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울고 있거든요. 아, 시골 초막집에서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끌어다 놓으면서 "왜 우시느냐?" 하니까 자기 딸이 이렇게 나 혼자만 남겨 놓고 죽었으니 나는 어떻게 살라느냐고 울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살지 않느냐고 그러더랍니다. 딸이 바느질품을 팔았는데, 인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거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라고, 따님이 죽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선 그날 저녁에 바로 큰 헝겊에다가 종이를 붙여 가지고 아주 찢어지지 않게 만들어서는 거기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집 딸을요. 야,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딸과 똑같이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안으로 그 딸을 착 놓고 보니까 아이구, 그 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딸을 그대로 그렸어요. 큰 배를 하나 그려 가지고 거기 떠억 앉혀 놨단 말입니다. 그러곤 물도 그려 놓고 나무도 그려 놓고 처억 벽에다 걸어 놓고 하는 소리가, 여기서 딸이 저녁이면 나와서 항상 밥을 해 줄 테니 비밀로만 하라고, 나는 딸을 봤다든가, 딸이 이렇게 잘해 준다든가 이런 거를 비밀로 하라고 이렇게 그 그림쟁이가 일러 주고는 갔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그 딸이 거기서 나와 가지고선 고깃국도 끓여 주고 뭐, 밥도 해다 주고 다 하고 그냥 또 새벽녘이면 그리로 싹 들어가면 고만이야.

그럼 그 그림 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기에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심과 유심이 둘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무심이라면 유심이고 유심이라면 무심이니, 아까 얘기했죠. 무심도 아니요, 유심도 아닌 그 누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심도 아니고 무심도 아닌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그림 하나를 그린다 할지라도 산 그림이요, 글자 하나를 쓴다 하더라도 산 글이요, 말 한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산 법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십시오. 허허허…. (대중 웃음, 박수) 내 손이 그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진짜 참나 손이 내 손을 이용해서 그린다는 생각을 꼭 믿으세요, 그렇게 주인공을. 그럼 꼭 거기서 살 길이 나와요.

질문자2(남) 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거의 공통적인 의문과 생각일 걸로 알고 제가 스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삶이랄까 생명이랄까 궁극적인 의미, 아니면 인간으로서 그 존재의 의미를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어떤 스님께 많은 말씀을 들어도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많은 노인 어른들이 "아,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뜬구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럼 과연 인생이 그렇게 뜬구름 같은 것이고, 그저 주어진 생명을 시한부까지, 언젠진 모르지만 그때까지 유지하고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과연 인생인 것인지, 늘 거기에 어떤 답을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스님께서 과연 우리 인간의 궁극적 삶, 아니면 존재의 의미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그것을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드렸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지금 물건들이, 종이나 비품이 많이 나갑니다. 헌쇠든지 넝마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죠, 종이도 그렇고. 그것이 재생돼서 나오죠? 많은 게 재생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금도 반지가 됐다가 가서 팔면 금방으로 가져갑니다, 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도 재생이 돼서 다시 나옵니다. 귀고리로도 나오고 팔찌로도 나오고 반지로도 나오고, 이렇게 다른 물건이 돼서 다른 이름이 돼 가지고 나오죠. 그 다른 이름이 돼 가지고 다른 물건이 돼 가지고 나올 동안만 안 보이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때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자기 수술을 하는 걸 보고 있을 때가 있죠? 허허허…. 그리고 그게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재생돼서 나온 것을 지금 보시면

☞ A18면으로 계속

신화 종합 불사

▷ 전통한옥 법당 철거, 개축, 신축
▷ 30년 경력 대목장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불모조각장인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범종 장인이 함께합니다.

범종 공장 개업 한정
파격가 할인 판매합니다.

- 석탑 5~7층 다수 있음 (5~3천만원)
- 수익형 기도처, 서울 양도 21억(2억, 월 1천만원 세있음)
- 강원도 철원, 대지 4.800평, 대웅전, 삼성각 등 건물 800평, 전통 한옥 목조 건물임 납골당, 수목장, 요양시설 등 전환가 양도가 40억원
- 안성, 전통 한옥, 특 A급. 대지 1,600평, 건평 140평, 사찰, 연수원 등 전환 가능. 양도가 25억 급매
- 서울시내 전통사찰, 부지 1,200평 양도가 120억원, 잔고 증명 요함
- 의정부, 사찰 대지 4,800평,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위치 좋음, 양도가 15억원
- 그 외 다수의 사찰, 또는 매물 등이 있습니다.

010-6545-2020

가야사 도량 약사여래 부처님을 친견하세요

가야사 약사여래 부처님 도량에 지극지성으로 불공드리시면서 소원하시고, 백병의 난치병과 연관된 차를 드세요.
성태산 성수 부처님 원력으로 가피가 바로 옵니다.

가야사 도량에 오시면 언제라도 숙박이 가능하며 불공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각종 종양 차법

- 위 암 : 미후도 괴전우 요자 옴지 차
- 폐 암 : 인동화 천문동 백합 길경 차
- 신장암 : 목통 옴지 토사자 불수 차
- 간 암 : 인진 제조 다슬기 연교 달래 차
- 유 암 : 산자고 조각 화고초 차
- 뇌 암 : 불환금 강황 옴지 불수 차
- 장 암 : 괴화 지실 루로 옴지 차 가자 차
- 직장암 : 괴각자 지실 괴전우 가자 차
- 식도암 : 권백 차, 불수 차
- 혈액암 : 불환금 연교 루로 옴지 차
- 자궁암 :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옴지 차, 불수 차
- 당뇨합병 : 생지황 옥발 여주 불환금 불수 차
- 피 부 : 연교 조각자 옴지 차
- 조갑암 : 권백 차, 불수 차
- 통 풍 : 요자 옴지 불수 차

문의 전화 : ☎ 041-943-5505
도량 주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608-1번지 가야사

힐링 에너지가 아주 좋은 명당터 인도합니다

산 수 : 배산임수(背山臨水), 전저후고(前低後高) 장풍득수(藏風得水), 남 동 향(南 東 向)

입 지 : 양지 바르고 아늑하며 앞이 탁 터져 있고 일조량이 적당하며 통풍이 잘 되고 주위 사방에 호위하는 산들로 싸여 있으며 산맥이 평지 쪽으로 유유히 뻗어 내려 있다. 500여평씩 4~5m의 단차를 두고 둘로 나뉘어 있으며 심한 가문에도 마르지 않는 지하수가 항상 나옴

접근성 : 서울 요금소에서 1시간 20분 (평일 기준) : 고속도로 104km, 자동차전용도로 7.5km, 마을길 2.5km로 최고의 접근성. 휴일에도 보통 1시간반 ~ 2시간 소요

용 도 : 힐링센터, 기도도량, 기도원, 암자, 요양원 등으로 최상의 요지

양도조건 : 980여평, 1필지, 관리지역, 건물 없음. 4억원

연락처 : 010-2723-3278

터 중심에서 아주 강한 치유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코드를 스캔하면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를 아는 분만 연락주세요.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모든 걸 거기다 부탁해 놓고 사세요

☞ A17면에서 계속

서도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최고의 바로 음,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고등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고의 인간이죠. 그리고 영혼이라는 그 말 자체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대로입니다. 그 생명 자체의 근본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습니다. 의식 자체는 바로 영혼이라고도 하고 혼백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식 자체입니다. 불성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 불성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의식 자체는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지만, 즉 말하자면 기름 또는 운전수, 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 허무한 것이 없습디다. 이 도리를 알고 보면 여러분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알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도 없어도 거긴 꽉 차 있고 꽉 차 있어도 아무도 없고 이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많아도 그 빈껍데기만 있다면 없는 거죠. 자기라는 걸 모르고 말입니다.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세요.

댁은 고민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남들을 위해서 살아 줘야 해. 그러니까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게 아냐. 그러니 오늘부터는 '야, 주인공! 너 오늘 하루 참 잘 지냈는가? 오늘 하루도 또 잘 지내게 나를 잘 끌고 다녀야지. 내 주인공밖에는 나 끌고 다니는 놈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신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그렇게 모든 걸 거기다 부탁해 놓아요. 그러고 살아요. 그렇게 석 달만 꾸준히, 하여튼 그 사는 거 일체 다, 그렇게 하면 뭔가 자기가 느끼는 점이 있을 거야. 그럴 때 나한테 요다음에 오거든 얘기해 줘. 알았죠?

질문자2(남) 네.

큰스님 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살아나가는 도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지 말로 떨어지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도리를, 천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체의 질량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천체의 질량 속의 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쳤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죠, 뭐. 어떡합니까, 그거. 그러니 현실로 목마를 땐 꼭 마셔야 되겠기에 이러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 산 불교니까 산 불교지 죽은 불교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첫째, 자기부터 알아야 하고 자기부터 믿어야 하고, 자기부터 이끌어 나가야 하는 그런 도리를 모르고서 항상 타의에서 구하고, 타의에서 항상 허무하게 생각하고 이런다면 안 되죠.

지금 노인네들도 이 도리를 알면 정말 머리가 허옇게 세었다가도 검어질 거예요. 왜? 걱정 근심이 없고 '야 참, 이런 게 도리로구나.' 그러고 그냥 기쁜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아마, 당장 밥 먹을 게 없어서 죽그릇에 숟가락을 몇 개 꽂아 놓곤 "야, 노인! 잡수시오!" 하고 갖다 놔도 '야, 이렇게 이런 것이 참!' 하곤 그걸 먹으면서도 허망하기는커녕 싱글벙글할 거예요, 아마. 허망한 건 아닙니다, 절대!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질문자3(남) 언제나 대자연의 진리를 체험하신 것을 글과 말씀으로써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기 주인공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던 생, 노, 병, 사 중에 늙고 죽는다는 것에는 의문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도 제 마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문점이 바로 생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생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업이다. 네 업연에서 네가 여기 나왔다.' 그러니까 '그 업연이 뭐냐.' 그랬더니 '제8 아뢰야식에 네가 전생에 지은 업연이 있기 때문에 너의 부모와 인연이 있어서 왔다.' 이러는데 제가 지금 계곡에 빠진 게 뭐냐 하면, 내 전생이 뭐냐? 그럼 내 전생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실 분이 계셨으면 했는데 마침 스님이 오셔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웃음) 그것을 지금 스님께서는 "모든 걸 다 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걸 다 놓음으로써 좋기는 좋은데 한 가지 뒷꼬리는 아직까지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스님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큰스님 지금 전생에 대해서 물어 오셨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전생이 없었다면 지금 현생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전생이 없다면 송장일 것이고 육신이 없다면, 또 보이지 않으면 무효일 것입니다. 또 생각이 없다면 목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이 없는데 어떻게 현생이 있겠습니까? 바로 곧 전생이 현생입니다. 현생이 전생이고요. (대중 웃음) 그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선생님 그대로예요. 우리가 죽을 때 허무하지 않다 하는 것은 옷이 헐었으니 아무 데나 앉아도 그냥 괜찮거든. 이제 늙고 그랬다고 해서 이 옷이 헐었다고 그러는데요, 아무 데나 앉아도 그냥 흙 묻었다고 걱정할 거 없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 옷 입는 거보다 헌 옷 입는 게 아주 좋죠.

그래서 아무리 노인네가 늙었어도 허무하지 않은 겁니다. 이 늙었다는 것이 이게 옷이 헐었다는 얘기인데 이왕 늙어 버렸으니 아무데나 앉은들 어떠랴 이러고요. 참, 그 마음이 지혜롭고 크면 이 우주 안에 그 마음이 꽉 찼는데 무엇이 부러울 게 있으리. 그러니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은 밥 굶을 필요도 없고 용돈 안 줄 사람도 없어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누가 어디서 나와도 나와서 우리가 허무하게 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해 보십시오. 그렇게 즐겁습니다. 즐거운 거보다도 허무하거나 그렇지 않다고요. 늙어지면 뭐, 허무하다고 그러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요새 허무하다는 소릴 더 잘해요. (대중 웃음) 노인네들은 외려 덜해요. 그것 참, 어떻게 거꾸로 됐는지 그래요. 지금 이분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무하다는 게 왜 허무한가 그거부터 알아보려면 나부터 알라 이겁니다.

질문자3(남) 근데 왜 절에서는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 하고 업을 강조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영가 천도 내지 운동을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고 이게 혼동이 와요.

큰스님 아이, 혼동할 거 없어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꼭 천도를 해야만이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그런 근기를 가진 사람 앞에는 잘 차려 드려야죠. 안 그래요?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밥 한 그릇 놓고도, 자기 먹는 밥 한 그릇 놓고도 천도를 하고 또 남아. 아, 사람 근기에 따라서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도 잘못되는 게 없고 저것도 잘못되는 게 없어요. 하하하. 안 그렇습니까? 또 이것 보십시오. 사람이 상을 크게 차려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뭐 뭐뭐 비싼 걸 사다 놨는지 싼 걸 사다 놨는지 그걸 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다 놓은 것은 혼백도 다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하하. (대중 웃음)

제사를 지내는데 며느리가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거 안되겠거든. 남편이 돈 십만 원을 주는 걸 가지고 오만 원은 떼 놓고 오만 원 가지고 가서 장을 다 봐 왔단 말입니다. "여보, 장 봐 왔소? 어머님이 잘 잡숫던 것도 사 오고?" 그러니까 "예." 그러기에 아들은 그런 줄로 알고 좋아서 인제 그랬는데, 상을 차려 놨어요. 싼 거를 사다가 이렇게 해 놨거든. 그래도 그 아들은 그것을 의심 안 하고 그냥 지극한 마음으로 했고, 며느리가 그렇게 싼 거를 그만큼 해 놨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만큼 차렸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 그날 저녁 꿈에 "얘야, 네가 싼 것만 요렇게 해다 놨으니 지금 너의 할아버지도 모두 계신데 내가 가져갈 것도 없느니라." 아, 그러거든요. 그러고 꿈을 딱 깼어요. 그래서 날더러 와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그러기에 허, 내가 웃었어요. 하하하. 세상에 자기 마음먹는 대로 조상도 알게 돼 있고 우주간 법계에서도 알게 돼 있고 보살도 알게 돼 있고 부처님도 알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아직 진화가 되지 않은 어떠한 짐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시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을 통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그만큼 아는 사람이 이것을 통해 보면 그쪽에서 그때서야 "아하!"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어 주니까 그쪽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영령들도 그래서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도시킬 때 여러분이 상 하나 차렸다고 해서 그런 것만 생각지 마시고, 이 모든 걸 둥글려서 마음의 원을 그려서, 원으로서 그 원심력을 생각하면서 둥글려 놓는다면 이 원 속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일체가 다 있는데 아니, 뭐 그리운 게 있겠습니까, 거기? 예? 아니, 이 세계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있는데 모자랄 게 뭐 있겠습니까, 원을 그려 놓으면. 그 원심으로서 제사를 지극하게 드린다면 아마 가게도 도매상이고 또 어느 호텔이고 음식점이고 뭐, 그런 데로 아니 다니는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마음 쓰는 자손들의 영령들, 조상들은 그냥 항상 뷔페식 하는 데 가서 잡숫고 상점에 가서 항상 자기 가지고 싶은 대로 갖고 또 상점에 가서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입을 겁니다, 아마. 벽도 없고 봇장도 없으니까. 물도 없기 때문에 건너갈 것도 없고 오고 가고도 없이, 시간 공간도 없이.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을 넓게 쓰세요. 무슨 요거 하나 있다, 요거 차렸다 하면 영령들도 조상들도 요거 하나 차린 것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넓게 가지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질문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린 거지 업이 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생각을, 이 환상천을 훌쩍 뛰어넘고 또는 그러한 기복적인 생각에서 훌쩍 뛰어넘으세요. 과거도 없고 현실도 찰나 생활이니까 없고 미래는 안 왔으니까 없고, 아예 없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좋게 생각하라. 좋게 생각하면 그대로예요. 아시겠죠? 쓸 것도 없고 씌울 것도 없는 겁니다. 부처님이 벗겨 주려고 애를 썼지 씌워 주려고 애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린 쓰지도 말고 누구 씌워 주지도 말고 그럽시다.

질문자3(남) 예. 그러면 그렇게 됨으로써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스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는 마음이 굉장히 좋은데 나가면 또 달라져요. 상대편이 공격을 해 옴으로써, 아니면 내가 공격을 행함으로써, 바로 이게 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습을 어떠한 수행 과정에서 없애야 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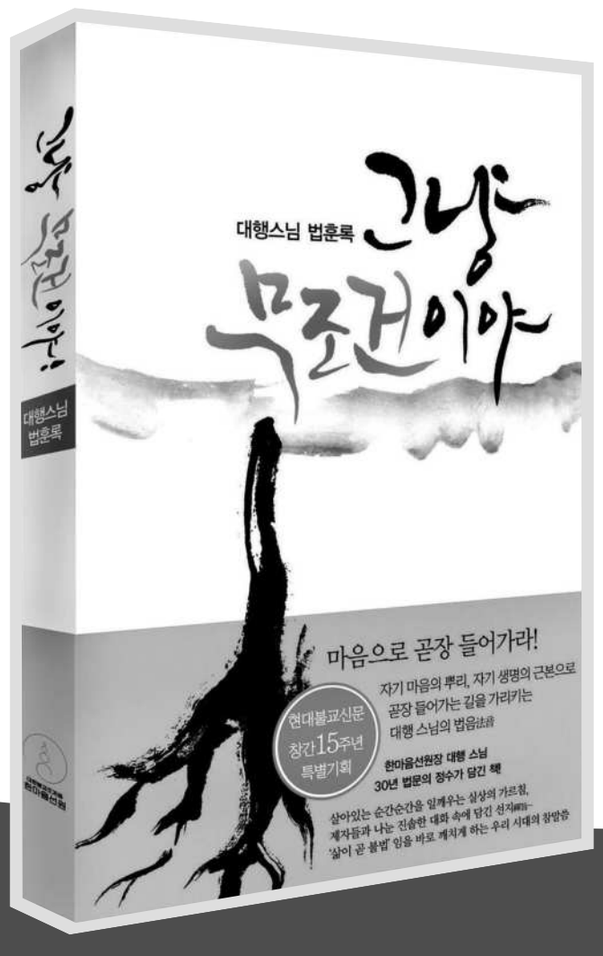
큰스님 이렇게 하세요. 어떤 악이 나오더라도 악도 그놈이 하는 거고 선도 그놈이 하는 거고 뭐, 별생각이 다 드는 것도 '아유, 이런 생각 드는 것도 내 주인공밖에는 생각나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없애는 것도 거기밖에는 없지.' 이렇게 모든 건 거기다가 그냥 밀어 던지세요. 지금 처음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줄창 해 보세요. 요다음에 또 내가 말할 거니까요. 그리고 또 좋을 거니까요.

질문자3(남) 글쎄, 그렇게 스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그러면 해 나가는 게 참, 물렁해 가지고 주위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저런 바보 천치! 저런…." 이렇게….

큰스님 이렇게 하세요. 말을 하되 유순하게, 저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을 누가 하지 말라고, 바보처럼 비켜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되 하지 말고' 이 소립니다. 그러니 말을 하되 이 마음속으로다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그대로 말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을 하려면 '말을 하되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되 말을 하라' 이거죠. 땅을 파되 파지 말고 땅을 파지 말되 땅을 파라. 허, "달 스님이 왔는데 인사를 하되 인사를 하지 말고 인사를 하지 않되 인사를 해라." 이랬으니 거 참, 우리가 요런 거를 자꾸 토론하고 살다 보면요, 한바탕 울 때가 있겠죠.

> 야, 주인공! 너 오늘 하루 참 잘 지냈는가?
> 오늘 하루도 또 잘 지내게 나를 잘 끌고 다녀야지.
> 내 주인공밖에는 나 끌고 다니는 놈이 없으니까.

※위 법문은 1989년 6월 18일 뉴욕 한인회관 초청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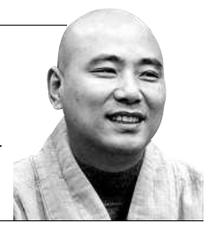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불교적 해법은



선업 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스마트폰 이용 조사' 따르면
청소년 15.2% 중독 위험군
연령대 낮아지고 女 더 심각

고위험군, 수면 · 학업에 장애
대인관계 어려움, 심리 불안도

포교원 인성 프로그램 공모서
중독 해소 관련 방안 개발해야
"청소년 심성회복 등불 될 것"

올해도 어김없이 '2018년 인터넷 ·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가 발표되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학령전환기(초4 · 중1 · 고1) 청소년 129만15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2%에 해당하는 19만6337명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라도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19만 명이 넘었으며 두 가지 모두에 중독된 '중복 위험군'도 6만4924명이나 되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 ·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여학생의 중독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증상으로 보면, 인터넷 이용 고위험군은 대인 관계가 사이버 공간에 한정되며, 하루 3~4시간 이상 인터넷에 접속하다보니 학업에 곤란을 겪거나 우울함을 느끼기 쉽고 인터넷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 고위험군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내성과 금단증상이 생겨 수면, 학업, 건강 등 일상생활에 장애를 경험하며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집착하여 학업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다.

경전에서는 이런 청소년의 특성을 "눈이 불타고 있다. 귀가 불타고 있다. 몸이 불타고 있다. 결국 마음이 불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원인의 측면으로 보면, 첫 번째로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과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주로 쓰는 도구는 스마트폰이다. 피로를 풀기 위해 아이들은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두 번째는 발달에 따른 심리 내적 원인을 들 수 있다.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진로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신감과 열등감 사이에 고민도 늘어나게 된다. 또래 집단의 압력은 스마트폰 사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양육을 위한 부모의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그만 일에도 쉽게 상처 받는 청소년 시기이다. 누른다 싶으면 그만큼의 격한 반발이 수반된다.

세 번째는 점점 담화 욕구가 줄어가는 환경적 요인이다. 질문이 줄어 입이 닫히면 생각과 마음이 닫힌다. 질문과 답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허용되지 않는 입시 위주의 청소년기이다. 열린 사고가 차단된 아이들에게 담화 욕구는 충족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여성가족부에서는 인터넷 ·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불교계의 대응책이 더 주목할 만하다. 바로 조계종 포교원에서 인증하는 인성프로그램 공모전이다.

이 공모전의 주제를 청소년의 과의존 해소 프로그램을 개발로 하고 그 내용도 불교사상에 나오는 삶의 변화를 뜻하는 '전의(轉依)'나 '전환법(轉換法)'을 사용하여 의존하고 있는 것에서 풀려나도록 한다면 그 자체로 맞춤형 해결책이 된다.

사찰, 단체, 기관 및 개인이 힘을 합쳐 불교수행법을 활용한 의존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를 검증해 내면 새로운 치유용 플랫폼의 탄생과 함께 훌륭한 청소년 심성회복의 등불이 될 것이다.

社說

불교계 환경운동에 관심을

최근 다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문제는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고, 라돈 침대와 대구 수돗물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들은 모두 우리 시대의 환경문제와 직결된다.

그래서일까. 불교계의 환경운동들도 조금씩 활기를 띄는 모양새다. 불교환경연대는 여주 신륵사, 여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지난 6월 23일 신륵사 앞 남한강가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버드나무 심기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수질을 정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버드나무를 심어 오염된 4대강을 치유한다는 게 법회의 목적이었다.

한국사찰림연구소는 꾸준한 사찰림 탑방을 통해 한국 사찰림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보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숲바라밀본부를 통해 불교계에 숲전문가를 파견한다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들이 참여하는 생명탈핵실크로드순례단은 반환점을 돈 생명탈핵도보순례를 하반기에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세계생명헌장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의 환경운동은 2000년대 초반 한국환경운동을 이끌었다. 수경 스님의 '새만금 3보1배', 지율 스님의 '천성산 도롱뇽 소송 · 단식' 등 굵직한 이슈 파이팅부터 정토회의 '빈그릇운동'과 같은 실천운동까지 다양했다.

다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불교계도 다시 환경 이슈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활 속 환경문제를 통해 대중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들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불교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

故김재일 10주기, 재가불교 쇄신 기회로

2008년 6월 한국불교계는 재가불교의 샛별을 잃었다. 바로 김재일 법사의 타계였다. 김재일 법사는 한국재가 신행운동의 선구자였다. 1949년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20대 청년시절 조계사 서울불교청년회에서 활동하던 그는 1982년 마침내 불자들을 위한 혁명적 교육에 앞장섰다.

동산불교대학은 교리강좌부터 불교미술, 한문, 다도, 무용 등 종합적인 불교센터로 발전했다. 이는 한 재가불자의 원력에 의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 씨앗이 됐음은 분명하다.

혹자는 현재 한국불교의 위기는 승가의 위기뿐만 아니라 재가불자의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모두가 승단을 바라보기만 할 뿐, 故김재일 법사와 같이 재가법사로서 불자교육과 신행의 돌파구를 만드는 이가 손꼽을 정도로 줄었기 때문이다.

그의 타계 10년을 맞아 재가불교의 새로운 바람이 일기 원하는 까닭은 바로 현재 불교의 위기가 더욱 피부에 와닿기 때문이다. 그가 남긴 다양한 사업들이 아직은 크게 펼쳐지지 못했지만 문화포교, 생활포교, 교육 등 불교 전반에 걸친 발자취는 우리 곁에 아직 짙은 향취를 풍기고 있다.

그는 평소 "자신을 수행하고 남에게 향기로운 일을 하며 늘 자연을 지혜롭게 대하자. 이것이 붓다가 전하는 행복"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우리들에게 그의 10주기가 남기는 메시지도 이것이다. 작금의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수행하고, 남에게 향기로운 일을 하고 있는가 반문하고 싶다. 젊은 시절 가진 원력을 평생에 걸쳐 실천한 故김재일 법사. 그와 같은 대원력을 가진 재가불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길 간절히 기원한다.

발언대

예멘 난민 논란

최근 제주도에 예멘인이 대거 입국, 이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난민 수용'과 '수용 반대'의 입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이에 본지는 불교계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난민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국제난민협약 준수해야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난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는 제네바 난민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하는 회원국이다. UN이 지정한 국제협약을 우리 마음대로 어길 순 없는 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불교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부처님께서도 사람은 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셨다. 결국 국제적인 조약에 의해서건 또는 종교적 측면에서건 우리는 난민들을 배제할 명분이 없다.

물론 사회 일각에서는 난민들의 종교를 이유로 폭력적이라거나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하지만 이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방어벽의 논리일 뿐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한국을 찾아온 그들을 예비범법자로 이해하는 것은 몰지각한 행위이자 선부른 예단이다. 제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민족의 인성으로 치부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다만 정말 문제를 발생시킬 만한 인물이 있다면 국가 규정을 통해 제외시켜야 한다.

지금의 제주도 난민 문제는 사실상 우리 스스로 초래했다. 관광을 명목으로 무비자로 사람들을 받아들인 업보이기도 하다. 그들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갈 때도 비슷한 행위를 했다. 그것을 막은 미국을 우리는 비판하지 않았던가.

"우리도 난민이었다"



양한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

난민은 얼핏 생각하면 한국서 낯선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아니다. 한국 난민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다.

일반적인 상식 차원서 난민 그 자체는 돕고 보호해야할 대상이다. 인도적 · 윤리적 차원서도 마찬가지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일제강점기 시절을 겪었기에 난민과 관련이 있다. 일제 침략 시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하와이, 카자흐스탄 등 자타의에 의해 온갖 나라들로 건너갔다. 전쟁이라는 위협과 목숨 보존의 문제, 여성의 경우 신체적 안위의 문제, 굶주림 문제로 인해 타국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난민들. 이들은 마땅히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맞다.

최근 제주 예멘 난민을 두고 이웃 종교계(개신교)가 스스럼없이 "무슬림은 폭력적이다" 등 혐오적 표현을 남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무슬림 난민은 여성들을 강간한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유포하고 있다. 난민은 난민으로 봐야 된다. 예멘 난민에 대한 혐오발언은 삼가고, 허위 루머들은 경계해야만 한다.

한편으로 국민과 제주도민이 걱정하는 위장취업 문제, 무차별적 난민 수용 등의 문제도 있다. 부작용들은 제도적 보완의 문제이지, 난민을 내쫓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다. 우리 불자들도 이번 기회에 난민의 아픔에 대해 부처님 가르침 아래 돌아보아야 한다. 난민 문제가 무엇인지, 자비심을 가지고 바라보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황금룡을 집안으로

황룡나한과 복호나한

황룡나한은 용위에 큰복을 실어다 줄 것이며
복호나한은 악귀를 물러치고 삼재를 소멸하여 들어온 복을 지켜 줄 것입니다.

나한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리며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황룡나한은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하며, 황금룡을 타고 다니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해 주신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치며 삼재을 소멸하여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어 준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8명의 나한들에게 부탁 하시기를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줄것을 당부 하였으니 16명의 나한들은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설파하고 황룡나한과 복호나한은 거처를 정하지 않고 세상을 두루 돌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하고 악을 몰아내며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고 있다.





- 족자 크기 : 세로 120cm × 가로 54 cm
  족자 1개 금액 : 10만원
  족자 2벌 구입시 19만원에 드립니다.
- 그림 크기 : 세로 67cm × 가로 44 cm
  금액 : 그림당 7만원
- 구 입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18나한 설명서 를 보내드립니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5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야구도 인생도, 버리고 낮춰야 승리한다”



테마人 이건열
동국대 야구부 감독(55)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누군가 그랬다. 야구는 인생과 같다고. 홈런 같은 한방도 있지만, 대부분 차근차근 출루해 1, 2, 3루를 돌아 홈 플레이트를 밟아야 점수가 난다. 이기기 위해서는 계속 점수를 내야 한다. 9회 말까지 매 회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인생 역시 완생(完生)을 위해 하루하루 미생(未生)의 삶을 산다. 그 미생의 삶 안에서 우리는 매일 이기고 지는 게임을 반복한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그 스코어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완생의 삶이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미국 메이저리그 전설의 포수 요기 베라의 말처럼 야구도, 인생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부임 후 5년 만에 통산 100승을 달성한 이건열 동국대 야구부 감독(55)도 마찬가지다. 어려웠던 선수 생활부터 여러 구단을 전전했던 코치 시절도 모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완생으로 나아가려 했다. 그래서인지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100승 달성을 한 이 감독은 “기쁘기보다는 그냥 무덤덤하다”고 했다.

“다른 대학의 좋은 감독님들도 거의 100승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조금 빠르게 100승을 한 것일 뿐이에요. 비결이요? 그냥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100승 달성을 앞둔 건국대와의 경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경기에서는 현재 동국대 에이스 최이경 선수가 7이닝 무실점, 이어 나온 장웅정 선수 역시 나머지 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고 3회와 8회에 박형석 · 석호준 선수가 각각 타점을 올려 2대0으로 신승했다.

“초반에 점수를 좀 냈으면 편한 경기를 했을 텐데 생각하는 것보다는 엇박자가 많이 났어요. ‘100승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생각도 했는데 결국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잘 풀어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동국대 야구부 ‘제2 전성기’ 이끌어

지난 2013년 이 감독의 부임 이후 동국대 야구부는 ‘제 2의 전성기’ 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1980~90년대 대학야구의 강자로 군림했던 동국대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진한 성적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 감독 부임 첫 해에만 대학리그에서 3관왕을 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고 다음 해인 2014년에만 4관왕을 달성했으며, 현재까지 총 10회의 우승컵을 동국대에 안겼다. 특히 2014년의 대학야구 4관왕은 1977년 故 최동원 선수가 투수로 맹활약한 연세대 이후 37년만의 대기록으로 야구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이 감독 본인도 동국대 동문(경찰행정학과 82)으로 야구부 첫 우승의 주역이다. 1983년 대학야구 춘계연맹전 당시 건국대와의 결승에서 홈런 2방을 터뜨려 우승을 결정지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감독이다.

“프로야구에서 8번 우승을 했지만, 동국대 2학년 때 우승했던 것이 가장 오래 기억이 남아요. 특히 결승에서 우승하고 학우들과 동대문에서 역까지 걸어갔을 때의 추억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좋은 선수는 바른 인성서 나온다”

이내 궁금해졌다. 부임 이후 5년동안 우승 10회, 준우승 1회를 이끌어낸 비결은 무엇인지를 이 감독에게 물었다. 이 감독은 ‘인성’ 이라고 했다. 인성이 나쁘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사실 요즘 대학야구 선수들의 기량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팀 실수를 줄이고 실수해도 빠르게 커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등의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선수들의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복장도 깔끔해야 합니다. 지방 원정 경기가서 트레이닝복, 슬리퍼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절대 안되고, 숙소 정리도 잘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시합에서도 자기 자신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인성을 중요시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팀워크 때문이다. 이 감독은 독불장군과 같은 개인 플레이를 용인하지 않는다. 자신이 좀 잘한다고 거만함을 보이거나 백업 플레이를 잘 하지 않으면 시합에 기용하지 않는 것이 이 감독의 원칙이다.

“선수는 시합에서 자기 포지션과 플레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다음 플레이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타석이든 수비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플레이들이 팀워크로 이어집니다. 팀이 우선이 되면 프로에 가서도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인성’ 을 강조하는 이 감독은 동국대에서 진행하는 명상 강좌들이 선수들의 인성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야구부원들 중 불자들도 있지만 다른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명상 강의는 필수 교양이기도 하니 대부분 수강하게 됩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종교를 떠나 명상 수업을 참 좋아합니다. 저 역시 심란하면 정각원에 올라가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몇 선수들도 틈틈이 정각원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패에서 나아갈 길을 찾다

이 감독은 우승과 인연이 깊다. 동국대 야구부의 첫 우승을 이끌었고, 감독 부임 후에는 10회 우승을 안겼다.

대학 졸업 후 1986년 해태 타이거즈(現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해 프로야구에 데뷔한 이 감독은 12년간 8번의 우승을 맛봤다. 특히 1991년 한국시리즈 우승 때에는 2방의 홈런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적지 않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한 번도 우승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은퇴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감독은 정말 우승과 인연이 깊다.

B2면에 계속

6월 16일 건국대와 경기서 승리
부임 5년 만에 통산 100승 달성
올해까지 동국대 10회 우승 견인
“매 게임 집중하니 여기까지 와”

1983년도 동국대 첫 우승의 주역
당시 동대문 퍼레이드 기억 ‘생생’
“내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기”

INSIDE

B3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선종사원의 좌선

B5 문화
불교중앙박물관 2018 특별전

B6 학술 · 문화재
신상환 대표, 용수 6대 저작 최초로 全譯


2013년 제69회 대학야구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직후 기념촬영. 이 해에만 동국대 야구부는 3관왕을 달성했다.


이건열 감독이 동국대 금강관 뒤에 마련된 배팅박스서 선수들에게 타격폼을 지도하고 있다.

불교명상 통한 인성 함양, 바른 선수 양성 효과

1985년 해태 입단, 12년 선수 생활
"주목받는 선수 아냐… 2군 강등도"
선수 시절 역경이 현재 위치 만들어
어려웠던 사람이 어려운 사람 알 듯
'이심전심' 리더십으로 선수들 교육

기본기 · 인성, 선수에게 제일 강조
인성 부족 선수, 기용 불가 '원칙'
학교 명상 교육 인성 함양 효과 커

"내게 불교는 마음의 고향 같아"
틈틈이 정각원서 명상 · 기도하기도
부인은 일간 군법당서 신행 생활



이건열 동국대 감독은?

1963년 4월25일 전남 함평 출생. 광주 월산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동성중학교, 군산상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해태타이거즈에 입단해 12년간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했다. 은퇴 후 일본 주니치드래곤스 코치 연수를 거쳐 SK, LG, KIA에서 코칭스태프로 활약했다. 화순고등학교 야구부 감독도 지냈다. 2012년 12월 동국대 야구부 감독을 맡은 이후 10차례 전국대회 우승을 이뤘다. 2015년 5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냈다.

'이건열 동국대 감독' B1면에서 계속

그렇지만, 이 감독 자신은 스타플레이어는 되지 못했다. 김성한, 장채근 등과 포지션이 겹치면서 출장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1997년 은퇴하기까지 12년간의 선수 생활동안 896경기에 출장해 2할 4푼의 타율을 기록했다. 주전 경쟁이 치열해 포지션도 자주 바꿨다. 투수와 유격수를 제외하고 모든 포지션을 뛰었다. 본의 아니게 '멀티플레이형 선수'가 됐다.

"말이 좋아 '멀티플레이'지, 그냥 떠돌이였어요. 주전 경쟁에서 미끄러진 것이죠. 심지어는 결혼 직후에 2군에 내려간 적도 있어요. 2군 가면서 1군 연습간다고 부인을 1주일동안 속였죠. 얼마나 슬펐겠어요. 야구가 너무 안 돼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 감독에게 정말 잊을 수 없고 힘든 시절이 또 있다. 군산상고 2학년 당시다. 월산초등학교와 동성중학교를 거쳐 군산상고에 진학한 그는 2학년 청룡기 준준결승에서 대전고와 맞붙었다. 연장 10회말 4대4인 가운데 1아웃에 상대팀 주자는 3루. 타자가 3루에서 들어오면 경기는 끝났고, 그렇게 되면 3학년 선수들의 대학 진학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다.

상대팀 타자가 친 땅볼을 3루수가 잡아 포수인 그에게 던졌고, 실수로 공을 놓치고 말았다. 경기는 그렇게 끝났다.

"3루수도 긴장했는지 불안한 송구였어요. 그 볼을 잡았어도 주자를 아웃시켰을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던 공을 놓친 것은 놓친 것이니까요. 그때 엄청 울었습니다. 같이 운동한 선 · 후배 동기에게 미안했습니다. 야구를 그만두고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날의 경기는 이 감독의 야구 인생에 큰 좌우명 하나를 새기게 됐다. '끝까지 정확하게 잡아라.' 이는 지금 자신의 선수들에게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후로 어느 경기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볼도 끝까지 따라가서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잡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선수들에게도 '확실하게 잡아라. 백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로 실수할 수 있다.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선수 어려움은 내가 잘 알지

'스타플레이어가 좋은 감독은 아니다.' 야구를 비롯해 어느 스포츠 계에나 적용되는 명제 중 하나다. 이 감독도 마찬가지다. 스타플레이어는 아니었지만, '명감독'의 반열에 올랐다. 부임 이래 졸업생 30명 이상을 프로야구에 진출시킨 것이 이를 보여준다.

이 감독은 선수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들의 어려움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이기도 해서다. 선수들에게 요구하고 강조하는 것은 인성과 기본기뿐이다. 두 가지가 돼야 앞으로의 선수 생활을 좋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을 이 감독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다.

"저는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선수 시절에는 투수, 유격수 빼고는 다 할 줄 알았어요. 코치 시절에는 2군 · 재활군 · 1군까지 다 거쳐 봤어요. 그러니까 기본기는 지도가 가능하죠. 한 포지션에만 있었으면, 그 포지션은 알아도 나머지에 대한 이해는 떨어져요. 그리고 저는 절대 선수들의 기를 죽이지 않아요. 저도 실수해보고 방황도 해봤어요. 어린 선수들이 실수하고 방황할 수 있는 거죠. 선수들의 어려움은 제가 겪었던 것들 입니다. 저는 선수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웠던 시절 경험들이 지금의 제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었네요."

불교, 내게 힐링을 주는 곳

이 감독에게 불교는 모태신앙이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였고, 부인도 일산 백마부대 군법당을 다니며 신행생활을 한다. 그래서 이 감독에게 불교는 '힐링'이자 '회귀처'다. 비워내고 집착을 버리는 공간이기도 하다.

"마음을 비우면 게임이 잘 풀려요. 제가 느끼는 건데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이기려 하고, 꼭 이겨야 되고, 욕심이 생기면 역효과가 나더군요. 실패하고 지더라도 '여기 와서 내가 많이 배우는 구나'하며 집착을 끊으면 도리어 일이 잘 풀리죠. 사찰은 제게 비움의 공간입니다. 제가 선수들에게 사찰에 가 볼 것을 권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말미 야구공의 실밥이 정말 108개인지 물었다. "야구공만 입니까. 안 세어 봤지만 야구장 라이트도 108개라네요. 그래서 야구는 번뇌의 종목"이라는 이 감독의 답변이 돌아왔다.

번뇌는 집착에서 나온다. 상황이 바뀌면 '나'라는 존재의 사고와 행동이 바뀐다. 공 하나, 타석 하나, 경기 하나가 집착을 낳는다. 없었던 집착이 생기고 이것이 번뇌가 된다.

야구인으로써 인생을 통해 이 감독은 알게 됐다. 야구도 인생도 완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야구와 인생의 길이다.

"야구란 건 인생이지. 승부는 중요하지만 절대 매달려선 안됩니다. 사람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야구는 인생이야."

〈바로 잡습니다〉

제1202호(6월 27일 자) B2면 '그대는 자비보살-정분남 회장' 편에서 '만불회 회주였던 학인 스님'을 **'만불회 회주였던 학성 스님'**으로 바로 잡습니다.



남악마전… 좌선한다고 부처가 되는가?

〈南嶽磨塼〉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⑫ 선종사원의 좌선



하루 네 번… '四時坐禪'
정례화…북송 말~남송 초기
1103년까지 좌선, 개인 일임
좌선보다 선문답 과정서 오도
좌선은 번뇌 망념 소멸 위함
禪定보다는 반야지혜 강조

1. 좌선의 정례화

선원에서는 하루 네 번 좌선을 한다. 새벽 · 오전 · 오후 · 저녁. 하루 4회 좌선한다고 하여 '사시좌선(四時坐禪)'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국 · 한국 · 일본이 똑같다.

그런데 뜻밖에도 청규에서 사시좌선이 제도화된 것은 북송 말이나 남송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 즉 북송까지는 사시좌선이 정례화, 제도화하지 않았다. 당 · 북송시대에 좌선은 개인의 의향에 맡겼다. 즉 좌선을 하던, 하지 않던, 또는 좌선을 많이 하던 적게 하던, 그것은 개인의 자유였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나라 선원의 수행방법은 오로지 좌선인데, 선원에서 좌선을 정례화, 제도화하지 않고 개인의 의향에 맡기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당 · 북송시대까지는 적어도 장로종색 선사가 편찬한 〈선원청규〉 시대 즉 1103년까지는 좌선을 하던 하지 않던, 많이 하던 적게 하던 그것은 개인의 의향에 맡겼다.

중국 선종사에서 처음으로 선원총림의 법전인 청규는 〈백장청규〉이다. 오늘날 〈백장청규〉의 원본은 사라지고 그 대략만 양억(楊億, 974~1020)의 〈선문규식(禪門規式)〉에[1] 전해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좌선에 대해서 하루에 몇 번, 몇 시간 좌선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지 않았다. 적게 하던 많이 하던, 또 횟수나 시간의 다소(多少) 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의 생각에 맡겼다.

"입실(入室, 독참. 개별적인 지도)과 청익(請益, 거듭 가르침을 청하는 것)을 제외한 그 나머지(즉 좌선)는 수행자의 근태(勤怠,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맡긴다. 많이 하든(上) 적게 하든(下) 그것은 정해진 규정(常準)에 구애를 받지 말라." (楊億), 〈禪門規式〉. "除入室請益, 任學者勤怠, 或上或下, 不拘常準."(〈전등록〉 6권 백장회해 章 부록에 수록. 〈대정장〉 51, p.250c).

좌선에 대해서는 근태(勤怠, 부지런함과 게으름), 즉 개인의 생각 여하에 완전히 일임(一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청규인 장로종색의 〈선원청규〉 10권(북송 1103년 편찬) 〈백장규승송(百丈規繩頌)〉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는데, 여기서도 좌선 횟수나 시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루에 몇 번, 또는 몇 시간 좌선하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혹은 하지 않든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겼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상당법문 · 조참(朝參, 아침법문) · 만참(晩參, 저녁법문) · 독참(獨參, 개인지도) · 보청(울력)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청익(請益, 별도 질문)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누구든 공적인 이유 없이 빠지면 벌칙이 가해졌다. 그러나 좌선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규정도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인가?

당 · 북송시대까지 좌선이 정례화 되지 않았던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많은 울력, 고된 울력으로 인하여 좌선을 정례화할 수 없었던 점이 있고, 하나는 반야지혜를 중시했던 조사선의 입장에서는 좌선보다는 반야지혜 · 정견 · 정법안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여러 가지 어록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남악마전(南嶽磨塼) 공안'이다.

남악회양(南嶽懷讓)선사가 열심히 죽어라하고 좌선하고 있는 제자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의 암자(전법원) 앞에 가서 벽돌을 갈았다고 하는 '남악마전(南嶽磨塼) 공안'이다. 당 현종(玄宗) 개원(開元) 연간(年間, 713-741), 마조도일은 전법원(傳法院)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날이면 날마다 부처가 되고자 좌선(坐禪)을 하고 있었다. 답답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스승 남악회양이 인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마조도일에게 가서 물었다.

"대덕이여! 좌선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大德坐禪圖什嚈)?" 마조가 대답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圖作佛)."

남악이 벽돌 한 개를 가지고 그의 암자 앞에 가서 돌에다 갈았다. 그러자 마조가 와서 "스님, 벽돌을 갈아서 무엇에 쓰려고 하십니까?" 남악이 말했다. "이걸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그러네(磨作鏡)."

마조가 말했다. "스님,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磨塼豈得成鏡耶.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노장이 망령이 들었나)" 이에 남악이 말하기를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다면, 좌선을 해서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坐禪豈得成佛耶)?"

마조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세를 바로 하고 정중한 말투로 여쭈었다.

"스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악이 말했다. "사람이 수레를 모는 것과 같아서,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하겠는가, 소를 때려야 하겠는가?" 마조도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0방을 맞은 것이다.

남악이 계속 말했다.

"그대는 앉아서 선(禪)을 배우는 것인가, 앉아서 부처를 배우는 것인가? 만일 앉아서 선을 배운다면 선은 앉고 누움에 있는 것이 아니요, 만일 앉아서 부처를 배운다면 부처는 일정한 모양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무주(無住)의 법에는 취하거나 버릴 것이 없다. 그대가 만일 앉아서 부처를 이룬다고 한다면 이는 부처를 죽이는 것이며, 만일 앉는 모양에 집착해 있다면 그 이치를 달성치 못하리라"

〈전등록〉등 전등사서에는 깨달은 선승들의 오도기연(悟道機緣, 오도의 계기)이 매우 많이 나온다. 약 1700여 가지나 된다. 그런데 전부 살펴보지 않았지만, 좌선을 하다가 깨달았다고 하는 선승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은 일대일의 선문답을 통해서 깨달았고, 혹은 영운도화(靈雲桃花)나 향엄격죽(香嚴擊竹)과 같은 기연(機緣)을 통해서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좌선을 하다가 깨달았다는 선승은 하늘에 있는 별 따기 만큼이나 찾아보기 어렵다.

2. 좌선(坐禪)의 정의

그렇다고 좌선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좌선에 대하여 보리달마는 돈황사본 〈이입사행론〉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만약 번뇌 망념[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좌선하는가/ 좌선할 필요가 없다(若心不起, 何用坐禪)"

좌선을 하는 것은 번뇌 망념을 억제 소멸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번뇌 망심[心]은 구체적으로는 '도거(掉擧)'를 말한다. 도거(掉擧)는 '떠오른다'는 뜻으로, 좌선한다고 앉기만 하면 번뇌 망상 등 잡념과 알음알이, 사량분별심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앉아 있지만 갖가지 생각, 공상 · 망상 · 회상(回想) 등 번뇌 망상의 소굴 속에 앉아 있는 것이 도거이다. 산란(散亂)한 마음, 잡념 등 마음을 흔드는 것들은 모두 번뇌 망념이다.

남종의 조사 6조 혜능은 〈돈황본 단경〉 '좌선(坐禪)' 편에서 "마음이 모든 경계를 만나도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坐)라 하고, 본성을 직시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不亂]를 선(禪)이라 한다(於一切境界上 念不起爲坐, 見本性不亂爲禪)."고 정의하고 있는데, 특히 '견본성부란위선(見本性不亂爲禪)'은 달마의 정의에 이어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실제 조사선의 비조라고 할 수 있는 남악회양과 마조도일 시대가 되면 좌선이나 선정보다는 반야지혜를 더 강조하게 된다. 좌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야지혜(선의 안목, 정법안)였기 때문이다. 또 깨달음의 정의도 좌선이나 선정(禪定)보다는 반야지혜를 이루는 데 있었다. 상당법어 · 조참 · 만참, 그리고 선문답이나 법거량, 독참 등 모두가 그 초점은 반야지혜를 이루는데 맞추어져 있다. 똑똑하지 않으면 사선(邪禪)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이것은 〈반야심경〉에서 지혜를 강조하여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 수행에 의지했기 때문에 아뇩다라 삼먁삼보리(최상의 깨달음)를 얻게 되었다(三世諸佛, 依般若波羅密多, 故得阿 多羅三 三菩提)"고 설하고 있는 것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즉 조사선에서는 '선지혜 후좌선(先智慧 後坐禪)' 방법인데, 이런 관점은 청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좌선을 정례화, 제도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한다.

남송시대에 이르러 좌선이 하루 네 번으로 정례화, 제도화 되었지만, 실제 좌선시간은 아무리 많아도 5시간을 넘지 못한다.

남송시대 간화선과 쌍벽을 이루면서(실제는 묵조의 굉지정각이 더 숭앙받는 고승이었음. 그러나 간화선에서는 대혜선사라고 함), 지관타좌(只管打坐, 좌선)를 수행방법으로 삼았던, 천동사 굉지정각의 묵조선에서도 하루 좌선 시간은 아무리 많아도 다섯 시간을 절대 넘지 못했다. 맡은 바 소임, 법문, 울력, 약간의 개인적인 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외에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야좌(夜坐) 제도를 두었는데, '야좌(夜坐)'란 취침 시간이 지난 밤 9시 이후의 개인적인 좌선을 말한다. 개인적으로 더 좌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취침 시간 이후에 조용히 밖에 나가서 좌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야좌는 그다지 많지 않다.

오늘날 우리나라 선원에서는 보통 하루 10시간 이상 좌선을 한다. 이는 달마 이래 선불교 1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 선종사원이나 일본 선종사원에서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다. 그 하나 때문에 한국 간화선을 높게 보기도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루 10시간 정도 좌선을 한다면, 깨달은 선승, 깨달은 부처가 적어도 당송시대나 남송시대 보다는 배 이상 출현해야 하는데, 천분의 일(一)도 그렇지는 못한 것 같다.

남악회양선사는 마조도일이 하루 종일 좌선에 매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인용함) "그대는 앉아서 선(禪)을 배우는 것인가, 부처를 배우는 것인가? (생략) 그대가 만일 앉아서 부처를 이룬다고 한다면 이는 부처를 죽이는 것이며, 만일 앉는 모양에 집착해 있다면 그 이치를 달성치 못하리라" 그것은 자칫 부처인양 흉내를 내는데 불과할 뿐이다. 부처란 반야지혜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처가 아니다. 그것은 범부 중생이다.

---

1) 양억(楊億, 974~1020)의 〈선문규식〉을 '고청규서(古淸規序)'라고도 한다. 백장화상이 만든 〈백장고청규〉의 서론 격이기 때문이다. 양억은 송초의 독실한 선종의 거사로, 수산성념(首山省念)의 제자인 광혜원련(廣慧元璉)의 제자이다. 성은 양(楊), 휘는 억(億), 자(字)는 대년(大年), 시호는 문공(文公). 양문공(楊文公). 〈대혜서장〉 왕장원(汪壯元) 1장에 나오는 양문공(楊文公) 대년(大年)이 바로 양억이다. 998년 진종(眞宗) 때 한림원의 학사가 되었다.

〈민족사 대표〉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마음 관하는 것은 마음이 마음 보는 것

〈觀〉



선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다

무각 스님 지음/호미 펴냄/1만 2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어렵게만 여기던 참선 수행법을 일상의 언어로 쉽게 깨우쳐주는 일종의 참선 입문서이다. 저자 무각 스님〈오른쪽 사진〉은 일찍부터 재가 불자나 일반인들의 마음공부, 곧, 참선 수행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런 결실은 17년 전 재가자들을 위한 참선 수행 도량 〈공생선원〉을 열어, 일반인들에게 경전 공부와 더불어 참선 수행법을 가르치는 한편, 최근에는 간화선을 중심으로 한 선불교대학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공생선원서 무각 스님이 '일상 속에서의 수행' 이란 제목으로 여섯 달 동안 법문 내용을 정리해 엮은 것이다. 처음 불교에 입문해 참선 공부 하는 초심자들을 위해서 불교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선(禪)이 무엇이고 왜 참선을 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 공부의 기틀을 잡을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공부 함에 있어 이론적인 알음알이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집중 몰입해 들어감으로써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일깨운다.

일상의 삶 속에서의 선 수행을 강조하는 저자의 책답게, 마음공부의 길로 들어서는 법을 일러 주되, 생활 속의 관계와 상황을 비유로 들면서 쉬운 일상 언어로 찬찬히 들려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이 이 책의 큰 장점이다. 법문을 정리한 것이어서 글이 더러 논리적 비약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 못할 부분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생동감이 느껴지는데다 글 맛을 살려 읽는 재미가 있다.

절에 다니며 아무리 법문 듣고 불교 서적을 읽고 해도 알 듯 모를 듯 어렵기만 하던 불교와 선수행. 하지만 이 책은 "진리는 '지금, 여기' 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한편, 불교의 핵심과 참선 수행의 요체를 소박하고 소탈한 일상 언어로 일러줌으로써, 독자 스스로 일상생활서 참선 수행의 길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게 안내한다.

"고상하게, 고준하게만 접하니까 부처님은 저 위에 거룩하시고 나는 저 아래에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삶입니다. 불교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는 지금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지금껏 참선 관련 책들은 많이 나왔지만 고담준론으로 일관한 것이 대부분일 뿐 첫 발걸음을 떼는 일반인들을 위해 기본을 일러 주는 책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선에 관심 많지만 어렵다는 생각에 선뜻 다가서지 못하곤 한다. 그러나 이 책은 일상 생활이 그대로 참선 수행의 재료가 되고 길이 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지적한다. 굳이 산중 사찰이나 선원에 가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선 수행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음도 깨우쳐준다.

참선이라면 "관(觀)하고 화두를 들고 집중해 용맹정진으로 뚫고 들어가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마음의 쉼, 곧, 자신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먼저 선행됨을 이야기하는 책은 드문데, 무각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믿고 마음에 맡기는 것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한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쉬게 하고, 그 마음에 맡기면서 생활 속에서의 간절함으로 깊이 몰입하는 것이 참선을 잘할 수 있는 과정임을 일깨워준다. 그러다 보면 생활하는 중에 부딪히는 일상의 난관들도 저절로 잘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행복하게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모두 마음 쓰기에 달려 있고, 지금 일어나는 한 생각이 자기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금 일어난 한 생각이 내 삶을 결정해
일상 속 수행이 가장 빠른 마음공부 길

무각 스님은 이 책에서 "생활을 떠나서 불교가 존재할 수 없으니,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아야 합니다. 삶을 떠나서 진리가 따로 존재할 수 없으니 우리의 삶 그대로가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대로 진리의 표현임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내가 불하나 켜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모두 밝게 삽니다."라고 말한다.

스님은 이어 마음 작용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마음을 관(觀)하는 것은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자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 작용, 일체의 경계, 순경계, 역경계, 생각 생각을 또 다른 마음이 놓치지 않고 주시해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생각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지금 무엇 하는지 여실히 알고 마음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는 것입니다."

한편, 저자는 참선 하는 데에서 수행 일변도로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경계하며, 재가 불자나 출가자 할 것 없이 일상의 삶이 수행의 근본임을 늘 되새기라고 강조한다. 옛 선사들이 그랬듯이,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수행을 점검하는 '스스로 마음을 믿고 맡기는 마음 쉼' 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참 나' 를 알아야 불교를 제대로 알고 참선도 주저함 없이 올바르게 할 수 있다. 무각 스님은 "선은 내가 부처임을 알고 부처로 사는 것으로, 오래 전에 임제 스님이 가장 수승한 수행이라고 역설하였듯이, 바른 안목(眞正見解)을 갖춰야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바른 안목' 은 자기 자신의 안목서 벗어나는 것이니, 자기라는 틀을 벗어 버려야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야 부처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저자는 "정견은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본래 부처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연기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본래 진리임을 자각하는 것이 바른 안목, 정견(正見)입니다. 정견은 자기 마음 가운데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갖춰져 있는 바른 안목에 의지하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살고 생각도 바르게 돌아갑니다."라고 '바른 안목' 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무각 스님이 이 책을 펴내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재가자들에게 올바르고도 손쉬운 참선 공부의 길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저자는 이 책이 전법(傳法)의 최일선에 선 포교사들이 불교를 제대로 알아 선을 이론이 아닌 체험으로 익힘으로써 바른 안목으로 포교할 수 있는 지침서로도 활용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조계종 포교원서 포교부장 소임을 맡았을 때 포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힌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앞뒤로 '읽기에 앞서' 와 '덧붙여' 라는 글을 곁들였다. '읽기에 앞서' 는 참선 공부를 처음 하는 이들을 위한 당부의 글이다. 1장은 불교가 무엇인지, 2장은 나는 누구인지, 3장은 무아, 연기 중도를 4장은 참선, 5장은 반조와 간화, 6장은 일상에서의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밝힌다. '덧붙여' 에서는 불자들이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기도, 천도재, 극락, 업식, 하심 등에 관해서 선(禪)의 견지서 쉽고 간결히 설명한다.

"고통 대처법… 내면의 참된 자신 믿어라"



호흡하세요 그리고 미소지으세요

저자 타라브랙/옮긴이 윤서인/불광 펴냄/2만원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있다. 우린 이것을 '첫 번째 화살' 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고통의 8할은 이 첫 번째 화살에 반응하는 '두 번째 화살' 때문이다. 몸이 아픈 것은 화살을 한 대 맞은 것이지만 몸이 아플 때 화를 내거나 우울해 하거나 불안해하면 바로 두 번째 화살을 맞은 것이다. 이 두 번째 화살은 자기혐오일 수도 있고 무기력일 수도 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조급해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혐오한다. 쉽게 지치고 비생산적이라는 이유로, 술이나 약물에 중독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혐오한다. 첫 번째 화살 밑에 놓인 고통스러운, 때로는 트라우마에 기초한 감정을 보살피는 대신, 우리는 자신을 향해 자기혐오라는 두 번째 화살을 쏜다. 자기 공격성이나 방어적 대응 무기력이라는 2차 반응을 조장한다. 그리고 이 괴로움을 지속시킨다.

주목할 것은 우리의 두 번째 화살은 대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첫 번째 화살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재하는 괴로움은 없는데 반응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는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한다. 이 책은 바로 두 번째 화살을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방법

다행히 이 두 번째 화살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 행위에 대해 우리는 자기 공격을 중단할 수 있다. 자신과 맞서 싸우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잠깐 멈춰서 주의를 심화하기로 결심하는 법을 익힐 수 있다. 사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책은 우리 주변의 누구나 겪는 그런 삶의 고난을 이야기한다. 임종을 앞둔 남편을 간병하는 아내, 갈등하는 부부, 육아로 지친 엄마, 암 투병의 외로움과 고통,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 성적 무능에 대한 공포,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 서로 불평하고 비난하는 가족, 끊임없는 자기혐오, 통제되지 않고 폭발하는 분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소통하지 못하는 수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직업과 외모로 인한 차별과 열등감 등등.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들이다. 이런 고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분노하거나, 자기비난에 빠지거나, 술이나 음식에 의존하며 괴로움에서 도망친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그릇된 귀의처' 로 잠깐의 위안이 될 뿐, 결국 더 큰 괴로움을 불러온다.

저자 타라 브랙은 말한다,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다' 라고. 고통만 바라보고 고통에 빠져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내면의 참된 자신을 믿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의 삶 그 자체에 깨어있으라고 한다. 삶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이 책은 불치의 유전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타라 브랙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녀의 내담자, 수련생, 지인들이 실제로 겪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며 받아들이지 않고 '그릇된 귀의처' 로 도피하려는 마음의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여러 가지 명상법과 성찰법을 소개한다. 매 장의 말미에 소개되는 다양한 명상법과 성찰법에는 전통적인 수행법도 있지만, '내적 공간 탐험하기' 와 같은 현대 신경학의 연구에 기반을 둔 새로운 명상법도 포함돼 있다.

RAIN –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저자 타라 브랙은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RAIN을 제시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Recognize), 삶을 있는 그대로 허락하고(Allow), 내면의 경험을 다정하게 조사하고(Investgate), 동일시하지 말라(Non-identification)는 것이다.

RAIN은 우리가 매순간의 경험에 습관적으로 저항하는 방식을 없애준다.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든, 담배를 피우든, 강박적 사고에 골몰하든, 저항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내적 삶과 외적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우리를 자신의 마음과 단절시키고, 살아 있는 이 세계와 실제로 단절시킨다.

실제 수많은 내담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삶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며 '고통' 에서 벗어났다. 이 기법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RAIN은 우리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끌어서 혼란과 스트레스를 약화시킨다. 그 네 단계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귀의할 곳을 제공한다.

현존하는 영적 지도자 100인 – 타라 브랙

저자 타라 브랙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세계적인 명상잡지인 영국의 〈왓킨스(Watkins)〉지가 선정하는 영적 지도자 100인(Spiritaul Leader 100)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잡지가 선정한 100명에는 교황 프란치스코(Francis), 달라이 라마(Dalai Lama),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등을 비롯해 세상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와 편안한 안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전작 〈받아들임〉은 세계 곳곳서 메가셀러의 반열에 올랐으며, 이 책 역시 출간 직후 여러 나라에 동시 번역되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틱낫한, 샤론 샐즈버그, 릭 핸슨 등 수 많은 명상지도자, 뇌과학자 등이 추천 했고 한국서도 제따와나선원 일묵 스님 등을 비롯해 많이 이들이 찬사를 보내고 추천의 글을 썼다. 위로가 필요하거나 위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할만 하다. 김주일 기자

▲저자 **타라브랙**은?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이자 대표적인 불교 명상가. 산타바바라에 있는 필딩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워싱턴 통찰명상 공동체를 창립했다. 35년 넘게 위빠사나(마음챙김) 명상을 위주로 수행하고 가르친 그녀는 미국 전역의 집중수행 센터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범종의 명가 성종사가 만들면 풍경(풍탁)도 작품이 됩니다

풍탁과 연꽃 풍경 모두 대·중·소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판도 물고기, 연꽃, 구름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선택 가능 합니다.



특징
❶ 체인이 동재질이 아닌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❷ 바람판이 두꺼운 황동재질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바람에 덜 흔들려 소리가 은은합니다.
❸ 바람판과 풍경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❹ 바람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람판 : 물고기, 연꽃, 구름)

견고하고 아름답고
소리 좋은 풍경(풍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람에 강하고 아름다운
최고급 명품 풍경(풍탁)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구입문의
성종사
☎ 02)733-6141

성보로 보는 통도사의 역사와 위상

불교중앙박물관 2018 특별전

'불보종찰, 통도사를 담아내다'

7월 3일(화) ~ 9월 30일(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보종찰 통도사의 성보들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전시된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오심)은 7월 3일(화) 개막식(오후 3시)을 시작으로 9월 30일(일)까지 '불보종찰, 통도사를 담아내다'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불교중앙박물관이 기획한 첫 번째 '교구본사전'으로, 불화와 불상, 공예품 등 통도사가 소장하고 있는 3만여 점의 성보 중 보물 7건, 경남유형문화재 15건을 포함하여 총 107건의 성보문화재 161점을 전시한다.

불교중앙박물관이 교구본사전을 기획한 의도는 각 교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소장하고 있는 성보문화재를 해당 지역을 벗어나 문화·예술·관광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전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불지종가, 국지대찰로 불리는 양산 통도사는 보다 많은 성보문화재를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찰로 교구본사전의 첫 번째 사찰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이번 전시에는 통도사의 유구한 역사를 비롯해 불보종찰임을 보여주는 금강계단의 조성유래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불상과 경전, 삼보에 바치는 보물급의 공양구와 장엄구, 창건주인 자장율사의 계율정신을 이어 수행한 고승들의 유물과 업적이 소개된다.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됐다. 1부,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은 '영산전 팔상도-비람강생(보물 제1041호·조선 1775)'을 비롯해 통도사의 창건과 역사를 적고 있는 '통도사사적약록(조선 1642년)',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의 내력과 과정을 적고 있는 '석가여래영골사리부도비(탁본, 경남 유형문화재 제544호·조선 1706년) 등 불보종찰의 면면을 보여주는 성보들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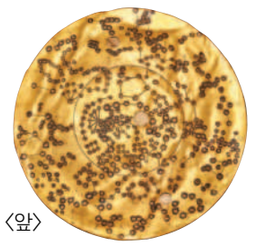
통도사 성보 최초 서울 展
불화·불상·공예·서적 등
총 161점 전시 최대 규모
통도사 역사·위상 한 눈에
기획 '교구본사전' 첫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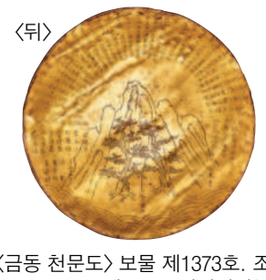
〈화엄불도〉 보물 제1352호. 조선 1811 / 검은 비단 바탕에 금선으로 채색한 선묘화. 〈화엄경〉의 내용과 구성을 알기 쉽게 그린 변상도.



〈청동 은입사 향완〉 보물 제334호. 고려 / 전면의 정교한 은입사와 사실적으로 표현된 문양 사이의 음각이 돋보인다.



〈앞〉



〈뒤〉

〈금동 천문도〉 보물 제1373호. 조선 1652 / 국보 제228호 천상열차분야지도 석각 탁본을 근대에 후쇄한 것.

2부, '통도사에 모셔진 부처님과 그 말씀'은 '묘법연화경 권3~4(보물 제1240호·조선 1470년)', '대반열반경(조선 1899년)', '대승기신론소 경판 권 상1·2(경남 유형문화재 제100호·조선 1681년)' 등 경전과 관련된 성보들을 모았다. 자장율사가 643년에 신라에 귀국할 때 불사리와 함께 대장경도 함께 모셔와 통도사에 봉안했다는 창건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통도사는 경전을 소중히 생각하고 보존해 온 종찰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불교회화 전문박물관으로 600여 점이 넘는 불교회화를 소장하고 있다. 불화는 일반 대중에게 불교의 교리를 쉽게 전달하여 불교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전법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불전을 장엄하고, 불교의식을 계승해 온 공예품들 역시 전법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3부, '성보로 전법하다'에서는 '화엄불도(보물 제1352호·조선 1811년)', '사명암 감로도(경남 문화재자료 제315호·일제강점기 1917년)', '청동 은입사 향완(부물 제334호·고려)', '금동 천문도(보물 제1373호·조선 1652년)' 등 불법을 전승하기 위한 불화와 공예품들이 전시된다.

4부, '멈추지 않은 수행'에서는 '호계첩(일제강점기 1932년)', '가사(조선 후기)', '작법귀감(조선 후기)'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출가수행자와 관련된 성보들을 모았다.

계율을 근본으로 삼고 금강계단을 세워 국민을 교화했던 창건주 자장율사를 비롯해 금강계단의 전통성과 상징성을 더욱 확고히 했던 고려시대 지공 스님, 사찰을 중창하여 대가람의 면모를 재정비했던 조선시대 우운대사 등 통도사에는 많은 선지식이 머물렀다. 5부, '자장율사, 그 후 통도사의 스님들'에서는 '자장율사 진영(경남 유형문화재 제276호·조선 1804년)', '설송당 부도 사리구(조선 1754년)', '벽안스님필묵서(근대)' 등 통도사 스님들과 관련된 성보들을 모았다.

통도사는 646년 자장율사가 금강계단을 쌓아 당에서 모셔온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계율의 근본 도량이 되었고, 신라의 승단을 체계화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고려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진신사리를 찾았고, 14세기에 여러 전각들이 지어지면서 오늘의 기틀을 마련했다. 조선시대의 통도사는 숭유억불 정책 속에서도 법등을 이어왔다. 임진왜란으로 가람의 대부분이 전소되기도 했고, 금강계단이 파괴되고 사리마저 약탈당하기에 이른다. 다행히 사리를 되찾고 계단을 다시 세웠으며, 전각을 중건하여 전란의 아픔을 수습했다. 이후 통도사는 여러 번의 중창을 거치며 현재의 불보종찰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국보나 보물 등 유형의 성보와 더불어 자장율사의 계율정신을 이어온 통도사 스님들의 발자취 역시 또 다른 성보임을 알리고자 한다"며 "이번 전시는 앞서 많은 후학들을 이끌며 문화재를 보존·관리해온 근현대 스님들의 노력과 현재를 살아가는 사부대중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다"고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양산 통도사는 조계종 15교구 본사로 1373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적멸보궁이다. 불화를 비롯해 불상과 공예, 서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1400여 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통도사의 장구한 역사와 위상, 그리고 불교의 깊은 문화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7월 3일(화) 오후 3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배우 이원종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전통공예명품전 '명장과 명인의 아름다운 동행'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7월 22일까지

(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와 (재)김포문화재단은 6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에서 제38회 전통공예명품전 '명장과 명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개최한다.

1979년 전통공예대전으로 시작해 올해 3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전통공예명품전'은 '명장과 명인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명장과 명인의 기술로 빚어낸 전승공예품을 전시하여 우리 전통공예의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김경미 作,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사경변상도.

우리나라 공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회원들이 함께 하는 이번 전시는 이 시대 최고의 장인들이 1년 간 땀과 열정으로 심혈을 기울여 만든 1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주요 전시 작품은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사경 변상도(김경미) △은칠보 염주(김성희) △동자(박찬수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공양(송근영) △청동은입사포륵수금문정병(국가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 곽홍찬) △은장연화문낙죽장도(국가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박종군) △폐백동구리(국가무형문화재 제103호 완초장 이상재) △초중도함 세트(옻칠 박만순) △숙종 상존호 옥보(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김성운) △통영 양태(갓일 이수자 도국희) 등이다.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는 "전통적 기법에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수준 높은 이번 전시 작품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통 공예의 맥을 이어가려는 장인들의 땀과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고 이번 전시의 의미와 가치를 밝혔다. 문의 / 김포문화재단(031-996-7342) 박재완 기자

지홍 스님 書圖 개인전

서울 동덕아트갤러리

6월 27일~7월 3일

글 쓰는 일을 아름다운 정토와 수행의 길을 가는 방편으로 여기며 정진해온 지홍 종사(태고종 청련사)가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동덕아트갤러리(서울 종로구 관훈동)에서 서도 개인전을 열었다.

선종에서 '불립문자'가 절집의 가풍이라고 하지만 말과 글이 아니면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전할 수 있었을까. 지묵으로 이루어진 〈팔만대장경〉이 전해지고 선조사의 오도송이 승방에 걸려 후학을 경책하고 길을 열어주고 있으니 글로서 눈을 어지럽히는 일이 전혀 부질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글쓰기의 일가를 이룬 대가들의 선필 일 획 일 획에서 느껴지는 전율과 〈금강경〉을 이루는 5천여 글자의 수많은 일 획 가운데 한 획을 어겨서 전체를 버려야 하는 일은 정녕 예(藝)와 도(道)의 길이 아닐 수 없기에 글 쓰는 일을 서예, 혹은 서도라 부르는 까닭일 것이다.



지혜명조, 지혜로 밝게 비추어라

이번 전시에는 〈반야심경〉 등 지홍 스님이 그 동안 문자 또한 불사(佛事)의 일익임을 생각하며 적어온 서예 작품 80여 점이 전시된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지홍 스님은 평생 청련사 수호와 교화에 힘써 오셨습니다. 불화와 단청에도 일가견을 갖고 있는 지홍 스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서예를 해왔으며, 그의 서예 실력은 가히 중국의 서예 대가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서도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고 지홍 스님과 그의 서예를 찬탄했다. 박재완 기자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강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중관 연구, 새 지평 열 譯書 나왔다

신상환 중관학당 대표, 용수 6대 저작 최초로 全譯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승불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용수의 6대 저작을 한국의 중관 학자가 전역(全譯)했다. 한 개인이 용수의 6대 저작을 모두 번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신상환 함양 고반재 중관학당 대표(前 인도 타고르대 교수)는 최근 용수의 6대 저작을 간추린 티베트본 〈중관이취육론〉 완역본을 발간했다.

총 3권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용수의 대표 저작인 〈중론〉을 비롯해 〈회쟁론(回諍論)〉, 〈세마론(細磨論)〉, 〈60송여리론(六十訟如理論)〉, 〈70공성론(七十空性論)〉, 〈보행왕정론(寶行王正論)〉을 담고 있다.

대중적으로 〈중론〉이외에는 접하기 어려운 저작들로 이를 한데 묶어 번역·발간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석학들의 추천사에서도 신 대표의 역경 불사가 얼마나 큰 족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 고등 티베트연구소 티베트 불교철학과 학과장 타쉬 체링은 "용수는 그의 저작들로 인도에 중관학파를 창시한 사조"라면서 "이 역서(譯書)가 한국어권 학자들의 불교의 진지한 연구에 크나큰 도움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관학자인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도 "〈회쟁론 범문 장문 문법해설집〉 출간 당시 '눈 밝은 학인들이 군웅(群雄)처럼 나타나, 역자(譯者)의 이런 모든 작업이 무용지물이 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라고 쓴 적이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상찬했다.

각 권의 번역을 살피면 신 대표가 용수 저작을 제대로 옮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다. 번역한 전체 티베트어 게송만 약 1,500개, 4000여 개의 방대한 주석이 이를 말해준다.

실제, 이미 산스크리트어와 한역, 영역 등이 한국어로 옮겨졌던 〈중론〉은 티베트 원문을 바탕으로 번역이 이뤄졌다. 〈회쟁론〉은 티베트 대장경인 북경판과 데게판의 판본 비교를 통해 기존 연구를 심화시켰다.



신상환 대표(사진 오른쪽)가 발간한 〈중관이취육론〉(사진 왼쪽).

티베트본 '중관이취육론' 완역
10년 역경 작업 끝에 결실맺어

"중관=중도 인식은 잘못된 것
교학, 응용·실천불교 밑거름"

〈광파론〉으로 알려진 〈세마론〉은 한역이 없어 원래 의미를 풀어 제목마저 새로 지었다. 〈60송여리론〉은 기존 한역서 간과된 중관학파의 견해를 중심으로 새로 옮겼다. 한역 자체가 없는 〈70공성론〉의 번역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역에서 용수의 저작으로 표시 않는 〈보행왕정론〉은 〈보만록〉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중관이취육론〉 완역으로 같은 저작임이 알려지게 됐다.

신 대표에 따르면 6대 저작은 크게 형이상학적·철학적으로 중관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과 도덕적 실천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뉜다. 〈중관〉과 〈회쟁론〉, 〈세미론〉, 〈60송여리론〉, 〈70공성론〉은 철학적 중관 교리 지침서이며, 〈보행왕정론〉은 〈권계왕송(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신상환 譯)〉과 더불어 도덕적 실천서라는 것이다.

신 대표는 2011년 문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던 〈용수의 사유〉의 저자로 대표적인 중관학자다. 인도 타고르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그는 이 책을 완역하기로 마음을 품은 후 오로지 역경을 위해 귀국을 선택했다. 그리고 종림 스님의 책박물관 고반재에 중관학당을 열고 오전에는 역경, 오후에는 농사와 사무를 하며, 10년 동안 작업에 매달려 그 결실을 맺었다.

그가 고집스럽게 용수 저작 번역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 대표는 "제대로 된 부처님 원음 해석이 부재한 한국불교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답했다. "교학은 뿌리"라고 강조한 그는 "응용불교는 줄기와 가지이고, 실천불교는 이에 대한 열매"라며 "제대로 된 부처의 가르침을 연구·공부하는 교학이 활성화되지 못하니 줄기나 열매가 좋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가 중관, 중도의 개념 오류다. 신 대표는 "〈중론〉 제24품 사성제(四聖諦)에 대한 고찰의 18번 게송에 따르면 '연기가 곧 공성이고 그것을 설명한 것이 중도' 임을 말하고 있다"면서 "가운데 것(中)이라고 한역돼 '양견을 여읜 것' 으로 통용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중도와 중관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중론〉에서도 용수는 이를 강하게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대표는 〈중관이취육론〉의 출간을 기념해 지난 6월 30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종림 스님, 법인 스님, 박훈 변호사 등과 함께 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또한 7월 3일 오후 7시 대구 자비선원, 7월 4일 오후 7시 부산 부산일보사 소강당, 7월 5일 오후 7시 대전 계룡문고, 7월 11일 오후 7시 광주 자비신행회에서도 각각 북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화엄석경, ICT기술로 연구·복원 필요"

최원호 문화유산기술연구소장
화엄사 화엄석경 학술대회서

3D 스캐닝·프린팅 등 ICT 바탕해
글자 판독·원형 재현 등 추진해야


구례 화엄사에서 발견된 화엄석경 중 일부.

4차 산업 기술 중 하나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해 구례 화엄사의 화엄석경을 연구·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원호 문화유산융합기술연구소장(전주대 연구교수)는 6월 29일 구례 화엄사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소장은 'ICT기술을 이용한 화엄석경 복원 및 활용 방안' 에서 최신 기술을 통한 화엄석경 연구·복원 방안을 제시했다.

고대 로마 지도를 ICT 기술로 복원해 낸 사례를 예로 든 최 소장은 "기존 조사는 2차원 적 기록정보에 머물러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면서 "하지만 3D 스캐닝을 통한 그래픽 등으로 입체 정보를 제작해 둔다면 구체적으로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다" 고 ICT 기반 연구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1만 4242조각으로 나눠진 화엄석경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하고 조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3D 디지털 기반의 입체 맞춤 조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석경의 데이터베이스, 3D 모델링·3차원 분석 통한 재현 등을 제안했다.

최 소장은 "화엄석경 원형 재현을 고려해 3D 스캐닝, 3D 프린팅 등 ICT 기반의 연구를 통한 기술을 적용해 원형에 대한 재현을 가능케 해야 한다"면서 "ICT기술을 통해 복원·재현된 화엄석경 경관 디지털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연구자와 국민들에게 석경을 가치있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 세미나에서는 화엄사 창건과 화엄석경의 조성시기, 화엄석경 편들에 나타난 복원의 단서와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원·활용에 대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최연식 동국대 교수가 '화엄사 창건의 역사적 배경' 을, 김복순 동국대 교수가 '신라 화엄종과 화엄사 화엄석경의 조성시기' 를, 조미영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 '화엄석경 편들에 나타난 복원의 단서와 문제점 고찰' 을,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화엄사 석경의 복원 및 활용' 을, 오세덕 경주대 교수는 '화엄사 각황전의 복원적 관점에서 본 화엄석경 전시관(보관소)의 방향성' 이 각각 발표됐다.

한편, 화엄사의 화엄석경은 돌에 〈화엄경〉을 새긴 것으로 통일신라 때 조성됐다. 임진왜란 당시 전소된 장육전 내부를 장엄했으며, 각황전이 건립 불사 당시 주변에서 석경 1만 4000여 편이 발견됐다.

신성민 기자

전통산사 문화유산, 지역 발전 이끈다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공모… 향교·서원 등도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전통산사와 향교·서원 등의 문화유산을 활용해 문화재의 가치를 전하는 프로그램을 모집한다.

문화재청은 "전국 곳곳에서 국민 누구나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전통산사 문화재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과 야간형 문화향유 프로그램인 문화재 야행에 대한 내년도 사업 공모를 오는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6월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소재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기획한 후 담당 시·도를 거쳐 제출하면 문화재청에서 심사하여 최종 선정한다.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홍보 지원, 사업지도 등도 함께 이루어진다. 또한, 사업 담당자를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해당 문화재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학회 2회 성운학술상 공모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가 제2회 성운학술상 논문을 공모한다.

논문 주제는 △경전 상에 나타난 염불신앙에 대한 고찰 △염불신앙을 통한 재가자와 출가자의 가피 사례 연구다. 가피 사례는 지장신앙, 관음신앙, 미타신앙, 주력신앙, 사경신앙, 경전독송신앙, 기도신앙도 가능하다.

대상 1명에는 500만원, 우수상 1명에는 200만원, 장려상 2명에는 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논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논문을 이메일(hanbulhak@hanmail.net)로 제출해야 한다.

수상작은 성운학술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학회지인 〈한국불교학〉의 기획논문으로 게재된다.

신성민 기자


한국스틸 고건축
특허번호 제10-1767202호
사 대웅전 | 산신각
업 일주문 | 가 든
부 건축 및 조형물


목재대비 유사도 90% 이상 저렴한 비용!
바늘 끝같은 정교함
사무실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연락처 010-5023-5050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린 후, 머리염색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 - 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박재완의 PhotoEssay



나무 아래서

여름햇살 아래
나뭇잎 짙어간다
나뭇잎이 짙어가는 것은
세월 또 흘러가는 것을
뻔한 나뭇잎은 신기하고
세월은 보이지 않으니
그 많은 후회의 빌미가
다른 게 아니었네

한 시절 나무였던 나무
이제는 '生'과 무관하고
분명한 이름 아래 서있던 석조들
이제는 역사와 무관한데
그 '무관' 위에 앉아서
짙어가는 나무만 보일 뿐
매일 보는 산 아래가 궁금할 뿐
그 많은 후회를 어찌하려고



정지천의
가족이 건강해지는 비법
⑤ 채식과 육식

채식과 육식의 균형이 중요

채식이 좋을까, 육식이 좋을까? 중년 이후에 성인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지키려면 채식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채식 바람'이 엄청 불기도 했었다. 그런데 음식에는 곡식, 채소, 과일, 생선 그리고 육류의 5가지가 있으니 어느 한 가지도 빠져서는 건강하게 장수하는데 문제가 된다.

채식이 좋다는 것은 육식이 문제가 많기 때문 아닌가?

육식을 많이 하면 비만이 유발되고 콜레스테롤이 증가되며 혈압이 오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몸속에 어혈을 쌓이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당뇨병, 중풍 등이 발생되기 쉽고, 음경동맥에 경화나 폐쇄가 생겨 성기능장애나 발기부전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채식만을 고집하고 육식을 기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채식으로 얻는 영양에는 한계가 있고 기력의 쇠퇴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장기의 어린이나 청소년은 물론이고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이 많은 사람, 그리고 기력이 쇠약해진 경우에는 육식을 해야 성장발육이 좋고 체력을 유지하여 활기차게 생활해 나갈 수 있다. 하나의 학설이긴 하지만 '사상체질론'에 의하면 육식이 맞지 않는 체질이 '태양인'인데 극소수에 불과하다.

육식이 중년 이후에 특히 필요한 이유는?

일본의 도쿄노인연구소에서 단순한 생명연장의 장수가 아닌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질 높은 장수를 위해 선진국 노인의 주요 사망요인인 심장병과 뇌졸중 등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는 연구가 있었다. 결과는 육류의 동물성 단백질에 의해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일본인의 평균수명 추이로 이를 재설명하고 있다. 영양상태가 극히 나빴던 1945년 이전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45세였는데, 동물성 음식 섭취가 늘면서 수명도 2배 가까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이다.

동물성 단백질에 의해 각종 성인병이 예방돼 결국 수명을 늘릴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는 교토대학의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고 한다. 그 원인은 혈액 중 알부민의 수치였다. 알부민이란 생체조직이나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말하는데, 이러한 알부민의 수치 상승은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에 매우 의존적이라는 결과였다.

적당한 콜레스테롤도 필요하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방성 물질이다. 세포 활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부신피질 호르몬과 성호르몬 그리고 소화 흡수에 필요한 담즙산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그러니 콜레스테롤이 정상보다 낮으면 호르몬과 담즙 생성에 장애가 오므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활력이 떨어지고 세포가 파괴되어 급성 노화가 일어날 수 있고 우울증도 나타나기 쉽다. 또한 뇌경색, 즉 중풍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성기능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채식이든 육식이든 균형잡힌 식사가 좋다.

육식 과하면 콜레스테롤 증가
콜레스테롤도 필요한 물질
채식만으론 충분한 영양 '한계'

중년 이후 성기능이 떨어지는 원인 가운데 동물성 음식 섭취가 너무 부족한 탓이 있다. 동물성 음식은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이 풍부한데, 정액과 정자를 만들어내는 원료가 단백질이며 성호르몬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다. 성호르몬은 생식기뿐만 아니라 뇌, 심장, 근육, 골격 등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작용을 나타내므로 만약 결핍되면 갱년기 장애와 노화가 촉진된다. 중년 이후에도 성생활을 지속하고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육식이 필수적이다.

양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것이 위구르족의 장수 비결

WHO의 장수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하루 고기 섭취량은 약 80g 내외이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국 신장 위구르족의 장수 비결은 하루 200g의 육류 섭취와 껍질째 먹는 과일이다. 그들이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민족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식생활 때문이라고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특별히 고기의 섭취를 줄이지 않지만 고기를 섭취하는 방식이 특이한데, 집에서 사육한 신선한 양고기를 오랫동안 삶아서 지방을 제거한 후 먹는다는 것이다. 즉, 고기를 통해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반드시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어서 비타민, 미네랄 등을 보충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과일은 특별한 간식이 아니라 고기와 같이 먹는 음식으로서 껍질째 먹는다. 껍질째 먹기가 거북한 것은 말려서 먹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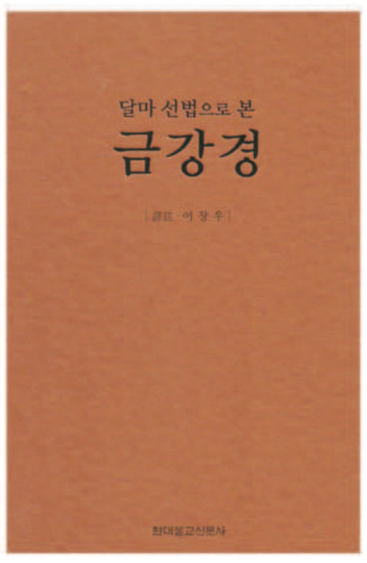
삶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오키나와 사람들의 장수비결

오키나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 2.5배나 많이 먹는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워 중국요리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으로 여겨지는데, 삶아서 먹는다. 돼지고기를 껍질째 무 · 다시마 등과 함께 삶아서 기름을 쏙 뺀 뒤 냉장고에 넣어 하얀 고체 기름이 생기면 그것을 제거한 후 먹는다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돼지고기의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줄어들어 매일 돼지고기를 먹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닭고기도 먹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육류 섭취량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다. 1인당 육류 소비량이 하루 평균 40g 정도인데 비하여 콩 · 채소 · 과일 · 해조류의 소비량은 400g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장수촌인 제주도에서도 삶은 돼지고기를 일주일에 3회 이상 먹는 분들이 많다.

음식의 균형이 중요하다

채식이든 육식이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몸 상태에 따라 곡식, 채소, 과일, 육류, 생선 등의 균형 잡힌 식사가 좋다. 아울러 체질에 맞는 고기를 적당히 먹는다면 보약을 먹는 것이나 진배없다. 고대 한의서에는 노인일수록 육식 섭취를 많이 하라고 했다. 한편, 채소는 차가운 성질이 대부분이므로 만약 비위장이 냉하거나 대변이 묽고 설사를 잘 하는 사람이 먹을 경우 소화불량과 설사가 생기기 쉬우니 조심해야 한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 19,000원 | 여시아문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탈의 돈법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담허대사 저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부분칼라 | 232쪽 | 12,000원 | 여시아문
전국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출판 및 구입 문의 : (02)2632-8739

중국의 고승 담허(倓虛,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은 법문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왕생극락하여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연관스님 · 보정거사 번역 | 46배판 | 부분칼라 | 250쪽 | 10,000원 | 비움과소통

곧바로 불퇴전지에 올라 성불하는 묘법!

이 책은 『무량수경』 상권의 아미타부처님의 48대원을 서술한 한문과 번역문 및 해설, 보정 서길수 박사가 산스크리트어로 옮긴 『아미타경』 한문 원문과 번역문,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법을 개술한 대만 방륜거사의 『정법개술(淨法概述)』 번역문으로 이뤄져 있다. 『정법개술』은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역임한 연관스님이 번역한 염불수행의 중요한 지침서이다.

염불이 살아나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비움과소통은 정토불서 발행을 통해
아미타부처님의 대원大願을 일깨우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비움과소통은 여시아문의 자매 브랜드입니다.
불교쇼핑몰 비움과소통 몰(www.bns-mall.co.kr)
불서전문 책방 비움과소통(02-2632-8739)

여시아문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화 : 02-2004-8213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천만 불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

QR코드로 간편하게!

BTN 할인몰 OPEN!!!



가성비 갑!
최고의 품질, 고퀄보장!
800여가지 브랜드 제품 입점!

• 사이트 주소 : www.btnmall.co.kr
• 회원가입만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